朝鮮日報
夕刊 五日(日)

## 社說 米國의恒久的戰時中立法案
—그國際的意義如何—

一

지난 三日 米國議會에는 開會劈頭 마크레놀즈下院外交委員長과 피트만上院外交委員長의 共同提案인 恒久的 戰時中立法案이 上程되어 米議會에 要求하게 되고 同日午後에는 루즈벨트大統領의 法案에 對한 教書가 내려 新年劈頭의 米國政界를 緊張식혓다. 이 恒久的戰時中立法案은 말그대로 昨年八月 米國議會를 通過하야 이미 臨時的法律로 되어잇든것을 이제 永久化하자 하는것으로서 그리 新奇한 感이 업스나 伊에戰爭이 方今 熾盛한狀態에 잇고 歐洲, 極東이 戰爭의 危機를 包孕하고 잇는 此際 이가튼 法律을 永久化하랴는것은 注目할 現象이다.

二

루즈벨트大統領의 教書에 依하면 一九三三年以來 歐洲及亞細亞의 여러 大國當事者間에는 人類間의 平和라든가 善意라는 目標를 指目한 意向이 아니라 害心과 敵意가 增大하고 侵略傾向이 顯著하얏스며 軍備擴張熱이 膨大하고 自制心이 縮少하야 結局 一般的 大戰爭의 悲劇을 接近하랴하는 危險한 要素를 含蓄하얏다. 그뿐아니라 米洲以外의 群小國家間에는 大衆이 비록 現存國境線을 變更치 안코 그대로 平和的으로 지날 意向을 가젓스나 그支配者들은 平和手段에 依치 안코 그 國境線을 變更하랴는 意圖가 잇다. 그러므로 米國은 道義的으로 이에 反對的態度를 表示하야 嚴正中立의 立場을 堅持하는 同時에 適當하고 充分한 國防을 充實히 하야 好戰國을 平和로 回復키에 傾注할것이라 하얏다. 이것을 要컨대 世界는 모다 戰爭의 危險을 包孕하얏는데 米國만이 平和維持의 精神을 가지고잇서 이것을 實現코저 中立法을 制定하고 國防을 充實하야 世界를 平和로 引導하겟다 하는 말이다.

三

그러나 米國이 戰時中立法의 制定이나 國防의 充實로서 다처올 戰爭의 危機를 防備할수가 잇슬가. 새로 上程된 同法案의 內容을 보면 (一) 交戰國에 武器輸出 禁止 (二) 棉花, 石油等 特殊軍需品은 軍需法에 依하야 輸出을 制限하되 그 程度는 大統領이 決定할것 (三) 食料品은 輸出을 禁止치 안흘것 (四) 交戰國에 通商貿易을 防害하지 안는 程度의 融資及 크레디트를 除한外에 融資及 크레디트를 締結치 안흘것, (五) 交戰國은 參戰遲速에 不拘하고 平等히 取扱하되 그 交戰國與否는 米國議會가 決定할것等 이다. 이로 보면 交戰國은 모다 平和를 攪亂하랴는 者이니 이것을 平等히 取扱하야 武器輸出을 모다 禁止하는것이 平和維持를 爲하야 適當한 手段인것가트나 現在 伊에戰爭에서 보는바와 가티 强者가 弱者를 侵略할때 兩者에 다 武器를 輸出치 안흘진대 에國 가튼 弱小國에는 滅亡을 催促하는 셈이된다. (五)에 但書로 交戰國 與否는 米國議會가 決定하다 하얏지만 歐洲大戰때 모양으로 侵略國이 被侵略에 對한 防衛라고할때는 어찌 하느뇨. (二) 棉花石油等의 特殊軍需品에 對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軍需品을 一切로 輸出禁止하면서 戰爭에 가장 效能을 만히 가진 棉花, 石油에는 制限程度로하고 그것도 大統領의 裁量에 任한다하는것은 그 中立性의 不徹底를 意味함이 아니냐. (三) 食料品의 例外도 마찬가지다. 戰爭을 中止케함에는 食糧을 斷絶케함이 무엇보다 效果가 크지안흔가. 況(四)交戰國民에게 通商, 貿易을 防害하지안는 程度의 融資, 크레디트는 除外한다 하니 무슨 中立의 意義가 잇느냐.

四

伊에紛爭에 聯盟은 五十一個國의 經濟的制裁로써도 아즉 一個 伊太利를 屈伏시키지 못하얏나. 아무리 富를 자랑하는 米國이라할지라도 上의 不徹底한 中立으로 戰爭을 中止케할수는 업슬것이다. 況 國防을 充實히 하야 侵略者에 對한 脅威으로써 平和를 維持하겟다하는것은 畢竟 軍備擴張의 競爭을 바게 誘致치 안흘것이다. 米國의 戰時中立法의 永久化는 結局 自國의 戰爭에의 渦入을 防止하고 莫不得已하면 戰爭에 勝하겟다는 心算에서 나온것이라 안흘수 업다.

# 英佛兩國政府間에 陸海空共同戰線進捗!
## 伊에紛爭中心으로地中海形勢重大化
## 軍事的援助義務確認

【巴里三日發同盟】伊太利 에디오피아兩國紛爭을 中心으로 地中海上의 形勢가 重大化함에따라서 英佛兩國政府는 聯盟規約第十六條 第三項에基한 軍事的援助義務를 相互確認 하얏는데 다시 巴里, 倫敦大使館附武官을 通하야 陸海空三軍에 亘한 相互援助의 具體案에 對하야 督議를 進行하고잇다고하는바 발서 海軍協同에 對하야는 具體的協定이 成立되고 伊太利軍이 地中海上에서 英國艦隊를 攻擊할時에 佛國政府는 地中海上의 要港施設을 다 英國艦隊에 提供하기로 同意하얏스며 空陸兩軍의 相互援助案에 對하여는 英國이 아즉 機械化過程에 잇슴으로 佛國側은 同案에 關하야는 國會의 協贊을 必要로 하는等의 關係上 具體案은 아즉 決定되지 안엇다한다 『이브닝·스탠다드』紙는 地中海上에在한 海軍 共同作戰의 代償으로 英國政府는 佛國政府에 對하야 라인 國境線을 保障할것을 公約하얏다고 하고잇는데 佛國政府側에서는 반다시 右報道를 全面的으로 否定치안코 다음과가티 述하고잇다

第三國이 地中海上에서 侵略行動을 取할時에 英佛兩國이 協力함은 聯盟規約에 基한 當然한義務이다 다시空陸兩軍에 亘한 聯盟援助案에 對하야는 大使館附武官을 通하야 技術的折衝을 進行하고잇다

一、그러나 佛國政府로서는 即時라인國境에서 英國政府의 援助를 要請치안는다 따라서 이브닝·스탠다드紙의 報道는 決코 틀린것은 아니나 相當히 誤解되얏이만타

一、伊太利軍의 攻擊에 對하야 英佛政府當局이 相互援助하는 大綱은 이미 決定되고잇스나 伊空軍의 擴張計劃 陸軍의 機械化等은 아즉完了되고 잇지 안는關係上 空陸兩軍에 亘한 英國政府의 援助를 即時要請함은 困難하다

그러나『소와르』紙의 外交部長 사뻬와인氏는 三日同紙上에 英佛兩國政府間의 相互援助案에 對하야 權威잇는側의報道라하야 다음과가티 傳하고잇다

英國政府는 오로지 海軍見地에서 相互援助案을 생각하고잇스나 佛國政府로서는 國境線의 關係上 空陸兩軍을 充分히 考慮치 안으면안되엿다 英國專門委員도 充分히 諒解하얏고 十二月에 드러가서 佛國參謀本部와의 間에 陸海空三軍에 亘한 折衝을 開始하얏다 그런데 移動手段에 對하야 重大難關에 逢着하엿다 佛國政府는 大統領令乃至 特例法案이 成立되지 안는限 同意할수가 업다 따라서 佛國政府가 一朝動員에 着手하면 全世界에 異常한 衝動을 與할것이다

第二는 聯盟各國政府가 相互援助에 應하기 말가하는 問題다 伊太利政府와 國際聯盟이 衝突되여야 佛國政府는 自國領土의 諸部分, 伊太利軍의 攻擊을 밧는時에 聯盟各國政府는 佛國領土의 一部分을 防衛하여주지 안흐면 안되다 佛國政府는 알프스國境線을 防衛키 爲하야 他方國境에 서 國軍을 移動할時에는 英國政府는 北方國境線에 自國軍을 派遣하여야된다 그런데 이러한 細目은 아즉 解決되지안코잇다 原則에 對하야는 이미 決定이되고잇다

## 宮中新年宴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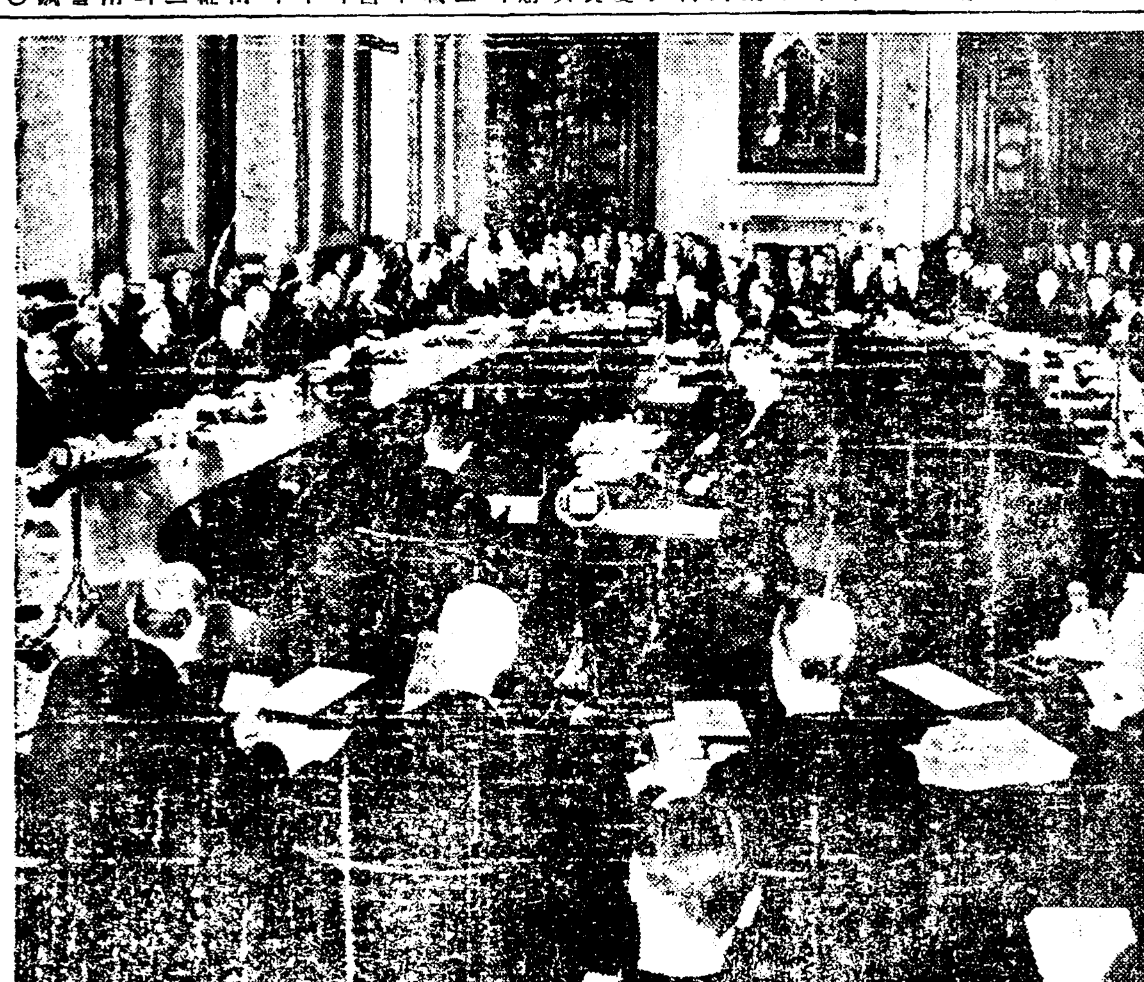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五日正午 宮中豐明殿에 內外臣僚八百餘名을 命召하시와 新年宴會를 開催하압시엇다

### 勅語

新年의佳辰에 當하야 祝宴을開하고 各國代表者並諸大臣等과 此歡을 偕히함은 朕의 滿足하는바이다 玆에友邦의元首의 健康을 祝하고 併하야交際의 益益親密하기를 望함

## 皇太子殿下 來七日葉山行啓

【東京電話電通】皇太子殿下와 順宮內親王殿下께서는 來七日葉山御用邸에 行啓, 當分同地에 御滯留하압실 旨로 四日 吩咐가게시엇다 또 天皇皇后兩陛下께압서는 今春에는 葉山御用邸에 行幸啓하압시지안키로 御決定, 從하야 歌會始及講書始의 御儀는 恒例대로 一月中旬 擧行하압시기로되얏다



◇倫敦五個國海軍軍縮會議의 開會式光景

# 米大統領教書는 侵略에對한抗議
## 對伊石油禁輸에協力도暗示
## 英國官民一般에衝動

【倫敦四日發電通】루즈벨트米大統領의 議會教書는 五個國武力強化에 對한暗默的抗議로써 英國官邊에 非常한 衝擊을 與하얏는데 右에關하야 英國側의權威잇는 代辯者는 左와如한 見解를發表하얏다

米大統領은 紛爭渦中에 휩쓸니우지안토록 注意하고잇고더욱이 明白히새로운 征服計畫 및 征服의 野心에對하야 嚴況한 權威로써 反對를 表明한것은 極히重大視할일이다 大統領이 米國은充分히 秩序가선것을 必要한다는 趣旨와同時에 交戰國을 責戒하는 必要를 暗示한것은 對伊脅威를 强調하야 石油禁輸에 努力할用意잇슴을 暗示한것으로뵈인다

【倫敦四日發電通】루즈벨트米大統領이 三日議會에 與한教書는 英國官邊, 民間을 通하야 一般的으로 非常한 好感을 가지고 歡迎밧고잇다 即大統領이 世界에橫溢한 帝國主義的傾向에 對하야 大戰當時보담도 勢力斷乎한態度로써 對處하려는 決意를表示한것은 英國의 平和的意圖와極히 잘合致되는것이라하야 此를歡迎하고잇다

大統領은 此等帝國主義的國家로서는 오직單히『歐羅巴』及亞細亞에在한 『數國』이라고 記하얏슬뿐으로 國名을 明示치안엇스나 右는獨逸 伊太利 日本을 暗示한것이라고 解釋하고잇다

## 空文原則論에不過 伊太利政府側은冷淡

【羅馬四日發電通】米國大統領의 議會教書는 國境及條約問題解決에對하야 平和的手段만을 强調한것은 伊太利政府로부터 一顧의 價値도업는 空文原則論이라고 極히冷淡한 態度로써 非難을하고잇다 即政界要人들은 左와如히 이것을 酷評하고잇다

大統領은 一般論을 말하얏슬뿐이다 伊太利의 眞立場을 몰은다 참事態를 잘알것이 必要하다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四十年間 忍耐를 거듭하야온 伊太利로서 그以上 무슨忍耐가 잇슬수업다 에디오피아가 條約違反을 頻頻이 하고잇는대 무슨 平和的解決이 잇느냐 그러나 大統領의 教書中에 伊太利의 目的에 合理的合法的인것을 是認하고가티 言及한 點만은 깃거운 일이다 다만 우리는 如斯한 是認이 具體的 方策을 同伴치안흐면 空書無意味한것이라고 附言하지안흘수업다

右教書는 條約 國境線의 改訂은 반다시不可한것이아니라 平和的手段을通하야 行하는 限은 異議업다는傾向이만코 米政府의 態度를 暗默裡에指示한것으로 解釋하고 同教書의 外交的影響에 關하야는 英, 佛及其他列國으로부터 侵攻이잇슬것을 豫想하야 戰戰兢兢하고잇는 小諸國의 立場을 一般的으로强化하는데 必要할것으로보고잇다

# 宋哲元麾下軍隊 日本國旗를侮辱
## 日本側에調査員上陸도禁止
## 領事館에서嚴重抗議

【天津四日發同盟】塘沽駐屯의宋哲元氏麾下의 第二十九軍部隊約五十名은三日市內某所에서 日本國旗를 引降하고 暴行을 하얏다고 傳한다 且下中國駐屯軍及總領事館當局에서 眞相調査中이나 萬若事實이면 事件은 重大化할것으로 推測된다

【天津四日發同盟】天津駐箚日本領事館은 宋哲元軍의 國旗侮辱事件에關하야 塘沽駐箚片岡警察部長에對하야 實情調査를 命하얏다 片岡警察部長은 直時로 太沽에 急行하야 上陸코저한즉 約二十名의 宋哲元軍은 頑强히 이것을 阻止하야 片岡部長은 上陸不能으로 引揚치안흘수업시되엿다 이가티 宋哲元軍의不法阻止行動은 日本官憲의 自由行動을 害하는것으로 事件은更히 重大化함에 이르럿다

【天津四日發電通】太沽에잇는 宋哲元軍의 日本商人暴行, 國旗侮辱事件에 對하야 實情調査키爲하야 天津總領事館警察官과 塘沽派出所의 警察官이 四日午後三時頃太沽에 赴한바 宋哲元軍은亂暴히도 上陸을 拒絶하야 不得已 抗爭하얏는데 問題는更히 惡化의形勢이다

【天津四日發同盟】在天津領事館은 太沽에서의 國旗侮辱事件에 對하야 四日午後四時北平에잇는 平津衛戍司令兼冀察政務委員長宋哲元氏及 冀察政務委員會外交委員長 陳覺生氏에 對하야 嚴重警告를 發하고 同時에事件의圓滿處理를 爲하야 即日陳覺生氏의 來津을 求하얏다

# 現地情況에對해 須磨總領事重要報告

【東京電話同盟】滿洲三十一日總決算報告를 가지고 歸朝한 須磨南京總領事는 新年事務始作의 四日午前十時 外務省에 登廳하야 먼저重光次官 桑島東亞局長에 對하야 有吉駐支大使의 傳命을 報告하야 最近中國의 政情그中 蔣介石新行政院長의 對日外交方針을 仔細히 檢討하야 이對處方針에關하야 重要進言을 하얏다 即須磨總領事는 蔣介石氏는 前行政院長汪兆銘氏의 外交方針을 踏襲한다고 言明하나 兩國間에 重積된 諸懸案解決에 對하야 何等의 誠意를 보이지안코 親日政策을 非難하는 學生運動을 放任하고 親日派要人에 對한 테로行爲等이잇서 如斯一般的情勢는 如何한 視野로 보드라도 日中關係의 好轉을 볼수업다 帝國政府는此際 南京政府의 態度如何를 嚴重監視할必要가잇다고 述한대對하야 重光次官은 昨年末 丁駐日中國代理大使로부터 日中南京會議의 提唱이 잇서 日本으로서는 모든機會를利用하야 兩國親善促進을圖來코저하는 從來의 方針에따라서 原則的으로 이에應諾하야두엇다 南京會議成立의 前提로서 全面的으로 中國의空氣가 明朗化하야 日中親善會談에 對하야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對하야 友好的空氣를 招來에 對하야 南京政府의 努力을 希望하고잇스며 南京會議에 對한 帝國政府의 意向을 說明하얏다 須磨總領事는 外務省을 退廳하야 午前十一時半三年町의 外相官邸에 新年宴會에 列席하고 同日 午後三時부터 官邸에서 廣田外相에 對하야 現地報告를하고 南京會議에 對한 重要進言을 試하얏는데 現地大體에잇서서 南京會議는 時期尚早라고 하고잇다 이에對한 廣田外相의 決斷은 一九三六年度 日中外交의 事業으로 各方面이 注目하고잇다

## 人事·集會

▲延寅善氏(殖銀龍山支店 支配人代理) 四日午後十時 竝井町二五二自宅에서逝去

000053

## 世界週史

### 一九三六年

一九三六年이 一九三五年으로부터繼承한 基幹的인 國際問題는, 亦是, 伊에紛爭과 倫敦海軍軍縮會議이다. 軍縮會議는 昨年末에, 差等比率主義를 긋까지支續하려는 英米의 質的制限先議主張과 共通最大限方式을 主張하는日本의 量的制限問題先議의 對立으로 그대로 休會되엿슴으로 一九三六年劈頭에 逐行하여야할 軍縮會議의 主要課題는 兩者間의 對立을如何히 折衝하야 今年末로써 滿了되는海軍條約에 代位할 新條約을 成立식힐것이냐 하는것이다

◇

極東位局의 震源이라고 할 [illegible] 北中情勢는 冀東政務委員會의 出現으로 一段落을 지은듯하엿스나 全國的으로 이러나는中國學生의 反自治運動과 南京政府의 北中懷柔工作은 日本軍部의 憤怒를 激發하고잇스니 蔣介石을 首班으로한 南京政府는압으로 어떠한手法으로써 日本에 對한 態度緩和와 全國에 澎湃한 排日運動 鎭撫에努力하야 自國의 體面도 維持하고 日中兩國의 國交도 圓滑케할는지 이것이 京政府에 賦課된 重要課[illegible]나이다 그리고 南[illegible] 旗를 들고 이[illegible] 會와 最近 古自治新[illegible] 巨大한 [illegible] 個自[illegible]

### 第六十八議會

昨年十二月二十四日에 召集되엿다가 二十六日로써 休會에드려간 第六十八議會는 政友會의 政府不信任案提出運動과 政府의 議會解散決意로 險惡한 [illegible] 現하드니 這間에 [illegible] 에는 國體明徵 [illegible] 模樣인바 再開會議를 압두고 政府對 政友의 抗爭은 去益微妙化하고 잇다

### 米國議會開會

米國議會는 三日에 開會되엿는데 劈頭에 막크레놀즈氏와 핏트맨氏의 共同提案인 戰時中立維持에關한 新法案의 審議의 要求가 잇섯고 루즈벨트大統領의 教書는 [illegible] 領就任以來의 國際關係를 [illegible] 一般的으로 大戰의 悲劇으로 하려하는 危險한 要素가 [illegible] 成되고잇다」는 것이 [illegible] 어데까지 [illegible]

## 八面鋒

◇米大統領 教書를 發하야曰軍備의擴張은 自制心의 縮少라」고.

◇又曰『大戰의危險이 接近한듯하니 恒久中立이 必要하다』고

◇戰爭은안코 장사만하자는말인가, 정말 中立이라하면 戰債의貸與와 軍需의供給도 말어야 할일아닌가.

◇英國은 朝野가 歡迎하고 伊國은 空想的原則論이라고 冷評하는것도 조흔對照.

◇英海軍聯盟이 新年報告에 大海軍建造를力說。

◇이사람들도 六日부터 軍縮會議가 再開되는事實쯤은 알고잇는지。

## 日曜氣配

◇株式=依然 選擇買氣盛하고 投機株에 對한 人氣가離反하고 採算株에 對한 買氣가 換히 旺盛氣配
大新 九七·四〇 日産 七七·六〇
東新 一二六·〇〇 鐘新 一二三·六〇

◇期米=季節的 關係와 環境低로, 飛付買가 警戒되나 三限三十二圓五〇錢까지 引締되리라고 觀測되는바 押目買氣强하야 氣配旺

◇綿絲=安含


電話番號變更
今番弊社使用電話番號를 左와如히 變更하얏사오니 下諒하시압기 伏願하압나이다
百貨店課 賣場及事務室
代表番號 光(3) 二八〇〇番
社長室、秘書室 專務室、課長室
總務課、連鎖店課
代表番號 光(3) 四〇〇番
京城鍾路 和信

院養療門專肺
十
人院療養料 一日 ...
院長 醫學博士 喜
副院長 金秉瑞
電話 ...

SPECTACLES
檢眼無料
專門醫師 責任診察
東亞醫院眼鏡部
京城 鍾路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京城府中林洞339
電話本局 863

パラゴンポータブル
파라곤 포-타블
PARAGON
蓄音機界의 驚異的發明
特許十一件
絕對的人氣!
普通·빗스及機械의 大革命
高級레-볼型以上의 평장한소리
P·第三十五號 定價 三十八圓
朝鮮一手販賣元 京城古市町 會商木青
東京·品川 パラゴン蓄音器株式會社

大景品 進呈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わかる
手紙上手は成功の鍵!!!
實用新案 手紙大辭典
大評判の手紙の本
現代出版社
發賣元

大景品
極上等算盤
解詳 九九原理
珠算速成術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圖解で極意公開!
持價一圓
現代出版社

當選謝禮
今般 平北本末寺評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後援으로當選의榮光을得하얏기玆以紙上으로謝意를表하옵나이다
昭和十年十二月 日
金法龍 崔仁昊 李庸建 金俊洽 張性俊 盧尙學 金炳瑞 尹自成 金永洛 朴永春
(無順)

當選謝禮
今般德山文廟掌議改選에際하야有權者諸位의深厚하신後援으로當選의榮光을得하얏기玆以紙上으로謝意를表하나이다
姜範錫 宋鍾覔 安鼎觀 李成來
(無順)

●히스테-리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第一劇場
新年第二週特別週間
毎日三回興行 午前十一時 午後三時 同七時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席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新興키네마超特作品 現代劇 國境의町
松崎明臣 監督
山路ふみ子 主演
東海林太郎 特別出演
偵探劇 民衆의敵
爆笑七日間
喜劇

優美舘
貫鐵洞 電光 二三九五
아리랑고개
無軌道西部의卷
G·멘

ヨ 藥 オセロ 치질藥으로

# 市內五個所公衆電話 一齊破壞코 돈窃金

## 四日夜以來 電話一齊故障으로發見

## 市內各署서犯人을猛搜査

사일 밤이래 시내 광화문통(光化門通)에 잇는 자동전화를 비롯하야 본정서 관내에 두곳, 동대문서 관내에 한곳, 서대문서 관내에 한곳 도합 다섯곳의 자동 전화가 고장으로 불통이 된것을 중앙 전화국에서 조사한결과 어떠한 자의 소위인지 자동전화의 돈넛는 통을 깨트리고 드러잇는 돈을 모조리 긁거간것을 발견하엿다 그리하야 즉시 각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손해를 조사하는중인데 이러한 범죄가 전에도 수차잇기는 하엿스나 범인은 체포하지못하엿고 이번에도 그와 가티 한거번에다섯곳이나 피해를입게된것이라는데 그수단이전자의 범죄와 류사한점이잇서경찰에서는 범인체포에 전력을다하고잇다

繁昌한 銀盤! (오늘 덕수궁에서)

### 些少한言爭끄테 끌로찌어서負傷

사일오후일곱시 삼십분 부내장사동(長沙洞)일번지 중국이발해청(華淸)목공장직공 만국순(萬閑存)(二〇)은 사소한일로다툼끄테 정정(笄井町)일백사십칠번지 최춘운(崔春雲)(三〇)의 넙적다리를 끌로찔러 약한치가량깁히 상처를내엇음으로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그를상해범으로 인치취조중인데 찔른게되엇이운 말이서루 등하지못한관계인듯 하다고한다

### 손님물건꼭친후 려판뽀이도망질

손님의물건을 들고다러난 려관직뽀이가잇다 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이삼삼번지 광안(光安)려관뽀이 노모동(盧模東)(二〇)은오일아츰열시이십분에 그의려관에서 묵고잇는경남울산군울산읍남동(蔚山邑城南洞) 명치대학(明大)학생손영조(孫永祚)(二三)의 가방과 양복바지기타 약오십원어치물품을가지고 어데로 도망하엿슴으로 이보고를바든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곳시내 각경찰서에 수배하는한편 범인을엄탐중이다

## 新年曉頭에 强盜가傷人

### ◇扶安郡下에惨事

【扶安】 섯달 금음날밤 한해를 마즈막보내는 종소래 사라진지 불과삼십분후 부안군부령면 연곡리(扶安郡扶寧面蓮谷里)전점동(全点童)(三七)집에는 낫가진 강도가들어 삼칭전에 벼판돈을내라함으로 전점동이는 놀내여 부엇돈으로 도망하면서 소리를 첫든바 강도는 점동이에게 달여들어 낫으로 팔과 얼골 머리를 함부로찍어 그자리에 호상케한후 도망해버렷는데 이를안 부안주재소에서는 전중경부보(田中警部補)의 지휘로 소원의비상소집과 백산주재소의 응원을어더 자동차를몰아 그근처를 철옹성갓치에워싸고 린형사부장은 현장을 림검한바 저고리끈이 떠러저잇슴과 피해자 전점동이의 진술에의한 음성을 단서로하야 이웃마을 웅중리(瓮中里)김경술(金敬述)(二二)을 자기집에서 자기마누라와 동침중인것을 무란히 체포하고 끈떠러진 피무든 저고리를 증거품으로 압수하야 도라와섯는바 그는 별수업시 사실을 자백하엿다한다 피해자 점동은 상처가심하야 참아볼수업스며 생명도 위험하다한다

### 拉致되엇든 乘客等歸還

【安東三十日發聯通】 지난삼십일아츰 안동현을 떠나관전으로가는 체신괴차공사(遞信汽車公司)의 『뻐스』는 마의구(馬蹄溝)에서 토병에게 습격되야 승객운전수등 열한명은 일진로서 끌어갓슴으로 그후각관계당국자가 구출키에 노력중인데 그중만주인 다섯명은 수일전에 석방되야 집에도라오고 남어지여

## 城大山岳部員 漢拏山서遭難

### 猛烈한風雪을맛나서

【光州電話通信】 제주도 한라산(濟州島漢拏山)탐사를 가든 경성제국대학(城大)산악부원일행여덟명은 삼일오후일곱시 화구호(火口湖)부근에서 무서운눈보라를맛나 방향을일코 도라오든중 그 대원인의학부학생전천기춘(前川期春)군이 향방불명이 되엇슴을 대원들이 눈보라와 싸우면서 수색하엿스나 발견치못하고 내려왓는데 그안부가 매우 염려되다고한다

서명중 조선사람한명은 피살되고 그외다섯명은 상처입을 도라오게되엿다하야 관계당국자는 김버하는중이다

### 新年元旦에 尙州에强盜

【尙州】 재작 신년벽두인 일일오전두시경에 경북상주읍 양촌리(梁村里)합자회사 양촌주조장(梁村酒造場)에 식도와 기타흉기를가진 강도이명이 침입하야 먼저 인부실에 돌입하야 곤히 잘드려자는 인부김명준(金明俊)외두사람을 결박해노코 너이들은 아모죄가업스니 십분만아모소리말고 잇스면 끌려줄터인데 떠들면 죽인다고 설교협박을한후 그옆방인 숙직실에 침입하여 호통하는 바람에 숙직원고시호(高時鎬)가 놀라다라낫슴으로 소기한목적을 달치못하고 그냥 자최를감추워 버리엿다 이급보를접한 소관상주서(尙州署)에서는 시각을 지체치안코 서원을 소집하야 최사범수임이 잇슬하고 현장에달려가서 임검하는일방 대활동을개시하야 방금범인수사에 노력중이다 일반서원은 신년도편히쉬이지 못하고 범인체포에 활동중이다

### 醉客이落傷化

이것도 며얼더인가 부내삼청동(三淸洞)일백이십이번지 박○○(朴○○)(三〇)은 지난삼십일오후 여섯시에 그의동무들과 술을만히먹고 집으로도라오다가 세균검사소(細菌檢査所) 압다리에서 떠러저서 몸에상처를 당하야 여러친구들에게 끌리여 겨우집까지가서 자다가 상시엇일 새벽두시경에 마츰내 죽고마럿다

謹賀新年
新年初荷一割引大賣出
犧牲的特價品豐富
一月五日부터 二十三日까지
丁子屋綢緞小賣部

中… 主催 全朝鮮… 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選戰
京城府…町一丁目… 一月十五日午後二時 …

### 天氣豫報

低氣壓은 中國方面에 잇고高氣壓은 滿洲에七七六미리를表示하고잇다 氣壓은 日本本州方面에나저지고잇다 滿洲、朝鮮은 맑으며 臺灣地方은 小雪이잇고 朝鮮海峽及日本內地는 흐리다 裏日本과 樺太地方等은 바람이잇스며 눈이온다

豫報 今夜 京城地方은 西風이불고 맑으며 치워진다 京畿道全道도 西風이불고 맑으며 치워진다 明日도今夜와갓다

昨日 最高 零下 二度 最低 零下 十二度五
今朝最低 零下 十二度三
今日正午 零下 七度九

## 貨物自動車轉覆 男女五名이死傷

### 平北碧潼郡下에惨事

지난이일오전열시반경 평북벽동군영시동(平北碧潼郡嶺時洞)자동차운전수 조병국(趙炳國)(二三)이는 그동리김상옥(金尙玉)씨소유 화물자동차한대를 까닭업시운전하야 부라민십수명을 태우고진주하는중에 잘못전복되여 타고잇든주상룡(朱尙龍)(二〇)은 즉사하고 녀자두명은 중상、남자수명은 경상을입엇다 방금벽동서에서는 운전수를 자동차규측위반과 과실상해치사죄로 취조중이라고한다

(五)

# 十二床廛中一員으로 國喪凡節에指定調進

### —開化以後는葬禮의簡易化로無勢—

## 兩代四十七年壽進床廛

가작히 몰려드는 자본주의경제(資本主義經濟)의 물결에 밀리여 아조이래 오백여년간 종로네거리를 중심으로 버려저잇든 지전(紙廛)청포전(靑布廛)백목전(白木廛)등 륙전(六廛)이외에만물전、안동전、정전、신전、남문전등 열두상전(床廛)은 다만 동상전(東床廛)이 그대로 남어잇슴으로 다른상전은 모다 효지부지 업서지고 그자리에는 이상옥이되는 큰건물이 빽빽소서잇다 열두상전중 혼상구(婚喪具)와 가구(家具)를 전문으로 팔든상전으로 지금 종로경찰서 건너편에잇든 수진상전(壽進床廛)도 이레에 빠지지못하고 업서진후 그자리에는 장인완(張仁完)씨가 『수진상전』이라는 상호를 그대로걸고 관곽(棺槨)원목판재(原木板材)제상(祭床)병풍(屛風)수의(壽衣)등 모든상구를 팔고잇다 장인완씨는 금년에 예순두살에나는 로인으로 그가열일곱살때에 열두상전중의 하나인 수진상전의 일원(一員)이되야혼상구와가구판매영업을 시작한이래 사십칠년간 시대의변천에따라 수진상전이 업서지게되후도 그는 적그한비와가리『수진상점』이라는그상호를 그대로걸고 가등영업을 계속하여오이로 지금에는 그의아들우근(佑根)(三〇)군과함께 경영하고잇다 전에는혼구(婚具)가구등도팔엇스나 각처에 신식잡화상이생기고 백화점이생기매 혼사용품인 화장품가튼것의손님은 모다백화점에 애이고 가구도신식가구점이 곳곳에생기매 이손님도역시 애이여 지금은 다만 상구만전문으로팔고잇는터로 상전에는 관곽 제상 병풍외에 고여상 축대 상장(喪杖)거적등과 심지어 미투리 집신등속에 일으기까지 초상집에서 필요한것은 모다 진렬되여잇다 처음장인완씨가 장사를 시작할때에는 그때돈 당호칠백량미천을 가지고 하엿다는데 지금엔 상점괴지갑만해도 수만원어치가 되며 일년에 소득세(所得稅)를 이백원가량 바친다고하니 사십칠년간의 결정(結晶)으로는 그다지크다고 말할수는업스나 작으만한 성공이라도 성공임에는틀림업어 구한국시대에는 나라에서 무슨상사가잇스면 그소용품은 전부 이 수진상전에서 진배하든터이며 대가집이나 작은집이나 상가에서 쓰는물건은 전부이전에서 팔든닭로 경쟁자도업고하야 관하나에도 조흔것은 천량 이천량식 여간장사하기가쉬웟고 리만튼것이아니엿든데 지금엔

경쟁자도생기고 또 관도그다지 조흔것을 쓰는이가 적어저서쪽하야 백원밧고 그러치 안하면 삼십원 이십원 십원 오원짜리까지잇다한다 그리고 점점일반민중이 깨어서 二전과가리 부모가죽으면 가산을탕진해가면서도 장사비용을 쓰는이도업서지고 똑『에수교식』이니 신식이니 간단히 장사를 지내서 종래와가티 상제노릇도 안하는사람이 늘어감에따라 점점 이상구장사도 찾는손님의수가 점점줄어저서 경영하기가 그전에다비교하면 몃배가 어려워젓다한다 그러나 수진상전은 상구파는상전으로 원체년조가잇는관계로 장안에서 좀 일홈이잇는집에서 상사가잇스면 곳이상점을 차저오는터로 상전뒤에잇는공장에서는 지금도 관짜는직공 두어명이 수일새업시 매일 짜고 옷칠하기에 눈코뜰새가업다고한다 남의일이라 사십칠년동안계속한것이 그다지만히보이지는 안하지마는 아츰저녁으로 춘풍추우 쓰라린장사를하여온 이상전들의주인은 여러가지걱정으로 얼굴에 주름살이 젓는지 상당히 주름살진 얼굴을만지며 자못감개무량한듯이 이것을 성공하엿다고할는지요? 무슨일이고 젊은청춘이 흥안백발이되도록 가진힘을다하야 계속하엿다면 이러케야못되엿겟서요 다른영업을 이다지 사십칠년간이나 하엿다고하면 벌서 더큰성공을 하엿슬지몰르겟다고 하며 퍼이나 처음시작하든옛날일이 생각나는듯이 묵묵히아모말도업시 안저서잇다

(사진은 장인완씨와 수진상점)

## 運動競技

# 全朝鮮女子氷上

### 體育獎勵會主催·本社後援 一月廿五日에開催

### 女流스포츠界의異彩

우리女流氷上競技史上의 첫『페ー지』를 燦然히繡노흔 第一回全朝鮮女子 氷上競技大會는 空前의 盛況을 이루엇거니와 이에 第二回를 마지하야 朝鮮女子體育獎勵會主催와 本社後援으로 오는 一月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漢江 또는 淸凉里 링크에서 열리게되엿다 同大會의 參加規定과其他詳細한 事項은 追後發表할터이며 벌서부터도 全朝鮮 女流『스케이터ー』들의 興味를 集中케한다

### 全日本綜合籠球對陣

第十六回 全日本 男子綜合籠球選手權大會는 今五日부터 八日까지 神宮外苑籠球場에서 열리엇는데 朝鮮代表의 全延專軍은 五日의 第一回戰에서 東京代表關東學院과 全普專軍은 第二回戰에서 千葉醫大對立敎大勝者와 對陣케 되엿다함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詳細한對陣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第一回戰(五日)
A、千葉醫大對立敎
B、□木師對浦和中
C、茨城師OB對東北帝大
D、關東學院對全延專

◇第二回戰(六日)
E、A勝者對全普專
F、B勝者對京大
G、C勝者對東大
H、D勝者對早大

◇準決勝戰(七日)
I、E勝者對F勝者
J、G勝者對H勝者

◇決勝戰(八日)

### 北朝鮮氷上競技

### 七日、咸興에서開催

【咸興】 每年大盛況으로 北朝鮮의 人氣를 獨占하고잇는 咸興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六回北朝鮮氷上競技大會는 七日正午부터 咸興城川江 링크에서 本社咸興支局後援아래 開催키로되엿는데 申請은 六日 正午까지 基督敎靑年會事務室로 하야주기를 바란다하며 申請金은 五十錢이라는바 多數出戰하기를 바란다고한다

## 大阪遠征中의 普專럭비軍大勝

### 九州代表를三十四對三으로

### 六日、三重高農과對峙

【大阪支局發電】 第十一回全日本高專럭비大會第二日의 普成專門對明治專門(九州代表)戰은 四日午前十一時五分부터 花園球場에서 普成軍의先蹴으로開始된바 普專軍斷然猛威를 發揮하야『원사이드께임』으로 普專은 前半에『트라이』三『꼴』一『페날티꼴』一 後半에『꼴』四 結局三十四對三으로 悠然히 勝利하엿는데 普專軍은 더욱元氣旺盛하야 이번에는 制覇하리라는 鬪志에 불타며 優勝圈內에드러잇다 이리하야 六日에는 東海京都代表인 三重高農과 準決勝戰에서對峙케되엿는데 三重高農은 東北代表의 第二高校를擊破한 强豪이다

무서운!! 百日咳의發作

危險을救하는 小兒用고데스
岡山渡邊兩博士推奬

겨울기침第一惡性 特히百日기침은半歲前의幼兒가걸니면大部分살지못하다고한고、滿一年前後의幼兒라도死亡率이極히만하야危險한것으로、原因은 보르데장구氏가發見한百日咳菌의感染이다。

病原菌의毒素의作用 에依하야呼吸中樞가過敏하게되어 果기침이강그라지게나와서、숨쉴時間도업서、손과얼골이紫色이되야窒息狀態를일으킨다。一晝夜에十數回式이나일으키는 此發作때문으로、急作이心臟이薄弱하여진危險이잇고、또貴重한에네루기ー를消耗식히는것이甚함으로 이것은무엇보다도무서운것이다。大人이면體重一瓩에四十카로리ー의에네루기ー면足하나

小兒는七十카로리ー 以上을必要로함에도不拘하고、百日咳에걸니면食慾이減退된후에、發作으로숙숙에네리기ー가업서지고抵抗力이急激히低下한다 이것이肺炎腦膜炎中耳炎結核等의病을일으켜서죽기쉽게되다

從前에小兒의危險을 救하기에는一時라도빨리기침의 發作을鎭定식히는것이 가장緊要한手段이나從來는그適當한 方法이업섯다고한다 그런대最近專門의

岡山渡邊兩醫學博士 가推奬하고잇는新發見藥『小兒用고데스』는極히安全하게이 기침의發作을鎭定하야서心臟을補强하고 榮養障碍를막는優秀한效果가나타남으로부터恢復期를大端히短縮할수가잇게되얏습니다。 그러고藥이라고生覺지못할만큼에달도조위하는 맛잇는시롭푸製劑임으로普通學校幼稚園에서常備藥으로採用한다。

試藥提供 小兒用고데스는品切時는左記發賣元에直接二錢切手五枚封入申込하시면急히試藥을二日分(但一回限)急送한다。
全國藥店에서販賣하고잇스나品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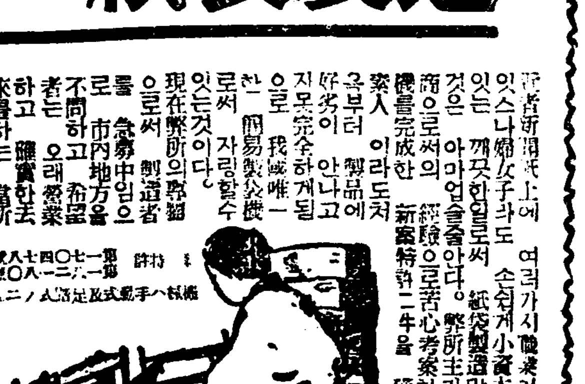
笹岡製藥所
大阪市北區中崎町二四
電話北四二二三番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는 巡査試驗問題集第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規則書郵送)

## 세월의 량극단

인생에게 대한 세월은 두끗이 잇는것 가타서 한끗은 사라저가고 한끗은 길어져가는 모양이다 즉 말하자면 유년에게 잇서서는 세월이 갈사록 증장이되고 로년에게 잇서서는 쇠퇴가되다 그리하야 저희 각각이 세월에 대한 태도를 달니하게되다 이와 비슷하게 인생들 중에는 가튼 년령의 사람으로서도 세월에 대한 태도를 달니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잇다 말하자면 영생(永生)을 밋는자에게는 세월이 가는것을 비관할것이업고 오히려 더욱 더욱 완성되여가며 영화로워지는것을 즐거워할것이오 영생을 밋지 안는자에게는 세월이 가는것을 슬퍼할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한번 가고 다시 오지 안는 세월 곳 사람으로 하여금 늙고 젊어지지 못하는 자연 법측의 순정을 사람마다 다 한탄하는것이다 그러면 영생은 어데서 차즐가 하나님이 우리게 잇다하섯다 그리고 또『이 영생은 그 아들(예수)에게 잇다』하섯다 三단론법의 결론으로『그 아들이 잇는자에게는 영생이 잇고 하나님의 아들이 업는자에게는 영생도 업나니라』할것이다

副業에紙袋製造



著者新聞紙上에 여러가지職業이宣傳되고잇스나婦女子라도 손쉽게小資本으로 될수잇는 깨끗한副業으로써 紙袋製造만큼 適當한것은 아마업슬줄아나이다。弊所主가 오래製袋商으로서의經驗으로苦心考案한結果 製造機를完成한 新案特許二件을 獲得하엿스나 素人이라도처음부터 製品에 着手할수잇는것이다。現在弊所의 製造機로써 自己生活安定이 되고 市內地方을不問하고 希望者는 申込하라

特許 第一七〇四七號 第一七二六一八〇號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大阪市天王寺區堀越町四一番地(アベノ橋北一丁)
電話天王寺三六一七番
振替大阪三八〇五、八一〇六七

『스페로인』의偉大한作用

◇『스페로인』을 頓服하면 強烈한藥効作用이나타나서 喘息의苦痛을 巧妙히도 小便으로排泄하는 强心性의 腎臟化學劑입니다
◇完全한기침으로 천식의 發作도『스페로인』의頓服으로이조절된다
◇身體에 爽快한溫暖을주어서 氣分을 좋게하고 安眠이됩니다
◇이와가티 有効하나모르히네나 아드레나린其他의毒劇藥의問題가안입으로 아모리連服하야도 人體에絶對로害가업서 念慮업시 服用할수잇습니다

適用症 神經痛、膈膜痛、氣管支加答兒、其他기침의諸症

價 『스페로인』

スペロイン發賣元 東亞藥園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三一

特約店 京城南大門通 新井藥房 …

注射以上의頓服藥

놀라운新創見劑
「スペロイン」(스페로인)을
速히服藥하고全快하십시요

천식
완고한기침
당장에 숨이끈칠뜻한괴로움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メリヤス雜貨 三永商会
店名記入商標請求次第無代進呈
京城府三角町百五番地
電話光化門(3)一四六三·一五八三
振替京城一一五八〇番
仕入部 大阪市此花區上福島南三丁目四
電話福島一五八八

政府特許 六方鑑法器 絶對療法

盛聖閣

鳥捕網
京城府…町二丁目 秋岡商會
電話本局(2)四三九〇
振替京城二二一五六

# 古典研究의 方法論

## 文化遺産에 對한 批判的態度 ②

李 淸 源

그러면 科學은 엇더케우리에게 方法論的으로 命令하고 잇는가?。그것은 「그어떤事件도 經濟的 關係에 잇서서 따라서 生産力의 發展에잇서서 把握될것이다。即政治上의 一切의現象은 社會構成의 土臺인 經濟上의 一切의事實의 集中的、統一的反映임으로、그어떤事物이든지 먼저 이觀點에서 分析하지안흐면안되며 그와同時에 各時代에잇서서의 具體的特殊性을 **本**實的世界史的 觀點으로부터 分離된것이아니고、現實的、發展世界史的 過程에잇서서의 特殊性으로、各時代의 國家形態와 觀念形態와의互相關聯에 잇서서 把握할것이며、單純한 資料를歷史的 時間과 場所에 잇서서、配列한것이아이고 그歷史的過程에 잇서서의 具體的 特殊性에 잇서서 그 歷史的現象、事件과의 사이에잇서서의 關聯의 意義를따라서 그任務와 把握과를 明白히하는데 依하야 모—든 歷史的資料의 單純한蒐集、把握、敍述보담 훨신키다—란終局에잇서서의 歷史的合法則性의 特質를具體的으로 闡明하는데잇다。

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우리들의 方法論은 科學이될수업다。勿論 우리들이 政治的모—든現象을 經濟的 事實로시 說明하기 爲하야서는 다시말하면 歷史上의 모—든·人物을 善人과 惡人、同情할것과 同情하지안흘것과 云云하는論로 區分하고잇는「主觀主義的歷史學」의 낡은傳統을 永遠히淸算하기爲하야서는 우리들은 原始的으로經濟的資料를蒐集하고 說明하지안허서는안니된다。그러나 이것은資料를 **尊**重하여야할 資料임에는 틀님업다。우리들의 모—든 論證은 이資料를依하야 明快하게 또數字的近確性을가지고 論爭의 餘地가 업게되는것이나。그러나 이것만으로서는 歷史的進行를 完全히 說明할수업는것이다。우리는이곳에서決定的으로 맑스、엥겔스의 有名한古典的定式化를想起하여야할것이다。即「참으로歷史라고하는것은 一定의經濟的事情아래에서 어느特定의經濟的基礎우에서 創造되는 이經濟的基礎의組織입시는、歷史그것도역시依然히理由하지못하는것이다。

그러나 歷史는 活動的人間에依하야 創造되는것으로서 그들의直接的動機라고하는것은 꼭 個人經濟的性質의것이외를 必要로하지 안는다」라고 强調하는것을!。換言하면 所與의歷史的條件아래에서 活動하는 人間이 歷史를創造한다는것을 即歷史的必然의 決定論은 人間能動的活動=實踐의評價를 妨害하지안는다는것이다。萬若歷史에잇서서의 人間能動的 任務의承認을 拒否한다면 그것은조곰도 疑心업시 經濟的唯物論따라서 歷史的 宿命論에 떨어지고 마는同時에 歷史의 無限한 辨證法的發展의 크다—란 歪曲에끄을것이다。

### 社會의經濟的條件과 人間의自由意志

그럼으로 우리들의 方法이란 結局모—든 社會發展의 基礎는 經濟的條件이며 人類의歷史는階級對立의 歷史임과 同時에 歷史를 創造하는主人公인 人間의 自由意志와를 辨證法으로 統一하여서만이 비로소 우리의 方法論은 科學이될수잇는것이다」

以上의것은 極히槪括的意味에 잇서서의方法論이나 우리들以上의方法論을 自己 自身의것으로 만들기 爲하야서는 무엇보담도 먼저歷史的進行의 一般的知識을 精確하게把握하여야할것이다。이것은가장決定的인 重要한問題이다。그러나 이것은 **辨**證法에 對한 哲學的論爭을展開하라고하는것은 아니다。우리에게는 그런餘裕가업다。

우리들의 科學的先驅者의古典的定式化에 依하면 人類의歷史的發展過程은 그始源的인 原始社會로부터資本主義構成의 現役階에일으기까지 다음과가튼 歷史的道程을 밟어왓다。即「財産의最初의形態는 種族財産이다……第二의形態는 古代에잇서서의公共自治體의 財産及國家財産이엿다……이때에는 벌서公共自治體의財産과가티 動産의私有及不動産의 私有도 發達한다。그러나 그것은 例外的 公共自治體에對하야 從屬的形態로서이다。……私有財産의 發展과가티 이에비로소 近代의 私有財産에잇서서—一層擴大된 規模우에서가를들날뿐이다—또다시볼수잇는것과가튼諸關係가出現한다。……第三의 形態는 封建的또는 身分的財産이다。」(도이체·이데오로기)라고하엿는데 이觀念에서본적에 우리朝鮮에 잇서서의 歷史發展行程을 **血**緣의 結合을 紐帶로한 原始社會는 三國時代初期까지 繼續하고 公共自治體 或은 國家에依한共存形態「아세아」的 奴隸所有者的構成은 三國時代、統一前新羅時代、高麗時代—特히 高麗는軍事的인奴隸社會이엿다—까지계속되고 封建社會는 李朝에 와서 비로소 展開되엿다고 볼수잇다

以上과가튼 觀點에서만이 우리들은 各時代에 잇서서의 經濟的 構造의 內面的關係、內在的 矛盾의 發展과 그로부터 생기는 生産關係의 變化的發展의 一般合法則性과의 不可離性과를 科學的으로 論證할수잇슬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獻以前의 時期이 업고、搾取가 업는 人類社會發展의 始源的 段階로서의 原始社會로부터 階級社會에의 發展的轉化、內面的으로는 家族의 直接血緣的聯合인 政治的 經濟的單位이엿스며 社會構成의基礎이엿든 氏族體로부터 掠收生産樣式에 일으기까지 換言한나면 民族體가 一定의發展過程에잇으며 必然的으로일어나는父權의增大는 父系家族에로의 變化와 **奴**隸의 發生이라는 結果를내엿다。

그리하여 이過程은「大人」과「上戶」라고일홈지어불으는 奴隸所有者的先驅者들이 氏族全體의 權力을 自己들에게 有利하게 利用하야 自己들의財産을保有하엿든 것이고 이家父長的財産=個人財産을 保有하고잇는 實際的權力이 氏族이 가지고 잇는機能을 破壞하자 말자 氏族은 崩壞하야、이제는 政治的 經濟的單位에비로소 家族에 移行하야 이는完全히 奴隸生産樣式이開始되엿고、또發展하엿고 따라서이것의 封建的生産樣式에의 轉化와그發展過程을 究明하는데依하야 朝鮮人의過去의生活、階級、階級運動의歷史를 政治、經濟、文化의全過程에잇서서 그史的發展을精確히 說明할수잇슬것이다。그리하야 우리들은 이任務를 現實的으로 遂行하기 爲하야서는 以上과가튼 觀點에서 古典을硏究하지안흐면 안이되는것이다。

以上에서 方法論的으로 不充分하나마 解明한 우리들은 인저이問題를좀더 論究에로 推進식히기爲하야서는 古典硏究의技術的側面을 밝히여야할것이다。그런데 在來이나라의 新興學徒들은 **技**術的側面에 잇서서는 史料의如何는反映되는것이안이다 라고하는말을 만이들으나、이것은 큰잘못이다 왜그런이하면、技術問題는 決코 黨派性과 똑떨어져서、存在하는 性質의것이 안인以上 그에도 亦是 黨派性이 貫徹하고 잇는것이다。

古典硏究의 技術問題에 잇서서 가장 重要한것은 任意의歷史的 古典과 史料的 古典과를 먼저 區分하여야 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資料의 價値를 지어야 한나는것이다。이렇하여서 만이 그어느것을 無條件的으로 利用하여도 조흐나 그어느것은 二次的興味 또는 全然 無視하여도 조타는것을 即 義務的인 것과 參考的 乃至 不必要한것과를 區分하여야 한다는것이다

# 特殊論叢

# 正音發達史序論

## 訓蒙字會의 考證 ②

方 鍾 鉉

다음으로 이訓蒙字會의 板本에 여러가지 種類가 잇는듯하므로 될수잇는대로 考査하야서 이것을 比較해보기로한다。먼저 京城大學圖書館所藏本이 잇스니 이책에는 萬曆四十一年九月 日 內賜訓蒙字會一件 太白山上 이라고 씨워잇고 內賜印이 分明히 찍혀잇다 이러면 이萬曆四十一年은 어느때인가하면 光海君五年即 西紀一六一三年이니 이年代를 다시 訓蒙字會刊行 世珍이가 各時代 即嘉靖六年에 比하야 年數의差異가 얼마나 잇느냐하면 이內賜本은 八十六年後의일임을 알수잇게되나니 一段으로 內賜되는것이 刊行當時에 되는만큼 그刊行年代를 後世의우리로하여금 推測케하는것이 만흠에 不拘하고 이 책은 八十餘年의 긴歲月이 지난後에 한것이니 이內賜本도 第一次初版本이 아닌것이라고보아 크게 틀림이 업슬것이다 아마도 壬辰以後에 이책이 漸漸업서진것을 念慮하야 다시찍어 太白山上에 保藏케한것이라고 推測되는것이니 이책을 아래에는 略解하야 城大本이라고하기로한다 이밧게 여러사람이 가진책을 보면 城大本과는 좀 다르므로 이것을 別本이라고하고 朝鮮光文會刊行本을 光文會本이라고 略稱하여쓰기로한다。

城大本은 그板이 長一尺幅六寸五分이고 別本은 長九寸 幅六寸五分의책이다、이들의모든책이 그枚數와 內容의體裁에 잇서서는 同一한것이니 卷首에 訓蒙字會引이 二枚와 凡例四枚 目錄一枚가잇고 卷上中下 세권이 다 三十五張式으로 終了되어잇는點도 꼭갓다。다만 光文會本이 卷末에 周時經의 訓蒙字會再刊例가 四枚付刪되엇슴이 異點이라고할것이다、그張數에 잇서서는 每張이 三十二字八行이고 每行이 四字로서 一面이 四行으로되는 이規定도 다 一致하는 것이니 이것은 亦是 訓蒙字會 引에 作者가 四字類聚 諸書作書라고 明示해노흔바에 違反이 업다 또 그目錄을 보면 順序가 아래와갓다

上卷

天文 地理 花品 草卉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蟲豸 身體 天倫 儒學

書式

中卷

人類 宮宅 官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

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

下卷

雜語

이와가튼 順序로 글字를 排列하고 每字에 註解를 하엿스니 例하면 다음과갓다。

하늘텬 天 〔道尙左日月右旋〕

따디 地 〔形〔〕體道尙右水泉東流〕

霄 하늘쇼 俗稱靑—又雲—霄也

壤 따양 柔土無塊曰—又境—亦曰—

이들의 여러 點에서 城大本과 別本及 光文會本이 一致되는것이지마는 이제 이들의 相違點의 有無를 아래에 比較하여보면

一、城大本은 全部 陽刻임에 不拘하고 別本은 上卷第一枚의 全部와 第二枚의 最終二行과 第三枚의 全部가 陰刻으로 되여잇는것이 板의 長廣의 大小와 아울러 差異잇는點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의 比較에서 나타나는 陰陽刻의 差異와 紙質의 區別과 字體의 考査로는 그어느板이 最初板本이며 또 어느것이 先이며 後인지를 論定할 수는 全然업다。다만 이아래에 對照하여 나타나는 事實에서그 어느것이 좀더 資料로서의 信憑을 좀더 만히 두게할까하는 것뿐이다

一、城大本에는 半齒音(ㅿ)字使用이 分明하나 別本에는 區別하야 인고 引用하기 어렵게 混同狀態로 되어잇다 大槪 이日母字를 使用한것이 三十三字이니 例하면

壤 爾 兒 耳 如 貳 任 儒 染 等의 諸字이고 朝鮮語의音을 이 半齒音字인「ㅿ」를 使用한것이 四十六字이니 例하면 秋 香 蒐 耘 狐 弟 愛 ... 等의 諸字이다。光文會本의 校正은 別本에 依한바름 이들의 字音에잇서서 全然 信用하기에는 퍽 어려운 點이 만흐니 그것은 使用이 確實하지안흔까닭이다。

# 再生의序曲

吳 空 蕉

죽엄가튼 沈黙의 季節
기나긴 冬眠의 밤은길기도하엿다
오—그러나 來日은 嚴한緘口令이풀니는날
來日은 解放의約束이 實現되는날
빗나는自由의 饗宴이 열니는날——
죽엄의 沈黙깨트리고 긴숨쉬고 기지개펴고
그윽하나 우뢰가튼 躍動의소리
땅과하늘을 잡어흔들며니——
緊張한 待機中의 再生의群生——
莊嚴하고 터진듯한 復活의交響曲
그序曲을 알외는날——
오—來日은 驚蟄! 啓蟄의날!
담으렷든입은 열니고
감엇든 눈들의뜨지고
막혓든귀는틔이고
옴으렷든 발뻬여노코
접엇든 나래펴고——
직직하는놈 우는놈 노래하는놈——
기는놈은 기고 뛰는놈고 뛰고 나는놈은 나르고
때아슴이업는 이自由와解放의樂園을
세로뛰고 가로뛰며 헤젓거겨
하늘과 땅이좁으려니——
오— 來日은 蟄! 蟄의날!
우리의 冬眠의밤은 支離도하다
오—우리人間의 蟄 은 蟄 의날은
언제나 오려나!언제나오려나!

# 쏘시알리스틱 레아리즘提唱後의 朝鮮文壇의 趣向 ②

安 含 光

最近 리아리즘問題提起以後 作家的經驗이 豊富한世界的巨匠(!)풀—키도、作品의寫實性에關한 그어떤所見가운데서、그는政治上의 理想(主觀)乃至는藝術的『판타지』를 無視하는것이아니라는 뜻의말을하고 잇거니와 이도要컨대 前記리—누의 命題와도 相互關聯되는 意義를갓고잇는것이 아닐수업다。

어쨋든作家는 그의作家的實踐에잇서 現實의 그어떤重要한本質的特質을 特히浮彫的으로描出해내지안허서는 아니될것이다。藝術家의根本的條件、即 現實의그어떤本質的特質을 捕捉하기 위하여는眞正한意味에잇서 **作家**의世界觀이 必要하며、그捕捉된 本質的特質을 藝術的으로 具象化하기위하여는、作家의技術、藝術的「판타지」가 問題되지 안흘수업는것이다。이리하야 優秀한藝術家에 依하야 再現된現實은、「現實그물건보다도 一層明瞭하게 一層完全히 表現되지 안흘수업는것이다。

그러나 近來의 朝鮮의 藝術家들은 大部分 理想主義的 哲學의 立脚地에서 自己의 存在를 說明하려엿서오히려 一種의人間的 矜持를 가지는 傾向이 濃厚한것이니、이리하야 超然하여야할 그들의 藝術的「판타지」가 生氣업는 不純한코—스에로 洞窟되면서 잇는 形態에있다。小市民的인 局限性、歷史的過程에 對한 俗學的機械主義的 理解가 作家的生活을 漸次로侵蝕하면서잇다。

이와가티 그들이 眞實한 意味에잇서서의 理想을 지니는곳에 即 純正哲學者들이 **現象**과本質의 有機的關係를 理解하지못하는 辨證法的統一을 自己의 피(血)와 살(肉)로 하지못하는곳에 거기에는 現實에 對한 小主觀的解釋의 狹隘가 그들에게 對하야 最後의 棲息處를準備하고 잇는것이다。

테로 動搖와 混迷!低調와惰性……等等의 모—든 悲劇的表徵에 現今에 인테리라고불니워지는 한뭉치의人間의 性格을完全히 侵蝕하면서잇는傾向이 그 어느때보다도 가장濃厚하게 提示되면서잇는것이다。

勿論 거기에는 社會學的으로 解釋될 그만한 理由가잇다 푸로階級運動이 比較的活潑하든時期에는 그의思想性은 젊은情熱과함께 그들을 接近식혀마지안헛다。그러나 現今과갓해서는 그들의 實踐的認識에對하야 적호흠의 恐怖와威脅을늣기기始作하엿스며、이리하야 인테리的懷疑、「諦念」에로 沒落될多分의 可能性을 表白化하게되엿이다

「周圍에는 沈默! 모—든것은 對答업고、人氣업고 希望업고 그우에 極端으로 遲鈍하고 愚直하고 狹量이엇다。同志를 求하는視線은 從僕의威嚇이아니면 嘲笑에 依하야 마저(迎)지고、이웃은 그로부터背信하지안흐면 그를략되게하엿다。」

이는 一八二五年「쥘쳔」의回想의 一面이어니와 現今의 世代的雰圍氣도 이러한言辭的表徵과 非常히 갓차운 地點에잇다는것을 發見하지안흘수는업나。

그러나 그들에게 이와가치 鬱한雰圍氣를 돌코나설 勇斷과 氣力이 아울러업다손치드라도 그들이 그의精神生活의 餘念한枯渴死滅을 相伴하지 안흘수업는 沒落階級에게 그들의 藝術的 實踐의 全部을 依據식히기에는、그들의 作家的良心의 沈痛한煩惱가 가로노히게 되는것이니、이에 그들은「文學的眞實」이라는 漠然한 口號로서 그들의 悲劇的 드렴마를 解決하려 하엿다

## 新刊紹介

▲女論 十二月號 京城西大門町一丁目三三 女論社發行 振替京城八一二番 定價十錢

▲調査月報 十二月號 朝鮮總督府發行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京城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青年太陽 新年號 東京市赤坂區表町三丁目 日本青年文化協會發行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聖書朝鮮 新年號 京城府外龍江面孔德里活人洞 一三〇ノ三 聖書朝鮮社發行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카톨닉靑年 新年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닉青年社發行 振替京城二二三四六番 定價十五錢

▲國民法律 一月號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發行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定價十五錢

▲高麗藥劑師會會報 第二號 京城府太平通二丁目 濟生堂藥房內 高麗藥劑師會事務所發行 非賣品

▲獨學通信 第四十五號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發行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五錢

楊口

合資會社 楊口酒類釀造商會 代表 崔昉爀

楊口商工組合

楊口郡敎育會

楊口邑 靑楊館 主 方熙烈 妓生 元山玉 同 劉紅桃 同 李月仙 同 金明中玉

楊口儒林一同

方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楊口面職員一同

楊口郡東面事務所 職員一同

亥安面事務所 職員一同

楊口郡南面事務所 職員一同

水入面事務所 面長 朴豐洙 書記 黃謨珍 書記 金錫範 書記 朴秉文 書記 尹成植 書記 趙龍珏 技手 張基寧

亥安面市場 旅人宿業主 李春明

深谷寺 主持 嚴枕松

北面上舞龍里 肥料賣藥商主 金春瀛

北面協議會員 劉興男

北面上舞龍里 釀造酒類製造場主 李鳳甲

孫徵在

江原道楊口森林保護區 村松忠治 李昌林

楊口金融組合長亦支所 朴東爀

楊口邑市場 仲介人一同

楊口邑市場 金剛冷麪屋主 尹熙烈

楊口公醫 玉慶植

北面職員一同

方山谷 鮮一商店 主 金云汝

北面芳山谷 新興商店 主 金衡振

綢緞布木雜貨代書兼木材商 朴贊奎商店

水入面古方里 新興製酒場 主 金景七

水入面印佩里 有志 朴昌洙

水入面協議會員 朴漢洙

水入面文登里 酒類製造業 主 金鎭九

松靑里區長 李英實

鶴島里區長 金鍾麟

司法代書士 文相龍

南興酒類製造場 主 崔先鳳

亥安面市場 酒類製造業 主 李雲龍

南面桃村里 共濟醫院 崔潤錫

桃源製酒場 主 柳元永

亥安面市場 綢緞布木和洋雜貨 金憲植商店

亥安面市場 安盛商店 主 金炳吉

楊口郡亥安面濟世醫院 醫生 李文卿

牧師 鄭基鍾 傳道夫人 高善子

郁元堂 楊口寫眞館 主 崔東元

長箭

鰮油肥製造業 崔永福

鰮油肥製造 海產物貿易 金斗益

000054

外金剛長箭港 水產業 鰮油肥製造業 黃雲天

朝鮮料理 長春館

鰮油肥製造業 崔燦鉉 電話三九番

鰮油肥製造業 海事業 土地賃付業 車基亨

鰮油肥製造業 李相鎬

鰮油肥製造業 朴行植

江原道長箭港 大興堂時計店

長箭和信運輸店 日光商會本店

外金剛長箭港 雜貨穀物貿易 丁海完商店

外金剛長箭港 崔圭河

外金剛長箭港 銀河理髮館

外金剛長箭港 藥種問屋 光成堂藥房 主 李益爵

外金剛長箭港 鰮油肥製造業 趙元玥

外金剛長箭港 旣成服專門 新盛洋服店 主 康裕松

外金剛長箭港 文化堂時計店 主 高完鎭

外金剛長箭港 各種自轉車 리—야카販賣 池成自轉車店 主 池炳斗

外金剛長箭港 水產業 鰮油肥製造業 朴淳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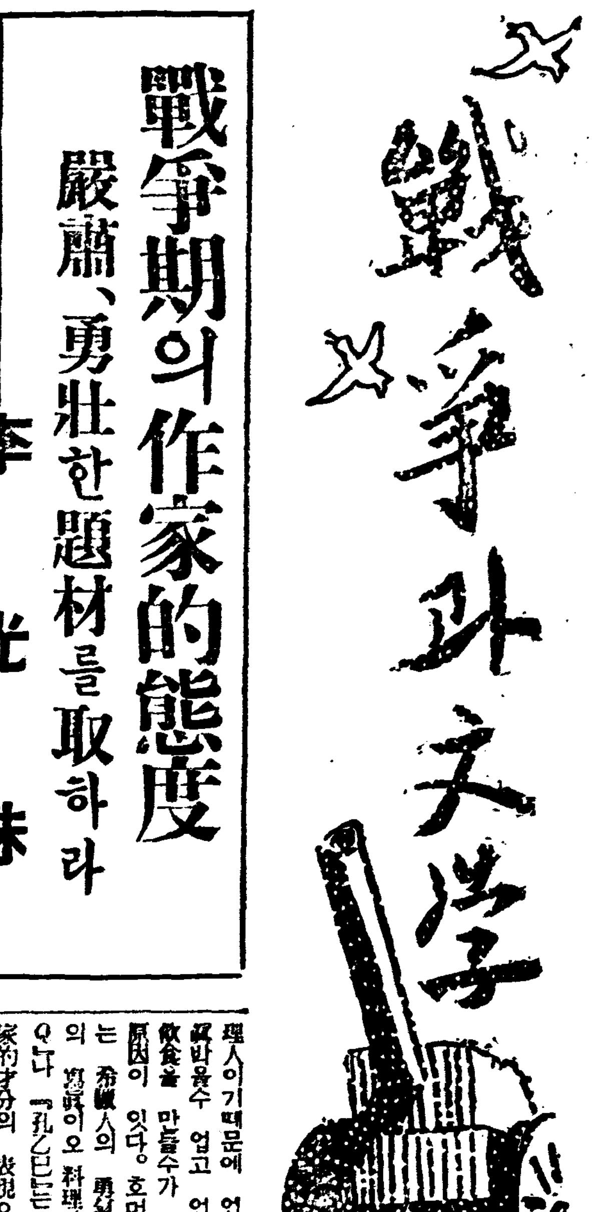
外金剛長箭港 鰮油肥製造業 金宗福

外金剛長箭港 鰮油肥製造業 朴萬年

外金剛長箭港 朝鮮料理 元山館

外金剛長箭港 鰮油肥製造業 裵孝相

外金剛長箭港 各種自轉車 리—야카販賣 金剛自轉車店 主 吳基洪




# 戰爭期의 作家的態度
## 嚴肅、勇壯한 題材를 取하라
### 李光洙

人生은 戰爭을 사랑한다。朝鮮에서 古來로 愛讀되던 이야기책들은 大部分이 戰爭이야기다。또호머의 일리아드나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나가戰爭을 題材로 한것임은 말할것도 업다。人類中에는 제가 戰場에나 가기를 실혀하는 사람도 相當히 만코 主義上으로

**戰爭** 을反對하는이도 업지안치마는 戰爭은 戀愛로더부러 人類가 가장 사랑하는테마임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업는 모양이다。生命을 鴻毛와가티 가비여이 여김--이 속에 우리의 興味가 잇는 모양이다。또 好戰氣分은 太陽의 黑點모양으로 週期性을 가진것가타서 民族이 大戰爭을 치르고난뒤에는 一時 厭戰氣分이濃厚하지마는 또 얼마를 지나면 다시 好戰氣分이 擡頭하는것이 마치 必然인듯하다。戰爭의慘禍에 對한 戰慄이 이저질만하면 다시 好戰氣分이 생기는모양이다。또는 戰爭後에 난靑年들은 戰爭氣分의 陶醉를 要求하는모양이다。마치 戀愛에 데인 어른은 戀愛를 시들하게 알뿐더러 도라혀 戀愛를 惡으로 알지마는 새로 나는 衆生은 如前히 戀愛를 憧憬하야서 衆生과 함께 戀愛가 끗이업거니와 戰爭도 이와가다서 限업시 새로 나는 衆生이 限업시 새 戰爭을 要求하는가보다。

戰爭이 惡인것은 말할것도업다。避할수잇는대로 避하여야할 것임은 말할것도 업다。人類에 戰爭이

**絶滅** 할 날이 오게하는 것은 人類全體의理想이오 努力이어야할것은 말할것도 업다。그러치마는 戰爭도 一種의 自然現象이어서 그러케 一朝一夕에 억지로 絶滅해질것은 아니다。人類中에는 佛陀나 耶蘇를 따라서 殺人의 絶對否認을主張하고 또 그 主張에서 사는 仁人志士가 업슬수업지마는 그러다고 갑작이 戰爭이업서진것은 아니다。衆生이 끗치업슴과 가티 現存한 人類가一大變革을 當하는 날까지는 戰爭의 絶滅은期하기어려울것이다

그러타하면 戰爭에 지는 사람보다는 이기는사람이 조흘것이다。못 싸호는 사람보다는잘 싸호는 사람이 人的價値가 놉흘 것이다。主義에잇어서 안 싸호는 것은 別問題겟지마는 勇氣가 업서서 못싸혼다든가、生命을 아껴서 못싸혼다든가、싸호는 재조가 不足한것 가튼것은 人的價値가 나즌것으로 羞恥일것이다。戰爭은 惡이지마는 戰爭에 勇氣가 잇는것은 善人이다。戰爭을 否認하야 죽기로써 이에 忠實한것은 더 조흔일이겟지마는 陣에 臨하야 勇이 업슴은 唾棄할 人生이다。

어는 民族이든지 道德的으로 低下한 時代에는 戰爭에지는것이다。道德的으로 高級인民衆아니고는 戰爭은 못되는것이니 이것은 所謂 士氣하는것 뿐이아니다。民衆이 義를 生命以上으로 아는 그러한 精神이 主가되는것이다。그럼으로 어떤 國民이 乾坤一擲의 戰爭을 敢行할만 하다 하면 그 國民은 足히 天國을 建設할만한 道德的資格을 가초앗다 할것이다。鈇鉞이 무서워서、戰場에 피에젓존 屍體가 되기가 무서워서 恐怖에 문이를 빼는 그런 國民은 人類에 무슨 貢獻을 할만한 能力을 缺한 쓰레기다。

『義보다 生命을 輕하게』라든지 『義는 무겁고 生命은 가볍다』든지 하는 精神이 업는사람은 남편으로도、친구로도、會社員으로도、아모데도 쓸데업는 動物이다。그러한 動物을 만히 包含한 國民은 衰頹와 恥辱의 一路로 淪落할수박게 업는것이다。

## 關張의義勇이 孔乙巳로退化

그러면 戰爭에 對한 文學의 關係는 어떠한가。어떤 民族의 文學은 結局 그 民族의 生活이라는 흙에 피는 꼿치다。그 土質만 꼿박게 꼿이 피지못하는 모양으로 그 民族以上의 文學(다른 文化도)도 發生하지못하는것이다。이것은 文學을 짓는 사람이 그 民族의 傳統과 環境의 影響을 밧는 一員인데도 原因이 잇지마는 그박게 文士란 一種의 寫眞師、또는 料理人이기때문에 업는 물건을 寫眞박을수 업고 업는 材料로는 飮食을 만들수가 업는것이데도 原因이 잇다。호머의 일리아드는 希臘人의 勇氣와 義氣와 힘의 寫眞이오 料理다。魯迅의阿Q나 『孔乙巳』는 魯迅의 小說家的才分의 表現으로는 榮光일는지 모르나 그 꼿을 피게한 흙인 中國을 爲하야서는 羞恥요 侮辱이다。今日의 中國에는 아킬레스가 업고 阿Q만이 잇는것이다。關羽、張飛는 阿Q와 孔乙巳로 退化해버린것이다。

朝鮮으로 말해도 階伯과 官昌郞이 잇슬 때에는 조흔 詩와 小說을 쓸수가 잇섯슬것이다。官昌郞이 勝戰하야 敵의首級을 주릉주릉 戰馬에달고 돌아올 때에 그 父母는죽어오라 하엿지 살아오라 하엿느냐고 그 아들을 내다 보지도 아니하다가 官昌郞의 말이 그主人의 首級을 달고 돌아온 때에 『오 인제 내 아들이다!』하고 내달아 피에 저즌 아들의 머리를 바다안는、이것이 戰爭文學의 材料다。

文學도 人生을 爲하야 잇는것이다。人生에 眞理와 義理와 勇氣와 慈悲에 對한 感動을 주는 文學은 價値잇는 文學이다、그와 反對로 人生에게 官能의 刺激과 病的인 모든 感動--그中에도 同胞에 對한 憎惡와 人生에 對한 嫌惡와 悲觀과 利己主義와 이런것을 激發하는 文學은 害毒잇는 文學이다。新鮮한 空氣와 日光과 물과、生生한 自然과 가튼 文學은 조흔文學이오 카페의 담뱃내 술시내 섞긴 空氣와 가튼 文學은 唾棄할 文學이다。

## 戰爭은 惡이나 勝戰은 善人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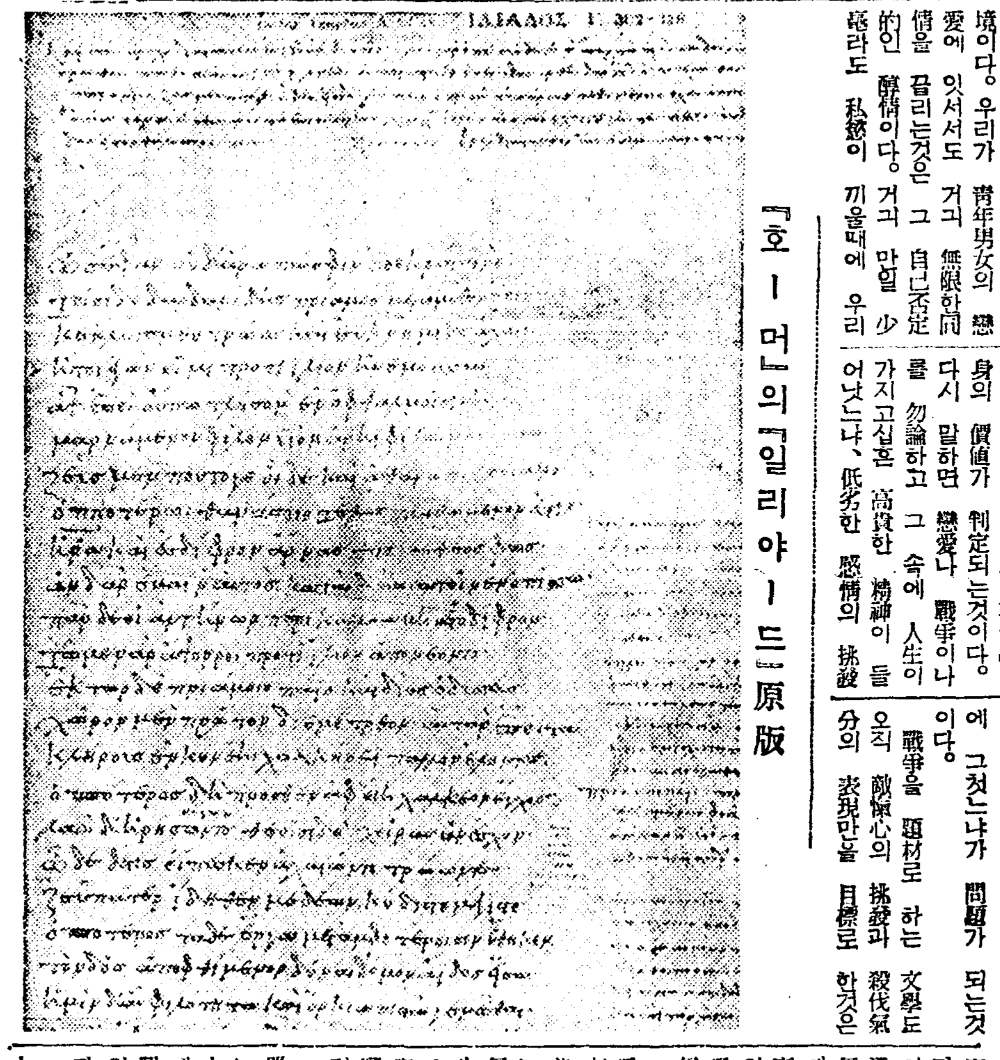
이런意味로보아서、잘보앗스나 잘못보앗스나는 別問題로 하고 愛國이라는 義를 爲하야 生命을 내어노코 피를 흘리는 戰場에 臨한 人間의 記錄은 私慾、官能慾을 떠나서 義의 一點에 醇化된 境界로 人生이저마다 經驗하고십흔 高貴한 心境이다。우리가 靑年男女의 戀愛에 잇서서도 거긔 無限한同情을 끌리는것은 그 自己否定的인 醇情이다。거긔 만일 少毫라도 私慾이 끼울때에 우리가 嫌惡를 不禁하는것은 가장 當然한 일이다。그럼으로 다가티 戀愛를 題材로 하엿다 하더라도 이러한 醇情을 焦點으로 그릴수도 잇고 肉慾的 官能的快味를 目標로 할수도 잇거니와 여긔서 그 作品의 作者의 人格이 暴露되고 그作品自身의 價値가 判定되는것이다。다시 말하면 戀愛나 戰爭이나를 勿論하고 그 속에 人生이 가지고십흔 高貴한 精神이 들어낫느냐、低劣한 感情의 挑發에 그첫느냐가 問題가 되는것이다。

戰爭을 題材로 하는 文學도 오직 敵愾心의 挑發과 殺伐氣分의 表現만을 目標로 한것은 官能慾을 目標로한 戀愛文學과 가티 低級한것으로서 唾棄할것이지마는 戰爭이라는 大事件을 通하야 人生의 義氣、人情、勇氣、理想等高貴한精神을 讀者에게 激發하는 戰爭 文學이라면 高貴한 文學이 될것이다。호머의 일리아드와 톨스토이의 戰爭과 平和가튼 이러한 文學의 好個標本이 되는것이다。

戰爭氣分이 濃厚한 오늘날戰爭氣分을 挑發하는 文學도 만히 생길것이오 지나간戰爭을讚美하는文學도 만히 생기겟지마는 大多數는 一時的인 民衆의 氣分에 投하는것이니 진실로人生의 寶典이 될만한 戰爭文學은 오직 人生의 本性과 및 그大理想을 把握한 大人格을 가진 藝術家의 손을 通하여서만 나올것이다。

朝鮮의 現狀으로보면 戰爭의 嚴肅하고 勇壯한것을 材料로하는 文學이 잇고십다고생각한다 人生은 戰爭이다。누구나 戰線에 臨한것과 가튼 死生關頭의 觀念과 嚴肅과 勇氣와 全心力의 緊張感을 가질 必要가 잇다。

戰爭은 惡이지마는 勝戰은眞人이라야 가지는것이다 (完)



『호-머』의『일리야-드』原版

## 新歲一家言
### 朴慶浩

『先生님 저이것 몬하겟습니다 암마해도 앙이될니다』

한學期동안이나 練習한 圓舞曲A短調가 아직도 되지를안어서 R은 純眞한 咸鏡道사투리로 斉望의 하소연을 하는것이다

『그래도 작구해보시오 웨안되기는 안되다구 그러시우 자-다시 한번해보시오』

그는 度數眼鏡을 樂譜에 방사대이고 다시치기를始作하얏다 이리하야 그는 언제이나 이圓舞曲을처다 그러나 決코 듯기조케 되지는 안엇다 그래서 맛날저마다

『나몬하겟소 암마해도 안되는기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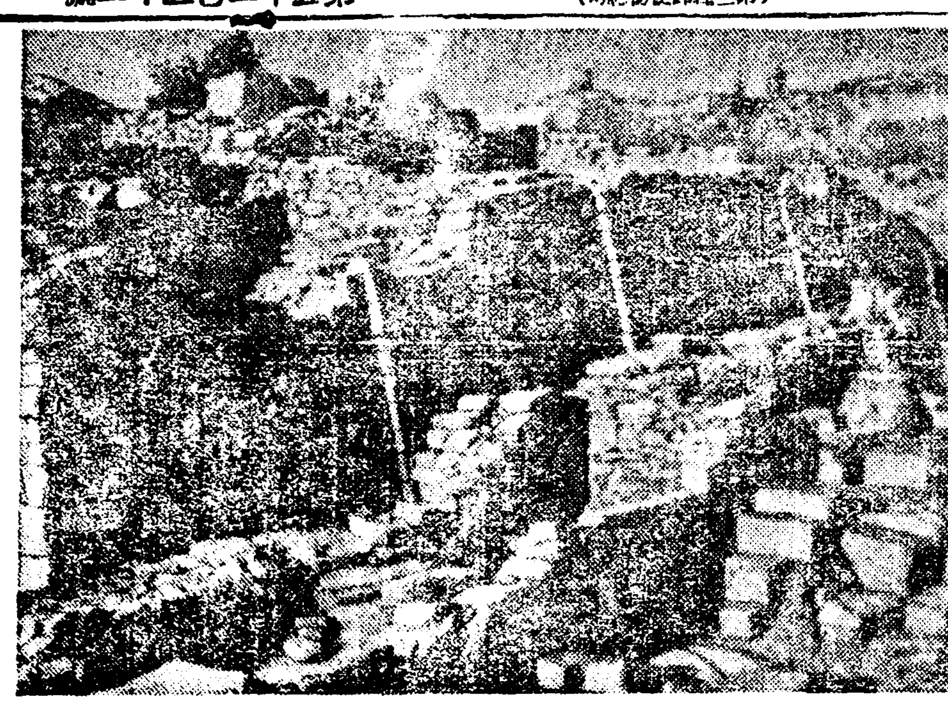
R은 이圓舞曲을 마치지 못한채 卒業한후 卽時 P學校音樂敎授로 招聘이 되엿다 그후三年이지난 엇던날 그를맛나 아직도 그A短調圓舞曲을 치는데 그냥 잘되지 안는다고 前보다 훨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던 R이

只今 이글을 쓰기 바로잇흘前 S病院 屍體室엽해서 초라한 木棺의 所有者가되여 한숨의 어린學生들을 아페세우고 葬禮式의 主人公이 되고만것이다 牧師가 가라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도라가나니-』

그리하야 그는 그圓舞曲을 마치지 못한대로 永遠의 沈默속으로 잠기고 말엇다

人生은 이끗업는 圓舞曲을 마치어 보겟다고 누구나 허더인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는사람은 매우드물다 나 亦是 畢하지도 못할 圓舞曲을 또한장 뒤이노라니 마당귀 적은나무에 달녀잇는 最後의 입사귀가 빙글빙글도라 흙입술 사이에 자최를 감추인다 (끗)



『트로아城址』

特殊論文

# 東京文壇의近貌
## 行動主義를中心삼아 ②
### 金文輯

日本의『푸로』文學을 最高度로 標識하는小林多喜二의 文學도그 가일쪽이 志賀直哉氏에게 師事햇드니만치 文學的『에스푸리』에 잇서서는 志賀氏를 承傳함에不過햇다기보다 事實은 그발미테 도이르지 못햇다는것을 우리는 虛心擔懷에게 認定해야할것이다 다만그에게는 志賀氏가 全然맛보지못한 새世上에의 熱望과『맑시즘』의구든 體系로의 武裝이 잇섯[illegible] 이武裝을 解除한다면 多喜二에서 무엇이 남을것인가?그리고 그熱望과 體系가

**客觀的으로**

**『文學』과『藝術』**

以上의價値가잇다고 假定한다하드래도 『文學』그自體와『藝術』그自體에는 何等의 價値도 업다는것은、『라스카라座(羅馬)』의 歌劇이 아무리 高貴할지라도사하라沙漠한복판에서 굶어죽게된 [illegible] 다는 것과가치、世人의 常識일것이요 藝術을 云爲하는 우리들의 基礎以前的ABC이다。

藝術的現實에잇어서 『푸로』文學은『맑시즘』의 奴隸였고 때로는 그忠實한 戀人이엇섯스나 文學上何等의、새로운『에스푸리』를 創出치 못햇다는 事實만은 감추울구멍이업슬것이다 (公式에사로잡힌 藝術的無智와無[illegible]能의 所以인 [illegible]

[illegible] 시즘專制治下에서 救出하는同時에 이時代에 相應한 새로운 『에스푸리』를 添加함으로서 『푸로』文學以後의 新文學을 建設하자!함이 行動主義文學의 理論的根據요、그는 다만후리네『時代的智識階級的作家』만이 可能한 途程이다 하는데이派의 自負가 잇는것이다 要컨대 그들은『뿌르』文學의 基地에서 갑싸고(低廉)도合理的인 樣式의設計로『푸로』文學의『빠라크』를지어 옹색하나마 自由로운 새살림을 해보려는것이다

그리면워그들이 樹林에 자인 『고식』建築의神聖美와『또-리안』의華麗한宮殿、邸宅들을다버리고

**騷音에잠긴**

**市街地에서**

文化住宅으로서 滿足하라는가?나는 그들의心態를 쉽게시리理解할수잇다。卽 自然科學의洗禮를 바든 그들近代人에게는 唯心論보다도 唯物論의哲學이 훨신더 감각하게 理解될것이고、對象의 [illegible] 그辨證法에잇서 [illegible] 反命題는命題보다 勿論 [illegible] 鮮할더이니 觀念的인 在來藝術의『이데-』보다는 唯物的인 그의反命題--『푸로』文學의『이데오로기-』에 더魅力을 늣길것은 自明의理路일것이니、好意的으로 誇張해서 이를表現한다면 兩者(뿌르、푸로)의 合命題인 行動主義文學이 前者를妊떠르지안는 어미로삼고 風采사나우나마 後者를 妊떠르는 애비 乃至혹은 애비의 位牌로모시어노코、옹색한 새살림의『테-프』를 荒海한가온데서 끄러 노앗다는것은 自然이라기보다 恰似끗그것인것이다。여기서 恰似한그들家庭의 THE METHODOF AGREEMENT를 偵察해내기前에 原産地 佛蘭西의

**社會的現狀을**

**그文壇에서**

描出함으로서 이家庭(行動主義文學)의 性格과 遺傳性을把握하는同時에 그의現象的必然性即 巴里文壇에서의 文學史的當爲性을指示해두기로한다。紙面關係도 잇지마는 그는다음의 點描的羅列로서充分하다。

羅津

咸北洛山港 鑛業 共榮社 金昌和 田竹松 申雲澤 金龍澤

羅津邑本町二丁目 米穀貿易 大洋商會 金京俊

檜津港 學海普通學校訓導 朴昌完 私立學海學校長 尹泳周 敎員 姜秉熙

羅津港春日町 各科分立 泰安醫院 外科産婦人科 李泰根 內科小兒科 李洪得 同分院(間依洞一〇七) 電話五六八番

合資會社 羅津廉賣市場 代表社員 金京俊 吉原豊 木村清 金聖鉉 前田貞治 金淵學 金三得

羅津邑寶來町 土木請負業 李奎信

羅津邑市場通 穀物貿易 金元商會羅津支店 金元運送部 電話三二六番

羅津邑 土木請負業 朴小出

羅津邑新海洞 孫元浩

咸北羅津 國際運輸株式會社羅津支店

羅津港間依洞 羅津水産物委託賣販組合

羅津邑本町 各國時計眼鏡 蓄音器레코-드 販賣修繕 三光堂時計店

羅津邑港町 邑會議員 辛鍾昇

羅津邑産町 美術講習所長 金斗衡

羅津邑本町二丁目 靑果委託販賣 和洋食料雜貨 富士屋

羅津邑本町 燒酒醸造 李永盛 電話六〇六番

羅津 合名會社 貿易商 三榮商會 電話四五五番

羅津邑 商工會議員 申銀奉

羅津邑 道議員 邑議員 金珙宅

羅進學院

羅津邑間津 金斗成

咸北羅津港本町 陶磁器諸雜貨 金物一式乾物 硝子器洋品類 協信會商

羅津酒造株式會社 社員一同 電話三二四番

羅津邑岡峰里 申敬天

羅津邑

羅津邑長 田口禎憙

羅津邑港町 金奎燮 電話四八三

羅津港町二三 光明洋服店

羅津邑明湖洞 慶興郡學校評議員 南致煥

貿易商 株式會社 羅津東興號

羅津水産物委託販賣組合 理事 金哲

羅津邑港町 羅津醫院 院長 尹惠老 電話六一四番

羅津金曜會 朝鮮銀行羅津支店 朝鮮殖産銀行羅津支店 國際運輸株式會社羅津支店

羅津邑大阪町一六 第一生命相互會社 社員 金昌順

羅津邑羅津洞 海洋學院 院長 金大甲

羅津邑大阪町 朝鮮料理 長春館

羅津邑本町二丁目 キング寫眞館 夜間電氣撮影 主 金道鎭

羅津邑銀座通 金銀細工 金光堂 主 韓百玩

羅津警察署長 植田柳助

咸北洛山港 金化植

咸北洛山港 高性協

羅津邑市場 再製 德元商店

羅津邑本町二丁目 司法書士 趙弘國

羅津邑間依洞 鄭信欽

羅津邑仲町 金奉祚

羅津郵便局長 大島鐵造

咸北洛山港 松京旅館 主 安鋼國

咸北洛山港 大北商會 主 金仁善

咸北洛山港 尹時圭

咸北洛山港 金昌俊

咸北洛山港 黃泰元

檜津港 金基千

咸北梨津港 明和醫院 金衡雨

咸北洛山港新礦山 崔應七

羅津邑本町 商工會副會長 金泰鉉

羅津紹介所 人事紹介業 李德洙

羅津邑港町 洪壽南

咸北洛山港 田丙連

豊海面長

咸北梨津港 商店

咸北梨津港 漁業組合 理事

咸北洛山新礦山

咸北洛山新礦山

# 鄕歌의 解讀에 就하여

## 特히 願往生歌를 中心으로

(三)

崇實專門敎授　梁柱東

上述한바와가티 肝要한 遺事의 原文을 誤讀하엿스므로、一步千里로 今篇의 解釋이 모다 틀려진것은 不得已한일이다。氏의 解讀에 依하면、이一篇은廣德의 妻가 嚴莊을 諫하야、月下에 西方으로 가서 無量壽佛前에 懺悔하여 四十八大願을 成就하라고 노래한것이 된다。생각건댄、氏의 誤解、或은 그릇된 先入見의 動機는、遺事本文中 廣德의妻가 亡夫의 行狀을 追叙하는 一段에「明月入戶、時乘其光」云云의 말이잇고、嚴莊을 諫한말에「今師之觀、可云東矣、西則未可知也」云云이 잇스므로、本歌中의 月、西方等字와 聯想하여 大意를 速斷한 때문이다。그러나 그것은 單純한

【偶合】에 不過한것이다。左右間 氏는 그릇된 先入見때문에 原歌中『惱叱古音』只에『鄕言云報言也』란 註가 잇슴에도 不拘하고、『惱叱』二字의 解讀에 窮하야 牽强히『늬웃기이』(悔)라고 읽엇다。氏도『이點은 多少疑問이라』(二○三頁)하면서、『報言』이 傳言以外의 아모런 다른뜻이 업슴에도 不拘하고、오히려『報言이란 늬웃차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라』(二○四頁)고 하엿다。또 氏의 解讀에 依하면 第八句의『그릴사람』이 누구인지 不明하고、더구나 末句를 氏는 廣德의 妻가 嚴莊에게 向하야『自己몸은 도라볼 必要가 업스나(二○六頁)、四十八大願을 成就하사이다』말한것으로 解釋하엿스나、前半句의 意味가 曖昧하고、더구나 四十八大願은 阿彌陀의 本願이니(下節詳說)、嚴莊의 能히 成就할바 아니다。以下 나의 試讀을 적으려한다。

○

本歌는 廣德의 妻가 平素 自己의 信仰을 달에게 붓처(寄) 노래한것이니、由來 노래에 잇서서 自己의 所懷를 或은 달、或은 기러기、혹은 꼿에게 부처서 노래하는것은 朝鮮詩歌謠에 慣用되는 形式이다。例컨댄「달아 달아」「기럭아 기럭아」等으로 시작하는것은 現今의 童·民謠에도 매우 普通인 傳說的 形式이다。이 一篇과가튼것은 우리에게는 直感的으로 들어오는 무엇이 잇다。

(1) 月下伊底亦
달하、이제

月은 돌。『下』는 音대로『하』로 읽는다(小倉氏는 本句를『달해밀헤라』읽엇다)鄕歌中의『下』字의

【用例】 이는 무릇 三種이 잇다。一은 前章에 말한 處容歌中의『吾下』『誰支下』이니『해』로 읽을것이오、다음은 疑問文의 結尾에 添用되는『有叱下呂』(隨喜功德歌)『爲賜下里』(請佛住世歌)『作乎下是』(普皆廻向歌)따위오、第三은 即 本句의 用例와 다음 一句의 그것이다。

佛道向隱心下 (常隨佛學歌)
他道不冬鋪良行齊

이것들은 前記 下呂·下里·下是와가티 動詞아래 붓지안코、『月下』『心下』이는것이나 名詞에 使用되엿다。疑心업시 呼格의助辭『하』이다。

呼格의 助辭로서의『하』는 李朝初期의 文獻에서는 흔히 尊稱에 쓰여저서 卑稱의『아』『야』와 區別되여 잇스니 이點은 前間氏가 진작부터 指摘한바이다(同氏『龍歌故語箋』一四四頁)『하』의 用例를 보건댄

님금하、아ᄅᆞ쇼셔 (龍歌一二五)
世尊하 (圓覺·金剛諸經)
世尊下(하)月司令熱公(이며) (佛敎遺經·前間氏所引)
帝河(河)予何言호리잇고 (書諺·益稷)
龜何龜何。首其現也、若不現也燔灼而喫也。(遺事卷二·駕洛記)
아소 님하、도람드르샤 괴오쇼셔(樂學軌範『三眞勺』) 等은

【呼格】 尊稱의『하』가 絶對로 尊稱에만 使用되엿다고는 얼는 斷言하기 어렵다。압헤 引한『心下』에서『하』는 반듯이 尊稱이라고할수는 업고、

몸하、호올로 녈셔 (樂學軌範『動動』)

이例에 잇서서도 또한 그러하다。그것은 何如間、『月下』는『달아』의 古語『달하』이니、

ᄃᆞᆯ하、노피곰 도다샤、머리곰 비취오시라 (同上·井邑詞)

의例는 本歌의 冒頭와 全혀同一한 形式이다。

『亦』字는 吏讀文의 主格으로만히 使用되엿스니、淨兜寺 造塔記의『光賢亦』『右長亦』따위는 다『여』로 읽는다 (主格助辭『여』는 지금은 廢語이나、平安道方言의『네레』『내레』等은 그遺痕인듯하다)『伊底亦』三字는 合하야『이뎨』로 읽을것이니、뎌·저는 예로부터 相通하는것이므로、『이제』는『原義는『此時』)가 된다。字會는『今』을『엳』이라 訓하야 ㄷ音을 包含하엿다。以上으로 本句는『ᄃᆞᆯ하、이제』가 된다。

(2) 西方念丁去賜里遣
西方꺼정가샤리고

西의 古音은 세(佛典諺解에 모다『셰』라함)『念丁』이란 말은이곳以外에 오즉

同年春秋冬念丁、今冬石練已畢 (淨兜寺造塔記)

一個所가 잇슬뿐인데、前間氏는 이것을未詳이라하엿고(上揭氏의論文『若木造塔記』)、鮎貝氏는 그의著『雜考』第六輯所收·淨兜寺造塔記(九五葉以下)에서 或은 念한다는 뜻이 아닌가、또 혹은『行』의 古語가『녀』(行)은『經過』의뜻의古語가 아닌가하는等

【杜撰】을이 極한 解說을 試하엿스며 小倉氏는 아모 根據도 업시『念丁』을『으로』라읽고『……을 經過하야』『……에』의 義라고 하엿다 (『鄕歌及吏讀硏究』二○三頁) 나는『念丁』을『꺼정』(ᄭᆞ장)이라 읽는다。『ᄭᆞ장』이란말은『ᄭᆞ지』의 同義語인데、

釋迦牟尼佛로서 刻那尸棄佛ㅅ마장 七萬五千佛을 맛나ᅀᆞᄫᆞ시니 (月印·第二·九葉)
燃燈佛로서 毗婆尸佛ㅅ마장 (同上·第二·十葉)
無明緣行으로 老死憂悲苦惱ㅅ마장ᄋᆞᆫ 苦集諦오、無明滅로셔 苦惱滅ㅅ마장ᄋᆞᆫ (同上·第二·廿二之二葉)
뵐마장 ᄀᆞᄅᆞᆷ하ᄂᆞᆯ 向하노라 (恣意向江天) (杜詩卷十·十三)

等의 諸例가잇스니、끗(端)·ᄭᆞ지·ᄭᆞ장等은 모다 가튼 語原이다。『極』『最』의 訓이『마장』이니、前揭『뵐마장』은 即極意·恣意의義이다。이에依하야『ᄭᆞ장』은本是極限 (끗)의 뜻으로부터『ᄭᆞ지』의義로 轉한것을 알것이다。『꺼정』은『ᄭᆞ장』이 母音調和에 依하야 變化한 同一語이니 至今도 俗語에는『서울까지』를『서울까장』『서울꺼정』이라고 한다。그런데『念丁』은嚴密히말하자면『ᄭᆞ장』이 아니라『꺼정』이니、대개『念』의 俗訓이『거점』이오『丁』의 이『뎡』(丁)[illegible]의 借字가되것이다。此字의 借訓式吏讀法은 朝鮮語의 原音을 漢字로 音借할수업는때 不得已使用하는것이니、곳 이境遇에는『꺼』에該當한

【音表】 漢字가 困難하므로 訓에 依하야『念』字를 借來한것이다。『가샤리고』는 小倉氏의 解讀과 및 註釋에 同意見이다。一見 現代文法과는 맛지안는 特異한 語法이나、尊稱助動詞『샤』가 添加되엿슬뿐이오、根本組成은『녀리니』와 類似한것이며、古語에는『녀리며』가 잇섯든것이다。

末展夜誠ᄒᆞ리며 (精誠을 펴디 믈ᄒᆞ리며) (圓覺經上一之二·九四葉)

(3) 無量壽佛前乃
無量壽佛前에

小倉氏는『佛前乃』를『佛前에』라 읽엇다。意味는同一하나、나는『前』字를 音讀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乃』字에 ㄴ音이 잇는까닭이다。이것은 一見 아모것도 아닌것갈으나、實은 어떤 漢字의 音讀과 訓讀과는 音數律에 大差에 생기므로 鄕歌의 韻律的研究에서 等閑視할수업는 問題이다。本句는 아모래도 相關이 업겟스나、例컨댄

衆生界盡我懺悔
來際水良造物捨齊 (懺悔業障歌落句)

의 諺法에잇서서는 問題가 된다。氏는 訓讀에置重하여

『衆生界를 다ᄋᆞ아 내懺悔　4
3·3　十音
來際길에 造物(올)버리제　4
5(6)　九音

이라고 새김을 색여 읽엇스나 나는 音數律의 必然에 依하야 그原來의 諺法이

衆生界盡我懺悔　4·3　七音
來際길이 造物捨齊　4·4　八音

인것을 確信한다。意味는 毋論 갈지마는、詩歌의 形式과 關聯하여서 考究할때、音讀·訓讀은

【綿密】한 關心을 要하는것이오、또 當時漢文의 音讀이 어느程度로 日常에 行하여젓든지를 알만한 [illegible]나。上記句는 그것이 四十華嚴에 늘 나오는 文句이므로 作者가 四四調에 마츠어그대로 노래한것이다。

(4)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닐(어)곰다가 ᄉᆞᆲ고샤셔

惱叱古音미테는 原歌에『鄕言云報言也』라는 原註가 挿入되여잇다。『惱叱古音』이 小倉氏의 解讀하여『늬웃기이』(悔、이意未詳)가 아닌것은 이미 說破하엿다。『惱叱』는 反切에 依하야『닐』이 되니 곳『니르』(告·言·報言)의 借字이다。『古音』은 動詞·副詞에 語調(어)를 爲하야 흔히 添付되는『곰』이다。

ᄃᆞᆯ하、노피곰 도다샤、머리곰 비취오시라 (前揭·井邑詞)
여히므론 질삼뵈 ᄇᆞ리시고 괴시란ᄃᆡ 우러곰 좃니노이다 (樂章歌詞『西京別曲』)
즈믄ᄒᆡ를 외오곰 녀신ᄃᆞᆯ 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 (同上)
고우닐 스싀옴 녈셔 (옴은『곰』의 音便) (樂學軌範『動動』)

上例는 모조리 歌謠에서뿐이나 其他 시러곰·히여곰·써곰·적곰·等 枚擧할必要도업다。動詞에는 그 連用形미테『곰』을 부치는법이므로 本句는 現代語로『니러곰』이 되나、古語로는『닐러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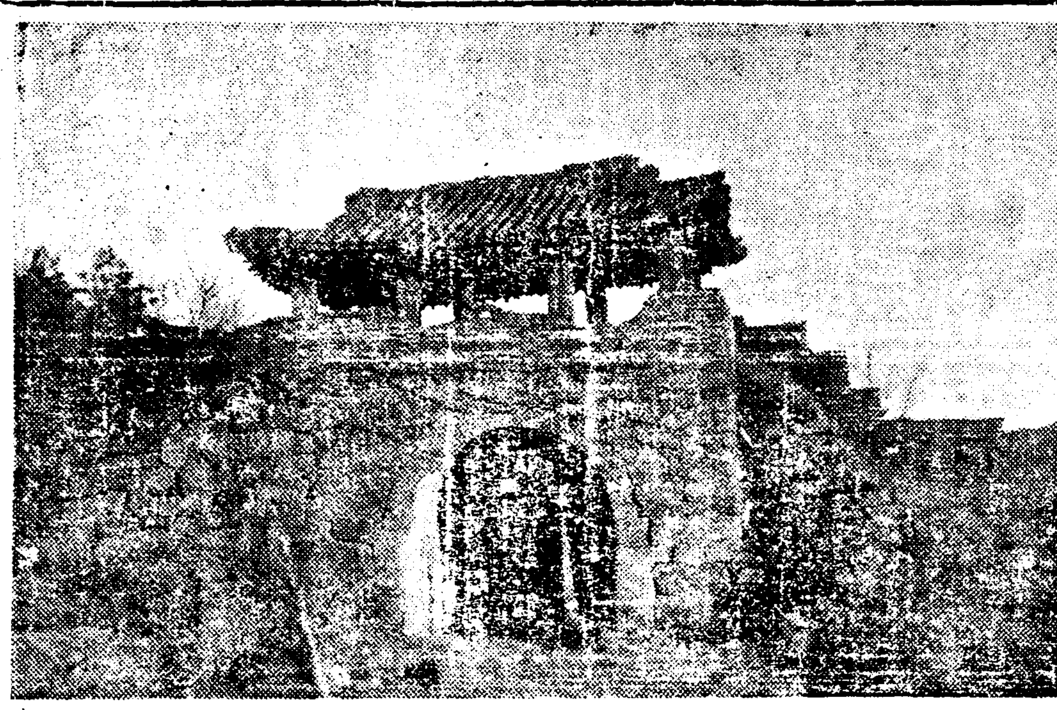
『닐어곰다가 ᄉᆞᆲ고샤셔』의『다가』의 意味는 이를테면『가저다가 바치라』와 가티 習通『ᄒᆞ다가』와는 조곰다른 用法이다。即 本句의『다가』는 動詞의連用形에 붓고、習通『다가』는

【基本】 形에 붓는것이 相異한데、그語原은 아마 가를것이다。

以上까지는 厥女가 달에게 붓처 노래하되、『달아 이제 西方까지 가서 無量壽佛前에 말슴좀 傳하여주소서』한것이다。

正誤 第一回紹介語中
●『三國史記等古書에 남은 鄕歌云云』은 三國遺事의 誤植
昭和九年十二月發行 靑丘學叢第十九號에 發表는 昭和十年八月發刊 云云의 誤
前回分中『堤』는 朴堤上『毛末』等을 論한끄테『新音에 春園이 異次頓傳에서……云云……異次頓을『이차돈』이라 읽지안흠은 어인까닭인가』한 一節이잇는데『新音』은『인가』까지 全文은 插弧안에들어가고 末尾에『靜夜時追讀·梁五字를 揷入함

星齋試筆



# 丙子를通해본朝鮮

## 滿洲人의再次大擧入寇

②

文一平

朝鮮人이 三國時代에 잇서서 上述한바와가티 隋唐對峙의 局은 高句麗의 滅亡과 함께 新羅의 半島統一로 끗막음을 햇거니와 新羅는 小成에 自足하야 다시 進取의 雄圖를 가지지 못햇다 高麗가 일어남에미처 비로소 北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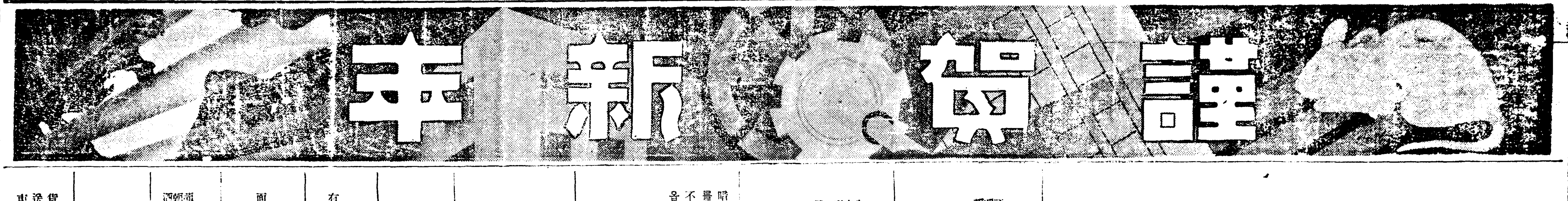
經略 이 고개를 들게 되엇스나 때는 마침 滿蒙諸族이 强盛하야 번갈아 遼、金、元의 帝國을 建設하고 天下에 號令하엿슴으로 北進하는 高麗의 步武가 鴨綠江을 넘지못한것도 이때문이다 그리다가 그末葉에 이르러 元의 衰微를 타서 李太祖를 시켜 北伐을 꾀하더니 李太祖ㅣ 出征途中에서 回軍하야 高麗ㅣ朝를 거꾸러치고 李朝를 創立하엿다 이러케北伐을 反對하고 일어난李朝는 武를 뉘고 文을 닥가 對外鼓吹가튼것은 꿈결에도 생각지 안헛다 그리하야 나라에는 武備가 업고 사람은 文弱에 흘러나 新羅나 高麗에서 보든 녯날 氣魄을 李朝에서는 다시 볼수 업게되엿다 더구나 中葉以後에는 안으로 治者級에 士禍와

黨爭 이 끈키지 아니하고 박그로 壬辰과 丙子의 國難이 連겁허 襲來하야 朝鮮人이 空前의 受難期에 들게 되엿슴이라 自衛力이업고 治者級의 不和까지 생긴때에 이가티南北으로 國難이 오게되니 그結果는뭇지 안코 알것이다、日本軍이 釜山에 上陸한지 二十日도 못되어 京城을 占領하고 滿洲軍이 鴨綠江을 건너선지 七日도 못되어 京城을直擣하든 그네들의 軍事行動이 아주 神速햇든것도 事實이지 마는 한편으로는 朝鮮의 防備가 極히 空虛햇든 때문이다 特히 丙子亂으로 말하면 한번 싸움다운 싸움도 못해보고 君臣이 그만 敵의軍門압헤 무릎을 꿀엇스니 이것이 勿論 千古遺恨의뒤를 이여 國力이 凋殘해진 關係도 잇겟스나 또한 國論이 統一치못한데 基因한바 적지아니한것을 알어야 하겟다 敵軍이 侵入하기前에

和戰 兩論이 갈린것은 오히려 無怪하나 敵軍이 一朝長驅하야 南漢孤城이 이미 重圍에 빠진때에 잇서서 부질업시 和戰의口爭으로 日課를 삼앗스니 어찌 이로써 士氣를 鼓舞시켜 爲國盡忠케할수 잇스랴 이런意味에서 當日南漢의 恥는 非但이 自取한것이라하겟다 그러나 事實에 나가보면 滿洲軍과 對抗할만한 何等의實力이 잇는것이 아니다 實力이 업시 애초부터 排戰한것이 잘못이니 이는 大言壯談하든 學士大夫들이 그責을 免할수 업거니와 仁祖反正뒤에 벗서氣勢를 엇게된排滿熱이 마침내 國際平和를 破綻에까지 誘致한것이다 對明關係와 對毛文龍問題와 大勢上으로보아 早晩入寇가 잇슬것은거의 旣定的事實일는지 모르나二次씩이나 大擧入寇를 보게된것은 仁祖朝廷의 外交上失敗에돌리지 안흘수 업다 幸히當時滿洲人의 大望이 中原大陸에 잇섯슴으로 朝鮮이 겨우宗社의保存을 어덧스나

城下 盟이 有史以來 始初이니만큼『호다시』로 하여금 大名을 일우게하엿다 朝鮮에서 凱旋하게된 그는 後顧의 念가업게되여 安心하고서 다시 그全力을對明經略에 傾注하엿슴으로 얼마아니되어 順治의入關을보게 되엇지만 어쨋든지 高麗로부터李案이든 女眞關係가 이때에와서 마침내 彼勝我敗의 形式으로 解決을 짓고 말은것은 注目할일이다 戰後에도 兩國關係는 決코 平順하지 못햇스며 排滿思想이 一轉하야 孝宗의 北伐計畫이 되에 미처人材를 雇用하며 財政을 整理하며 軍備를 刷新하야 銳意하엿든 一國士氣를 振作케하엿다 그러나 그結果는 事大主義를 일층더 키우는데 지내지 못햇다。

(寫眞은 廣州南漢山城東門)





南市

京義線南市驛前
精米業各商會
平山精米所
安昌精米所
三益商會
協成商會
協同商會
義成商會
營昌商會
松南商會
新成組合
三合支店
三光商會

京義線南市驛前
高粱酒·백알酒·朝鮮燒酒
釀造業東成海
主 張大潤
醪務主任 趙慧根
文部係 田春三
商務酒保 張文瑞

內科 小兒科 皮膚科 性病科 一般外科 健康相談
南市醫院
院長 許益元
鄭龍乾
李宗賢

新龍電氣商會
暗黑한農村을光明하게하는新發明專賣特許光明式蓄電氣를每月四五六十錢이면켤수잇는好消息을듯는여러분은百聞이不如一見이라一次式本商會에來臨하시여서求景이라도하여주옵시고新年에新福을만이바드시옵기를祝賀하나이다
主 崔學洛
主 李昇顯

泗川

泗川郡廳

泗川郡農會
電話十二番

中樞院參議
崔演國

泗川郡棲洞面培春里
有志 金文起

泗川郡正東面大谷里
面協議員 崔洙卿

泗川郡泗川面龍塘里
龍潭學院長
朝鮮日報社泗川支局顧問
崔昞敏

永和興業株式會社

泗川農場

慶南泗川
貨物運送
賃貸車營業
秦貨物自動車部
電話四番

京義線南市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代行營業所

京義線南市驛前
外上面職員一同

京義線南市驛前
南市農業倉庫

南市金融組合
職員一同

平北龍川郡外下面南市驛洞
綿絲·메리야스·食料·雜貨·고무靴·藥
順信商店
黃允瓊

南市驛前
各種時計 修繕販賣 及蓄音機 貴金屬
光城時計店
主 梁世鳳

京義線南市驛前
東亞日報社南市支局
支局長 李光世
總務 李光喆
記者 白善文

京義線南市驛前
朝鮮日報社南市支局
支局長 張奎泰

京義線南市驛前
龍川醫院
醫師 李永根

南市東光醫院
金尙應

000055

大成麵店
李重根

正東面事務所
面長 崔道卿
書記 崔部鄕
同 崔洛瞻
同 孫尙殷
同 李宗龍
同 金容文
同 朴台坤
技手 宋在基

泗川面事務所
面長 李泰辰

棲洞面事務所
面長 李尙實

龍見面事務所
面長 申健
外職員一同

喪中欠禮
申英址
泗川郡龍見面琴閑里

泗川郡龍見面潘井里
泗川郡學校評議員 申甲熙

泗川郡龍見面船津里
面協議員 卞鶴燮

慶南晋州邑西鳳町九七番
割引勸業債券
復興貯蓄債券
三菱商會
主任 金栽學
泗川外務社員一同

泗川郡正東面古邑里
有志 裵鍾根

喪中欠禮
面協議員 李池英
泗川郡泗南面花田里

泗川郡公立學校長會

泗川酒造株式會社
支配人 祖演浩
電話七番

慶尙南道
泗川警察署職員一同

泗川邑內
大同印刷所
泗川郡學校評議員 金夢起

泗川郡正東面古邑里
神野農場
金恒吉

泗川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泗川水利組合
理事 信達谷淸造
電話二九番

泗川郡泗川面貞義洞
有志 金達五

泗川郡泗川面壇田里
酒造場 張安碩

慶南泗川邑內
酒類料理 海東館
主 金海東

泗川穀物檢査所
檜原凡夫

慶南泗川郡泗川
アサヒ自動車合資會社
電話八番

泗川邑
米穀肥料
共榮精米所
姜大福
小金丸

內科 外科 小兒科 產婦人科 特設
順榮醫院
醫師 黃順柱
產婆 黃榮愛

更生堂藥房 藥種商
千代田生命保險相互會社
泗川駐在社員
朴鏞河

泗川郡棲洞面中宣浦
慶南運輸組
黃宅祚

泗川郡泗川面斗良里
面協議員 柳承萬

喪中欠禮
面協議員 鄭甲植
泗川面官仁洞

泗川灣漁業組合
理事 姜再德
書記 姜柄銘

泗川郡龍見面松皇里
面協議員 趙準植

泗川郡[illegible]
面協議員 李[illegible]

慶南泗川郡泗川
泗川農民共[illegible]

泗南公立普
職員

泗川郡泗南面芳亭里
面協議員 吳尙

泗川郡正東面鶴村里
面協議員 鄭允

泗川郡正東面獐山里
面協議員 朴震根

泗川郡泗川面琴谷里
面協議員 張騏植

泗川郡龍見面石溪里
有志 宋三用

泗川
朴東善

慶南泗川
朴東植

泗川面貞義洞
司法書士 李萬基

泗川邑
綿花共同販賣所
徐相朝

泗川金融組合
理事 小川龜一

慶南泗川
旅館料理 一花家
電話一七番

瓦斯電氣株式會社
泗川出張所職員一同

株式會社 晋州眞島商店
泗川出張所
鄭晋奎

泗川郡棲洞面
面協議員 中村長八

泗川郡棲洞面舊湖里
棲洞事業期成會長 金星煥

泗川郡棲洞面舊湖里
面協議員 徐禹珍

泗川郡棲洞面吉坪里
學務委員 金道禧

泗川邑內
千章元藥房

泗川郡龍見面朱文里
酒造場 李基鉉

龍見公立普通學校
訓導 柳道仙

泗川郡龍見面新村里
面協議員 李桂洪

龍見面松旨里
面協議員 起性浩

泗川郡泗南面
面長 具光祖

泗川郡正東面獐山里
郡學校評議員 金東起

曹漢鎬

泗川面貞義洞
許再俊

泗川邑內
朝鮮旅館

千性泰精米所
電話三二番

泗川郡棲洞面舊湖里
有志 文道範

# 한地方 한問題

## 敎育施設篇

### 現狀에 滿足치 말고 高普設立에 邁進하라

#### 中學當局과 爲政當局에서는 特殊事情考慮要望

**馬山** 馬山에잇서 年來로 主要懸案으로 되여오든 中等程度學校의 設置問題는今年에 이르러 드듸어 歸結을지엇는데 이 歸趨이라는것 이實로 注目을 끄으는것이다。

馬山은 三萬의 人口를 包擁하고 잇는 當當한 府로서 겨우 四百名의 收容力밧게 업는 高校一個外에 一個 中等學校를 가지고잇지못햇다하얏은 馬山의 羞恥로서 더욱 總人口의 五分之四를 차지한 朝鮮人 市民의 그것은 말할것도업는것이엇다。

年年히 近二百名의 公私立普校卒業生、百餘名의 小學校出身者는 거위 外地로 中學校門을 뚜다리는 實로 말못할 形便이엇다。

이러든것이 數年前 朝鮮人側有志數人의 熱誠으로 馬山高等普通學校設立期成會가 創設되어 基本金을 收集하는一方 官邊方面으로 猛活動을하여 基金을 募集하여 其豫定額에 近近 達하여가든 昨年에 이르러 日本內地人側의 中學期成運動이 同時에 이러나자 高普期成會로서는 十萬圓도를 모하 完全한 民間校를 設立든지不然이면 中學期成會側과 合流치아니치못할 形勢에 이르고말은것이다。府當局의 形便上으로보아 馬山府에 中學과高普를 同時에 設立할것갓지안코、또、高普期成會가 獨自的으로 邁進하라니 到底히 經濟上成算이 이를 許諾치안헛다。

그리하야 昨年에 日本內地側의 中學期成會와 朝鮮人側의高普期成會當事者가 會合을 한結果 諸般事情으로 不得已 方今 高等女學校에서 實施하고잇는것과갓흔 共學의 中學一校를 設立하는대 兩運動을 合流키로決定한것이다。

勿論 共學制의 中等學校란 現在 喧騷히 社會問題로되고잇서 是非가 不少할것이다。그러나貯力업는 朝鮮人側으로서 別方策이 업는것으로 이러한 不自然한 方法으로라도 左右間 中學校를 馬山에 둠으로 爲先 急務를 解決하자는 것이 妥合의 精神이엇다。

그리하야 該會合에서 決定된 事項이란 첫재로 所要 基金中 各責任額調達에 全力을 다하게 高普期成會側에서도 實行할 責任을 젓다한다。그리하야 將形的이나마 問題는 解決을보앗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서 엇지 滿足하리요 子弟들의 敎育의完全을 爲하야 우리馬山府民은 高普期成會의 事業을 一步前進하야 當初의目的인 高普校設立實現에까지 邁進할 覺悟와 熱誠을 가저야할것이다 끗흐로 爲政當局과 中學當局者에 一言코저한다 그것은 昨年合同會合에서 高普期成會側이 提出한要求條件인 問題이다 全學生의半數와 先生의半數를 朝鮮人으로 充當해달나는 것이다 勿論 이 要求는 敎育의 機會均等을 要求하는것이오 馬山社會의 實情事情에 빗추어 더事實에 適應한 卽人口의比率에依하여야 할것이다 다른하나는 朝鮮人學生에 對한 敎育上의 特殊事情을 考慮를 해주어야할것이라고 밋는다。

現在 馬山高等女學校에서도보는바와가튼 朝鮮人學生의 얼청나게나즌 比率과 特殊事情無視는 到底히 甘受할때아니다 그럼으로 朝鮮人學生에게는、特別히 朝鮮語와漢文時間等을適當히 주기를 要望치 안흘수업다。

高普期成會當事者는 勿論、馬山府民은、各人이 一致하야 조흔 前例를마들기 爲하야 곡前記要望을貫徹토록 努力해야할것이다 爲先이것이 우리朝鮮人社會가 全力을 傾注하야 解決해야할重要課題의 한아일가한다。(馬山支局一記者)

### 一步더前進하야 商校를完成하라

#### 今年中의當面問題

**城津** 城津은 어느모로 보던지 中等敎育機關 한둘은 꼭잇서야 될데다더욱 來、地方人士는 皆必稱『中等程度의 學校하나는 꼭잇서야 될텐데 이를 어떠케나』하는 歎息을 마지 안허섯고、城津을訪問하는 他地方人士는 으레히말하기를『中等敎育機關한둘은 꼭잇섯슥한데 아즉 볼수업스나、城津아! 웨 이리두 오래 자느냐』한다 얼마전 한篤志家를나온 篤志家가 여기대해 切感한바잇서 그에對한모든 準備까지 한일이 잇섯다 그들본 우리의 기뿜은 限업는것이엿스나 섭섭하게도 그는그 活動地를 서울로 옴겨갓다 그後 城津은 오래동안 멍하고 잇다가 希望잇는 城津이라、數年前 育英大志를 품으신人士몃분이 商業學校設置를 北城一帶에 提唱하자地方人士의 聲援은輻湊하야 畢竟 商業學校하나가 儼然하게 서게되엿다

그러나 그는직 畢竟 二年制인 簡易學校란 領域을 못버서나는 形便이다 燎原火勢인 向學慾을 滿足식히기에는 너무나 적은것이다。今年 新學期부터는 三年制로의 學年延長認可는 어덧다하나 그래도 아직 未成品이다 이를完全한 中等敎育機關으로昇格해 놋치안코는우리는 安心할수업다 나선걸음이라 끗까지이 學校完成을 爲하야 有志人士는 奮發하기를바란다 (城津支局一記者)

### 劃期的發展은커니라 入學難은 去益甚

#### 普設立이急務

**江界** 義務敎育 施實가 朝鮮사람의 現狀으로 겨우 初等敎育 이나마 修學을 志願할能力을 가진者가 兒童의 멧割에나 該當할것? 極少部分에 不過한은、이 常識的으로 周知하는바 이런 『가난한사람』의 難關을 打破하고 就學을 志願하는者를 滿足히 收容할수잇는 機關조차 充分치못한 不平과 限歎은 이 江界一地方에만 局限된 現實이 아니요 今朝鮮의現狀이니 엇지 새삼스러히 論議할바 잇스리요만 이것도 程度問題이다 江界敎育機關施設과 地方狀況에對한當局者의 認識不足을 論述하여反省을促하고저한다

江界는 平北奥地이요 文化發展의中樞地帶로써 其位置에 잇서서 自他가 共認하는바니 前年農林學校設立運動에 奥地一帶各郡民의熱誠이 如實히 證明되엿것이며 이것이 鐵道沿線을 멀리떠나交通不便한 山間地帶에 不自由함으로 因하야 向學熱의 發揮에 限止되이 얼마나컷슴이라 이럼에도不拘하고 數年來 猛運動을 거듭한 農林學校도 昨年에야겨우醸産된 形便이니 좀더 當局者의 充分한認識에서 文化輸入이 鈍한地方어도 着念이잇기를 바라는바이다

中等學校 敎育은姑捨하고 初等敎育機關에잇서서 現今 一萬五千人口를 擁한 郡市임뿐만안니라 人口增加에 따라서 年復年激增하는 就學志願兒童을 收容할바 업는 一個所의 普通學校의 넷배남보다 무엡어지고 募集定員을 너무 超過하는狀況 其他事情을 參酌하야 入學을 制限하고 不得已하고 願書도 提出치안코마는 數가 적어도 願書提出者의 倍以上(合計二百名)을 算할것은 筆者도 累年來 目擊하는바이다 그리면 남어지 三百以上兒童을 收容할나면 數年來物論이 비등한 學校增設問題로는 끈치치 못할 狀態에 嗚呼한바이다

現今 江界公立普通學校 狀況은 校舍增築할 餘地도업슴으로 現在 在籍 一千二百名收容도 困難하려니 적어도 普通學校一校(第二普通學校)를 增設하여야만될것이다 江界는 方今 劃期的 躍進을보고잇스며 滿浦線鐵道가 奥地幹線을 貫通하고 人口가 激增되는날이면 따라서 現狀보다 몃倍以上의 難關할것은 明若觀火한事實이다 이것이 今年度에잇서서 硏究할問題인 同時에 解決하여야할 무엇보다도 큰問題이다

### 實業校設立促進

#### 有爲한우리靑年을養成하자 —安城年來의大宿題—

**安城** 本地方의 社會施設에對하야 모든것이 不備하지마는 그中에도 第一 肝要急切한것은 中等程度의實業學校이다 初等敎育으로 말하면 公立으로普通、私立으로安靑、安法의機關이잇다 每年卒業生數가 少不下百名以上 이되는데 大部分이資産關係로 上級學校에 入學치못하고 歸家하야 優游度日한다 정말愛惜하고 寒心한일이다 上級學校에前進치못하는 學生일사록 大槪는 品行이端正하고 才藝가優越하며 身體가 健康하야 將來에 有望한人物로서 但只 經濟問題로 因하야 앗가운 聰俊子弟로서 草野에 泥沒放浪하고 만다 設使 官廳에小使나 商店에 低級店員으로 採用되다하더라도 此亦是 極難하다 그러면 聰穎萬里의 큰뜻을 두고 學校에 獻身하야는 學生의希望은 無爲히도 挫折되고마는同時 그社會의發展될 長計도 업서지고 말것이니 當局에서 人材를養成하는 本意가 那邊에在한가 歷代郡守諸公이 此地方의 利害關係를 周悉하고 有志諸氏와도 熟考欄商하여온 宿題이지마판 究竟은 成就치못하고 遐任되면 그만 그問題는 水泡에 歸하고만다 그러면 그責務는誰某에게잇는가 敢一言하고 本地方 有志諸氏에게 잇다고 한다 民間事業에對하야 政府의 援助가 잇슨然後에야 完就되는것은 勿論이지마는 그地方事業은 그地方人士의 徹底的熱誠이 아니고는 되지못하는것이다 現在보는바와가티 郡廳이나 面所에서 産業指導者에對하야 他地方人材를 需用한다 그러면 本地方에는 사람이업서서그런가 그럿치안타 그만한 敎育機關이업서서 그런것이다 本地方有志諸氏는 再思三思할 大問題이다 하물며 이 時代는 獨專其利를 主張하든封健的時代가아니다 뿐만아니라 四十以上되우리는 누구나 前途洋洋한有爲靑年에게對하야普通父兄의 絶對的責務가 잇다고한다 그러면 그러한 重大責務를 가진우리로서 普通子弟의 馬牛同樣殆되는것을 默認治親한다면 決코 社會公德에 違反者라고 말할수박게업다 有志諸氏여! 新年을 마지하는同時에 우리社會에 利益을 享受할만한 新事業을 만히 着手하시겟지마는 在來의宿題이든 實業敎育機關을 斯速解決하야 道德에 彷徨하는 學生으로하야금 新生活程路를 實踐케하는同時에 本地方產業方面에도 多大한 稗益을 蒙케하심을 切望하는바이다 安城支局 一記者

### 幼稚園維持問題에 一層더奮發하자

#### 分立論은絕對不可

**北鎭** 現下 우리 北鎭社會가 要求하는 諸般 施設은 實로 許多할것이지마는 其中에서도 가장 緊急을 要하고 잇는것은 幼稚園問題라고하겟다 距今 八年前 卽 昭和三年三月에 當地有志諸氏의 發起로設立된 私立北鎭幼稚園은 園舍가 업시 敎會堂을 빌려가지고 開園하여以來 平壤實敎會의 補助로維持하기에이르럿든것이다 그런데設立最初에 月三十圓이든補助金은 年年이 減少되여 昨春부터는十餘圓에 不過하게되자 이로써 何等基本金조차업는 同園에서는 維持策이 漠然하야 一時存廢의岐路에서 彷徨하얏도잇섯스나 多幸히 當地金鑛會社 寄院醫師『파원』氏의特志로 月若干의 同情金을 밧게되고 뒤니여 同郡秀延面南華洙女史의 千圓土地寄捐으로말미암아 多少活氣를 갓게되여다시금 僅僅維持하여갈수는잇게되엿섯다。

그러나 이것으로 어지 滿足할수잇스랴 該女史의 千圓土地라야 그收入은 年百圓未滿에 不過한것이고 더욱 今春부터는 官敎會의補助가 그나마 廢止되다고하니 다시 維持問題를難免케될것이아닌가? 그리고 敎會堂으로 말하드래도 近十年間이란 그동안相互間不便을 늣긴때도 不無하지만 아직 더빌려쓰기에는自身이 未安한일이다。그리하야 園長을爲始한 各關係者諸氏는 恒常 조흔方策을 생각하는남아지 不得已 當局의諒解를 어더地方으로부터 賛成金을 募集케된것이다。

그리고 于先 正月안으로 北鎭幼稚園建築期成會를 組織하고 約六千圓豫算으로 募集에着手하되 約四千圓豫算으로는 느저도春三月에 園舍建築을 起工케하고 그남어지 二千圓은 基本金으로 세우게하라는데 이제 이計畫이 如意한結末을 보게만되는때에는 多年待望의 園舍問題도 解決은 될수잇슬것이며 財政의基礎도 鞏固될것이라고보겟다。

그리하야 此際에잇서 吾人은 地方有志人士의 注意를喚起하려는바로 이는 問題가問題이니만치 조곰誠意를 하야 盡力만드린다면 可能하고도 남을 것 으로밋는것이니 우리地方의 子女敎養을爲하야 또는 朝鮮의將來를爲하야 다가리 이事業에 後援과同情이 잇기를 懇願하여마지안는바이다。마즈막으로 一言하는바는 이번費成金募集을 前提하여 橋洞大宿題의 某某數氏는『이왕이면 우리두동리에서 따로 幼稚園을 設立토록하자』고 主唱하는듯하나 이것은 絕對誤解라 아니할수업다 勿論 어린子女로하여금 五里나되는 遠距離를 通學케하는 것도 考慮할必要가잇지만 몬저 우리는 一個所를維持할힘도 不足한 形勢가아닌가?그보다 이번新築할園舍를 中央地帶에 建築하고 些少한不便不利쯤은 超越하여公業的으로 두힘을합한데모아서 一個所만을 꾸준히 維持하여간다면 이것이얼마나 참되일일가한다 (北鎭支局一記者)

### 惠山의急務는

#### 公普校의改築

**惠山** 天然의 寶庫 白頭山麓의 原始林과 鴨綠江水運의 便宜로因하야 木材의集散地이고 惠山線鐵道의 全通을 明後年에 압두고 長足의 進步를加하고잇스며 對岸滿洲國과의 交通이 北朝鮮에 關係가 密接해질 우리 山城은 二千의 戶數와 九千의 人口를 包擁한 都市 임에 拘하고 初中程度의 敎育機關 不足으로 因하야 年年히 就學兒童이 半數도 收容되지못하는 現狀은 自他가 共認하는것이다 一個의 公普校는 校舍의年朽와 狹隘하야 各學校은 [illegible]으로 到底히 敎育의徹底는 期하기不能할뿐不啻라 學齡兒童의 容嫉은 더욱 甚하여 가는것으 諸位의 共認하는바事實이므로 校舍의 移轉新築의 必要를 [illegible]히 늣기고잇든 同校學父兄과 [illegible]起하야 지난여름에 南山普校移轉期成會를 組織하고 郡、道當局에 認可手續과 補助申請等에 努力하고잇스며 一方 地方住民으로하야곰 建築費寄附募集[illegible]에活動하야 어느程度의 進捗[illegible] 보고잇스나아직도 前途가 [illegible] 것은吾人이痛嘆하는바다 [illegible] 것은 우리惠山鎭의 不景氣가 [illegible]因됨도 아니라 地方諸位의 敎育에對한 熱과誠이라는것보다도 그認識이 徹底치못하다고 斷言하고십다

有志者諸位여 한번 大局的觀察로서 우리의子女를 가르키는 普校校舍新築에 우리의 當然히 할바責任을 늣기며 義務를 생각하야 諸氏여 惠山을爲하야아니諸位의 第二世를 위하야精神的으로나 物質으로마든 援助를 하야不滿에 惠山普校新築이 實現되게하야 주심을 期望하나이다 惠山支局 一記者


# 謹賀新年

江景

江景中町 東一堂大藥房 李雲泳

江景 南鮮農場 閔丙周 尹相傳

江景大和町 共信材木店 金東沂 電話三五番

江景中町 朴順圭商店

江景西町 湖南病院 金鍾國 電話五〇番

江景中町 中央醫院 金碩坤 電話三二番

江景錦町 豊中大醴 金容元 金容琦 金容奎

扶餘郡良化面長 金顯重

論山郡豆磨面 林基昌

江景中町 朝鮮料理 明月館 主 金亮默 電話一六六番 藝妓 桂月、桂仙、玉桃、玉花、片心、菊香、曉月、白花

江景本町 朝鮮料理 大成館 主 黃錫鉉 電話一四八番 藝妓 玉田、玉蓮、春紅、蓮紅、花仙、桂香、玉珠

論山 金鍾國

林川香林金鑛 金元福 朴赫

江景邑 電話四一番

市外花亭里 尹和遠

江景商業學校

江景中町 北村帽子店 電話一六一番

江景本町 金銀細工 金信堂

江景西町 農產物精米穀物貿易 李康福商店

江景西町 湖南藥局 藥劑師 李南柱

江景大和町 姜準熙

江景驛前 朝鮮旅館 大正理髮館 電話一二八番

江景中町 李鍾台 洋靴店

江景北町 義德

江景大和町 申禮植

江景黃金町 司法書士 李永稙

江景西町 割烹料理 魚安 電話一四〇番

江景大和町 宇利寫眞館 林鍾純

江景中町 삼가미사江景分店 姜錫璜

江景邑會議員 梁奉玉

江景邑會議員 丁興燮

江景大和町 李英九

江景勞働組合 組合長 高官煥 專務 朴鳳和 電話一七六番

江景 朴順圭

江景土曜會

江景錦町 朴大成精米所

江景錦町 江景牧場 電話一六三番

江景中町 東洋旅館 金善酒造場 電話一八五番

礪山邑 礪山醫院 公醫 朴鳳圭

江景本町 慈生堂藥房 尹淡炳

江景中町 朝鮮產業株式會社 電話一〇五番

江景 尹吉重 電話一二八番

論山郡豆磨面 上帝敎總本院

論山私立新都學校 鄭世萬

市外富尺里 趙煥九

豆磨驛前 神農醫院 辛英善

豆磨面所長 崔鍾仁

扶餘郡石城面鳳亭里 千大根

扶餘郡草村面長 李載惠

扶餘郡草村面松亭里 李輔吉

扶餘郡良化面笠浦 李玩徽

笠浦金組 李鎭夏

扶餘郡良化面 鄭仁和

扶餘郡林川面七山里 張錫天

連山驛前 吳仁燮

連天驛前 崔允植製粉所

連山公醫 趙東憲

連山煙草專賣出張所 金正基

龍安、德龍里 金鎭宇

市外黃浦里 白南善

市外黃浦里 吳始泳

市外歸通里 林用善

論山郡豆磨面龍洞 永昌商店 金永華

扶餘郡石城面縣內里 李載蕙

江景中町 司法書士 丁元燮

江景中町 李殷國釀造場

江景中町 司法書士 白貞基

江景本町 三益社 支配人 田在鎭

江景大和町 江景食堂

江景西町 三光醫院 朴仁守 電話一三〇番

江景西町 江景醫院 方孝機 電話四番

江景中町 彩雲堂 宋鼎斗

江景邑會議員 全養浩

江景延壽堂藥房 裵榮纘 電話三三番

論山郡陽村面長 金宅鉉

江景黃金町 精米所 金道逸 韓昌義

江景大和町 魚物委托 尹炳天

江景中町 天愛堂時計店

江景大和町 金正益

江景中町 江景木工場 朴魯吉

江景大正町 佐佐木幸喜

江景黃金町 新興鐵工所

江景 黃圭煥 電話一五番

江景大和町 酸素溶接所 文鳳鉉機械店

江景西町 恒產發祥社

江景北町 國武農場 主任 金容漢

江景中町 司法書士 趙英九

江景大正町 千一農場 主任 竹尾彌

江景公立普通學校

江景中町 司法書士行政代書 金容錫事務所

江景西町 高金同

論山郡陽村面林花里 金鍾學

江景中町 朝鮮木工場 金敬默

江景中町 壽星堂大藥房 扈淳聖

江景錦町 忠南道會議員 朴在新

連山驛前 忠南道會議員 姜永植

江景錦町 西島寅吉

江景中町 黃熙壹

江景驛前 平和旅館

江景西町 新化洋服店 李利範

江景西町 同春堂藥局 朴永根

江景中町 金相德洋靴部

江景黃金町 湖南紡織社 金道逸 柳冀璣

江景黃金町 平南旅館

江景黃金町 李鍾和

市外堤內里 金東熙

市外堤內里 金德煥

市外新龍里 金郁酒造場

益山郡皇華面 皇華釀造場 尹甲重

益山郡皇華面鳳洞里 金基一

益山郡皇華面 朴洸

益山郡皇華面廳 朴東

江景錦町 崔[illegible]

# 한地方 한問題 社會施設篇

## 埋立地를善處理 그래서府昇格運動
### ◇이것이淸州邑의死活問題
### —新年"緊中緊"의要望—

【淸州】淸州地方의當面된緊急問題는 헤아릴수업슬만치 許多히노여저잇스며 모다가 今年中으로는 그의解決을企待하고 잇지안흔것이업스니—市區整理(道路下水等)刪城改築問題 그리고女子高普設立問題라던지『추럭』運輸의增設 南部埋立地處理 乃至市場問題가亦然하다

그러나 局限된紙面에서는 緊要中緊要한問題를爲하야 論議上에 當分割愛될뿐이다 그러면

『要中要』의當面問題는 어느것일가?

그는 勿論量으로 質로보아 普遍的이며 効果와影響이무엇보다도 彪大한者가아니면 아니된다 이에잇서서 『南部埋立地處理乃至市場問題』는 充分한『테ー제』가된다고본다 그러면 그問題의 重要性은 如何한가?

周圍의 모든事情으로보아 淸州邑을 府로昇格시키는것이 最大緊急事인바 그것은 그다지難한者도아닌同時에 또한 그러케 容易한것도 못된다。

自然이 떠러지는것가티 보이는 一顆의果實도 引力關係어든 함을며幾百千의 戶口와人口의 數字가 拘束을하는 府에잇서서서랴! 거긔는 莫大한他動的『힘』이 必要하다

이點에 잇서서 道、邑當局에서도 考察한바잇서서 數萬의金錢을 드려 淸州南部의堤防을옴기는 同時巨大한面積의 埋立地를 構成하얏다 그는果然明智한處事라아니할수업섯다 萬一龍頭蛇尾가 아니엿던들 얼마나고마운 생각이엿슬고 그러나보라! 現實의 狀態를 農村의 疲弊! 中産階級의 沒落 이들의敗北群들이

架空的 希望을 가지고 이나마 一縷의 都市로 集中하야 家屋이나 店舖를求하나 密稠地帶에는 覓得치못하고 不得已新埋立地를차저서 店舖를定하랴하나 거긔는도한가지 難關이잇지안흔가 財界에先覺者인 大商人는 有産階級人들의 先取權下에잇는 邑有地는 坪當(一坪)가 五十錢內外에 는 百圓乃至四五百圓이라는 權利金이부러잇게되여 그것을 辦出할수업는사람은 집을 지으라해도 짓지못하고 집을짓는사람은 擧皆가 巨大한權利金을 支出한者이며 入札名義人의造作으로서 家賃을내는 借家人들이 大部分이며 터업는巨大한 權利金때문에 空地가 大部分이남어잇고 旣成의 家屋과 店舖들도 收支不合으로 開店幾月에『貸家』라는『렛뗄』이 븟게되여 잇스며 拂下를 前提로한 貸附地가 數年이되는 오늘까지도 貸附料를 納入케만되니 天井不知의 이負擔과 商街的으로 何等施設이 업는 이

埋立地가 어찌 發展을 期할수잇슬者랴! 이埋立地가 흥흥한 新市街(戶數增殖)로 變하지안는限 府로 昇格은 空想일뿐이며 邑그대로 잇슬진댄 淸州의 將來는 暗然한者임에랴! 埋立地善處與否는 實로 淸州의 死活을 左右할 重大關心이다。空地가 密稠地帶로 化하랴면 何等의有利한 客觀的條約이 잇서된 合을 必須로하는것인바 萬一새로되는 淸州商校라던지 期成되여야할 女子高普가 南部埋立地에다 定礎를한다면 校舍를 中心으로 旅館이라도 늘어슬것이다 그러나 商校는 北쪽市外山林속에 荏苒하게되고 女高는胎조차안되엇슴에야 이것은 當分空想이고 남은것은 가장 重要한『테제』로 市場移轉問題가남어잇스며 이것이 唯一한 要諦가되고잇다고본다

그다음 淸州市場은 淸州를中心으로한 五六里外 周圍農村의物貨가 集散되며 定期的貿易이 實行되는場所이다 따러定期日인 市日에는 數萬의人間이 來集하는것이다

市場은 그러면 이마한人間을包容할만한 場所가되는가? 그러나淸州市場을 보라! 狹隘且狹隘로 通行을할수업서서 交通整理의不可能은姑捨하고 『스리』鄕盜의 橫行으로 一分의安心도할수업스며 따러貿易의性能을 十分發揮하지못하게되는것도事實이다 이러한 現實事情에 노여잇스면서도 廣大한埋立地를 그대로버려두고 또는『市場擴張延長又는移轉』을 速히實行못하는邑當局의心事를 무엇으로辨解하려는가? 怪哉!

勿論現在市場과關聯되여잇는住民의情實도 參酌하여야할것도事理의 至當한바이다 이 모든事情에비치여

府運動 問題는 淸州의 死活問題로서 市場移轉과 埋立地善處問題는府運動의生命線이다.

淸州의 將來를爲하야 巨萬을犧牲하야 埋立地를 맨들어노흔 賢明한 道、邑當局이 엇거니幾個人의 情實에 拘碍되여 所謂百年大計를 그릇칠그런 無爲는하지안흘것이라고 밋는다 動機가 賢明하얏든 當局의 賢明한結果가 잇기를바라고 期待하는바이다

## 鎭興의三大問題
### 公會堂,團體復興等等 新年中에는促進하자

【鎭興】一九三五年도이제는換歲했고 一九三六年丙子年을넘어달아 여기에 들어섯다 이에 온一初入口에 年間勞苦와 迫害와失望으로 塡充된 乙亥年을 뜻잇게 餞送하고 未來와 希望과 遠大한抱負를 滿載한 丙子年을 힘차게마즈면서 二千餘鎭興市民의 多祥多福을 祝하는同時에 急先務의 事業몃가지를 新年膳品으로 進呈하는바이다 行할바 事業이야 如山如海거니와 가장緊急한것몃가지를 말하라한다

一、公會堂建設

우리鎭興은 永興平野의 中心都市化하여가는 一般社會的進展性으로보아 産業 政治 經濟 各般集會의 必要할것은 不言可知의事實로 集會時마다 多數群衆의收容所가 업서서 恒常不滿足을 가지게하며 딸아서 本地方의恥까지 사게하는 事實을 確顧出하게된다 그럼으로 市民들은 一致協力하야 抱負만흔丙子年中으로 數年間宿望이던 公會堂하나만을 建設하기바란다

一、各種團體의復興

鎭興에잇서서 各團體機關은 龍頭蛇尾格이엿다 몃해前에는 諸般團體가 一時는 雨後竹筍처럼 次第로創立되여 他地方에遜色이 업슬리만콤 發展되엿섯다 그러나 今日에와서는 有耶無耶의狀態로 影子도볼수업는機關이잇고 或은 겨우看板만 維持할뿐으로 別般의事業이업스니 實로慨嘆할바이다 諸君은 이새해를마즌後에 私意를埋沒하고 各自의意見을發表하야 一步二步前進努力하야 體育團體로부터 復興線上에 勇進하기를바란다

一、幼稚園의設立

幼稚園의設立必要와 根本精神은 諸君의 다가티 渴望하는懸案이니 理論할必要가 업다 金玉보다도 더愛之重之하는子女가 市邊에서 喧噪와作亂으로 일삼으며 路上에서 醉歌淫唱을 본바게니 뜻잇는人士로서야 어찌垂手傍觀할바이랴? 無秩序하게 亂雜하게 天眞스러운情緒를 아름답게伸시기지못하는可憐한어린이들을爲하야 善導하자! 이런意味에서 第一方針으로 鎭興幼稚園을 하루밧비 設立하자!

## 七萬府民의脅威인 堤防의補强工事
### 避難道路築設等의必要
### —躍進新義州의新春要望—

【新義州】今年夏節의記錄的인大洪水로因하야 新義州府內에 居住하는 七萬市民은 그當時는筆舌로 形容할수업는 修羅場속에휩쓸려 맛치 노아—의洪水를 地上에서 보는것가티 驚愕하고 恐怖에떨엇다 死線—世界의終幕이臨迫해오는속에서 要所의避難場所에는 人山人海를일우엇스며 堤防이터졋다는 虛傳으로一時는 地上의地獄을 現出시킨慘狀을呈하엿섯다。

이번洪水는 新義州市民의大多數로하여금 現在堤防의 安全性을 疑心하게쓰 맨들어 주엇다 事實로 보드래도 今年 여름의 물키는 新義州의 堤防을 四五尺밧게 남기지안혓섯다 消防組와罹災警의 共同防禦陣과 市民의努力이 업섯든들 新義州는黃海를 일우엇슬지도 몰은다。

堤防은 市民의生命線이다 萬若 이堤防이 끈허지는 날이면 新義州市民의 大多數는 財産과 建物과 商品이며 모든機關其他施設을 모조리 濁浪속에 무더버리고말밧게 딴道理가 無하지 안흔가?—

그러므로 時急한 問題는 現有堤防의 補强工事이다 다음에는 下水道溝의 整理이며그後에할工事는 避難道路다。

新義州府에서는 지금避難道路를맨들기위하야 實地現場의調査에 着手하엿스니 머지안허그의工事着手의 반가운消息을 接하게될것이라 밋는다 萬若豫算問題로 工事가 遲延된다든지 工事着手無期延期가 되지안토록 七萬市民의 이問題에對한 注目이 現下에는 切實이必要한 關心事가아니면안된다。

將次로는 現在의 堤防外廓에다시 새로히 堤防을 築城한다고한다 現在 堤防內의 面積이 新義州府의 日增月加的發展으로 因하야 狹少한關係이라 하지만 이번에 새로히 工事를 設計하는堤防은 못조록 市民에게 安全性을 確信시길만한 堅固한것을 築工하도록 深心付託하는바이다。(五六)

## 奸商輩의退治와 斗量統制의必要
### 農業高原의큰問題

【高原】高原地方發展에 對한 問題를 取扱하자면 農村問題를 떠나서는 안이될것이며 農村에 잇서서도 小商品經理者인 農民의 生活問題를 除外할수는업는일이다 者가 都會에 [illegible] 問題 바는 問題가 農民의 日常生活에 莫大한關係가 잇스며 同時에 斗量統制와 奸商輩退治가 最大急務인것을 目睹하고잇는 問題인까닭이다 이제 全郡의 農家戶數가 六千四百二十六戶에 人口二萬千百三十五人의 生活形態는 各樣各相의 形態이지만 生産方法과手段은 大同小異한點에서 그의生活面目은 秋毫의 差異도 업는것이다 그럼으로

農産品 需要供給은 必然的關聯性에서 同一한步調로 進出하는것인데 高原의四大市場은 이들의 販賣需要供給地로 이를證左하는바이다

| 市場名 | 開市回數 | 農産物 | 水産物 | 織物 | 畜類 | 其他 | 計 | 開市日 |
| --- | --- | --- | --- | --- | --- | --- | --- | --- |
| 邑市場 | 七二 | 一○五、○○○ | 二五、○○○ | 四五、三三○ | 三五、○○○ | 一五、○○○ | 二二五、三三○ | 陰每月三、八日 |
| 德池市 | 七二 | 二一、四五○ | 二六、八六六 | 七、六八四 | — | 一、五○八 | 一四、一○八 | 同 一、六日 |
| 地境市 | 三六 | 三三、三○○ | 八七○ | 一、六五○ | 五三○ | 七○○ | 六、九四○ | 同 二、七日 |
| 山谷市 | 七二 | 一四、六六七 | 二、五○○ | 二、五○○ | — | 九○○ | 三六、三六七 | 同 六、一日 |
| 計 | 二五二 | 一七四、四一七 | 三七、二三六 | 七三、二○四 | 三五、五三○ | 二六、八○八 | 四三三、六五五 | |
| 昭和八年 | 二四二 | 四五、七六六 | 二、二七六 | 三九、三六一 | 三二、五五○ | 一六、三二五 | 一一六、一三五 | |

過去 封建的 生産關係에서 自給自足의 農民의 生活에 歷史的 發展은 偉大한 衝動의 波紋을 일으켜 資本主義의 經濟的關係인 市場關係에 大部隊的役割을 하게된 農民은 資本主義前代的 生活形態에서 解脫되고 잇는것은 事實이나 그들의 轉落 流離는 及其他 破滅을 確證하는바가 안인가한다。

그런데 商業資本은 農村과市場에서 絶對的 役割을 하고 잇스며 農民은

商業家 서를 經由함으로 만이 販賣需要供給를 밧고 잇는것이다。따라서 農民은 商業家의 正當利得은 是認하지만 奸惡謀利輩의 不當利得은 勿論 排擊할것이다 그러나 愚昧한 農民은그들의 洗練된 手段과 凶計에 正當價格에 賣買를 圖謀할수 업는 境遇에 當함이 非一非再이다 例컨대 市場外에서 五里焉町이나 隔離된 道路上에 半强制로 中途에서 賣買을 强要함도 人道上容恕할수업는 事實이며 그보다도 斗量에度量衡器를 不正하게 使用하야 農民을 無慘하게欺瞞하는것은 言語道斷의惡商輩의處事이다

그리고 斗量에잇서서 高原市場은 아직從來의舊習으로 여섯되(上升六升)을 爲一斗로 看做하는것은 如于한弊害를 깃치는것이안이며 斗量의 不徹底한點은 消費者보다 生産者에게 波及되는弊害가 莫甚한것은 吾人의熟知하는바 이問題를 彼岸火와가티 無關心할問題가 안이다

筆者는 一九三六年度에 이問題가 高原地方發展의 當面問題로서 度外視할수업는 最大緊急問題인것을 再三嗚呼하는바이며 奸商輩의拔扈와 斗量의無統制는 全郡的五페센트를 占領한 農民生活에 一大威脅을 주는問題임은 틀림업는事實임으로 新年劈頭에 讀者諸位와더부러 한가지로 이問題를如何히 解決할것인가?를 紙面을通하야 提起하는바이다

## 河川을整理 荒蕪地를開墾
### 新興郡에큰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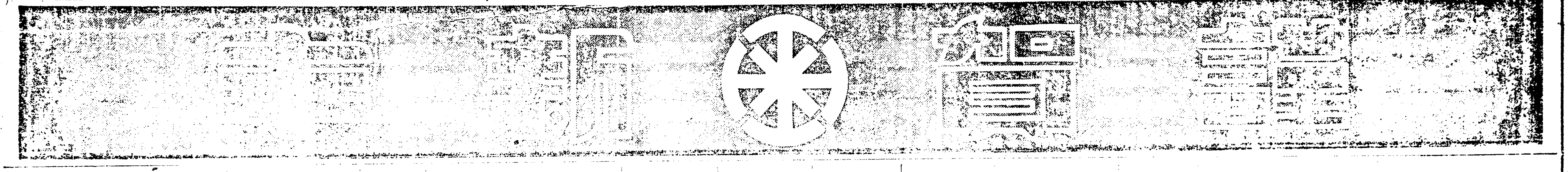
【新興】新興郡은 開知하는바와가티 昭和三年戊辰大水災에 第一慘禍를 입은地方이다 沃土가沙場으로 化하고 良田이 碧海로되어 流亡한 災民의數 實로累千으로 計하고도 오히려 農土를 일흔窮民이 現下까지도 或은 滿洲로 或은火田地帶로 轉落하는 形便이니 이들에게 耕地를주어 工業을 安케함은 當局者의 最大急務中의 하나일것이다 그方法은 여러가지가 잇슬것이나 한번大水災가 今日까지도 그 平地의 大部分은 依然 荒蕪地대로 잇스니 그 河川과 江岸을 整理하야 그 開墾工事를 施行한다면 數千町步의 肥沃한農土를 엇는同時에 이들工事로因하야 間接으로는 窮細民의 救濟事業도 될것이니 이 河川整理에따른 荒蕪地開拓問題는 郡民의 永遠한 福利를 爲하야 그저看過키 難한 郡大問題가 아닐수업다

百步를 讓하야 荒地의 開墾할곳이 업다고 假定하드라도 民의 生命的 財産의 萬全安保를 爲하야는 河川整理의 必要가 實로 크니 現狀으로는 본대도 河床이 陸地보다 높은곳、田土가 江流에 侵蝕되는곳 이런危險地帶에 位置한部落들이 實로 許多하야 누구나 憂慮되는 形便인데 況、元來凶年이란 豫想키 難한지라 今後에는 水災가 업다고 保證할수업스니 若戊辰의 過半만되는 洪水가 나더라도 戊辰에 열어노흔 水路를다고 平野를 淹沒한다면 그結果는 實로 戰慄할바이다 더욱이 數年前부터는 朝窒의 赴戰江水電의 逆流까지 城川江上流에 合流되엇슴에랴? 이러케 생각하면 本郡에 잇서서는 河川整理만도 焦眉에急한 大問題인데 이것을 整理하므로 因하야 前述과가티 數千町步의 荒地가 開墾되고 그로 惠澤으로 窮民의 生途가 緩化되고 間接으로는 그工事가 救窮의 役割까지도된다면 이야말로 一石三鳥의 妙案이아니냐? 吾人의提唱이 空論이 되지아니하도록 輿論을 이르켜줄것을 밋거니와 마지막으로 關係當局에서도 이問題에 特히 留意하야 積極的方法을 速히 講究하기를 바라는바이다

## 産業組合設立
### 麗水農村의急務

【麗水】現下 農民들은 營營不息의 勞動과 褓衣粗食으로 秋收期가 닥처오면 負債로 肥料代로 諸般稅額으로 다빼앗기고 다만 憂愁와絶望에서 부르지즐뿐이다 그뿐만아니라 이러한 農民의 困難한 農民들의 需用品에 별별手腕으로 農民들을타서 中小奸商의 徒輩들은 暴利를 꾀하고 農民들의生産品은 奸巧한 術策으로 搾取를 圖하니 農民들의 窮狀은 年年히 그深刻의度를 加하고잇서서 그들의 救濟는 焦眉의 急을 告하게되엿다 當局에서도 匡救土木事業을 對策을 講究하야 匡救土木事業을 이르키고 多角的農業을 獎勵하야 農村匡救에 汲汲하고잇다하나 農民의 주머니를 潤澤케하얏스며 얼마나農民의 生活을 支持함에 힘이되엿는가가 疑問이다 農村의 救濟는 먼저그發病原因을 모르고는 適當한藥을 쓸수업는것과가티 農利疲弊의 匡救事業을 일으키랴면 먼저 그에 適當한 對策이아니면 到底히 所期를 達시길수업슬것이다 爲先 産業組合의 機關이라고 밋는다 産業組合의使命이 農民의困難한時期에 組合에서만히出現하는産業組合가튼機關이 第一農民에게 도움을주는 度로 供給하고 農民의生産品을 統制販賣를爲主하니 이機關이 中間過程의 農民에게 가장 큰 [illegible]이될것이다 麗水人士여、하로밧비 『農村을救하자』 理論보다도 實地로 나아가서 다힘쓰러저가는 우리農民을 爲하야 産業組合을 設置하기를바라고 擱筆하노라

(麗水支局 一記者)




江景

喪中欠禮 江景 高相俊 電話一七九番

江景中町 天一運送店 電話六六番 支配人 金炳允

坪村農場 金成及 金柳洪 金東賢

江景大正町 大正生命 日本教育生命 保險江景出張所 朴英喜 朴宗昌

益山郡望城面內村 金學喆

益山郡望城面 商協議員 金東元

連山 金恩鉉

連山驛前自働車株式會社 李鍾珍

論山郡陽村面仁川里 金瓊洙

喪中欠禮 市外靑浦里 金潤永

市外論尺里 趙應九

江景中町 海産物委托 和成商會

江景 高橋精米所

江景大和町 金榮均商店

江景 朴洙鋼自轉車店

江景 大同社

江景黃金町 崔斗潤

江景本町 果物委托 張志澤

江景本町 金銀商 金有成

江景本町 金斗星

市外花亭里 李元九

論山郡陽村面仁川里 李憲植

甕津

甕津郡邑內 永信商會 主 吉永勇二

金萬壕

甕津藝妓組合

甕津郡邑內 天一館

甕津邑 三省商會 代表 金元模 支店 龍路 市內魚市場

甕津郡邑內 馬山醫院 院長 李景化

甕津郡邑內 主 西岡ダイ

甕津郡邑內 公醫 李官錫 電話二一番

黃海道甕津邑內 甕津商業組合 支店 西面念佛市 電話三番

黃海道甕津邑內 絹絲 和洋雜貨 肥料 金鳳權商店 電話二五番

甕津郵便所

甕津郡西面念佛市 龍湖醫院 醫師 尹成允

北面三山里 末永鑛山 篠田米藏

甕津郡北面 金谷鑛山事務所 鑛主 藤林五人

甕津邑 尹基澤

黃海道甕津郡龍湖島 浦上時雄

甕津郡邑內 司法書士 趙昌九

甕津郡邑內 有志 藤本善吉

甕津鑛山 鑛業 金仁錫

甕津邑內 甕津貨物自動車部 主 尹學道

甕津郡邑內 有志 張春河

甕津郡邑內 東一館 主 韓致雲

甕津郡邑內 鑛業 金昌厚

甕津郡邑內 甕津醫院 院長 韓泰辰 電話十五番

甕津郡邑內 有志 朴相燁

甕津郡邑內 司法書士 吳恩泳

黃海道甕津郡馬山面 共榮自轉車店 主 吳仁燮

馬山面 面協議員 韓衡錫

鴨綠江 吉林 米 セメント 石炭 亞鉛 鐵板 甕津材木商會 主 趙錫九 趙周夏 崔永植

西面念佛市 司法書士 孔宅彬

甕津郡邑內 海龍タクシー 電話八番 高周錫

北面面長 張潤標

甕津郡邑內 綢緞布木 黃元春商店

甕津郡馬山面堂峴里 崔澤淳

黃海道甕津邑 甕津ゴム商會 申昌文

甕津郡邑內 西元精米所 主 徐京學

甕津郡邑內 光鮮堂 時計 崔麒鳳

甕津理髮館 信川洋靴店 宋元重

甕津郡馬山面長 朴昌大

甕津郡邑內 康錫旅館 主 沈相和

黃海道甕津邑 布木 雜貨 石油 光鮮商會 張在衡

黃海道甕津郡邑內 大成堂藥房

甕津郡馬山市 榮元商店 尹應騎

甕津郡邑內 甕津月路屋 主 吳基賢

甕津郡邑內 經濟月路屋 主 鄭承九

三菱海州鑛山 金昌鎰

甕津邑 光星堂藥房

甕津郡邑內 共信洋服店

甕津郡邑內 金台烈

甕津郡邑內 主 李成台

文川

百貨販賣 穀物貿易 物産委托 文川和信連鎖店 主 朴載潤 店員一同

救世軍 文坪教會 李英漢

朴種完

代書 安重鉉

有志 李在覲

無名氏

山林保護區 金興吉 金度中

文川東拓 金鍾昇 林鉉哲

文川郡都草面 李衡衡 金鳳允 金祚澄

文川邑內 元孝燮

元山興業組合總代 金承燦

文川邑內 金錫俊

文川鑛石商會 崔明吳 陳憲用 崔明北 蔡鳳祿

新運送店

肥料販賣 金永淳

東面學校 金觀鉉

德源北城公立普通學校

玉房面長 金益俊

布木 柳根緯

都草面陵前 金成浩

雜貨 李勳基

雜貨 金明信

文川 金栗煥商店

德源秀洞里 朴禮龍

文川邑 安貞鉉

北栗

北栗面事務所

內宗里區長 金鎰鍈
長沙里區長 安仁浩
進德里區長 宋國彬
北芝里區長 朴孝均
南芝里區長 鄭達潤
新芝里區長 金慶郁
斐橋里區長 白在鎬
武尙里區長 許鎰讓
網海里區長 崔東植
大洪里區長 李宗爾
江西里區長 安近植
西新興里區長 崔宗璨
東新興里區長任 明準

泰和醫院 崔承洛

桂顯弼

德源郡北栗面內宗里 魯興淳

金龍翼

綢緞布木肥料 李鍾煥

雜貨商 朴基永商店

北栗面新地里 金正洪

崔淸珀

## 感氣의頭痛에는 藥의選擇이重要

**感氣** 는身體의機能이衰弱하야抵抗力이減退되엿슬때에 흔히 걸닌다。그런데 感氣로頭痛이 난다고서、一時的 抑壓劑인鎭痛藥을服用하는것은、오히려病因的으로는낫분影響을준다。왜그러냐하면、그런藥은一時的으로낫분것을낫게하는갓지만 胃腸이나 心臟을害케하는副作用을끼여、一層全身의機能을 衰하게함으로써이며、「머리의榮養劑하레야가」는

**痛症** 을速하게回復식힐뿐아니라、그것에最大特長은 頭腦에빠칠수업는 榮養素燐카르슘을主劑로서、頭腦에不足되는榮養素를補充하는데잇다。頭腦에榮養이充實하게되면、腦호르몬의分泌을盛하게하야、全身의機能을旺盛케하는故로大體로感氣에對한 抵抗力을튼튼케하며、참으로一擧兩得이라고하지안흘수업다。더욱히「하레야가」에는副作用이全혀업고服用할수록

**頭腦** 에榮養을充實케하야頭腦를明晰하게함으로써今日과가티頭腦를酷使하야、항상頭腦榮養素의不足되기쉬운現代人은勿論이고試驗工夫中의분에게는每日不可缺의最好適藥이다。


# 風邪からのづつう
(감기로부터된 두통)

# 旦那様の二日酔
(남편의 숙취)

# 御子様の試驗勉强
(아해들의 시험공부)

**主効** 頭痛・齒痛・不眠症・히스테리ー・神經衰弱・船車暈・宿醉 頭腦疲勞恢復・胃腸에因한頭痛

・藥價低廉・

三十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はれやか本舖
**日獨醫化學研究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一ノ五

## 頭의榮養劑

高貴藥配合

# はれやか
(하레야가)

獨逸原名ハイテル

# 丙子生의 넉두리

## 연장으로알고 여러해벼른입심

사살도 잇고 푸념도 잇고 하소연도 잇고 원정도 잇고 호통도 잇서 말에도 류만부동(類萬不同)이지 신오른 무당년이 아닌이상 엇재 하필 넉두리일까? 일년 열두달 삼백륙십오일을 입 열린 벙어리로 할말을 못 하고서 꾹꾹 참아지내다가 일년에 한번 새해를 마저 도소주(屠蘇酒) 취한김에 맘한마듸 엿줍자니 사살은 요사스럽고 푸념은 좀스럽고 호통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엄두를 내지 못 하고 하소연이나 원정은 외로운 신세에 바더줄리가 업는터라 열아홉살먹은 과수댁이 스물한살 먹은 외따님을 차저 문경새재를 넘을때울고불고 넘두리하듯 넉두리를 할박게는 더달리 무슨말이 잇슬소냐?

『여보소 동네방네 들어봄소。』

허두가 들렷고나。

『일어나라 동무들아。』

그역시 아니로세

『넉시야 넉시로다 이넉시 무슨넉고』

넉두리의 본사로는 그럴듯도 하다만은 세끼니 밥을 또박또박 먹어가며 그런 넉두리를 한대서야 간이 좀 덜 맛지 안나? 넉두리를 한대도 황해도 안악네처럼 허듭갑스티운 말주변을 배화야하고 경상도 안악네모양으로 게우욱따는 소리를 흉내내야 하지안나? 아서라。올이 병자년이라니 환갑생이로인네를 차저가서 그분들의 넉두리를 들어설랑 옴기어나 보자。

그러나 백만창안、억만이우에 병자생도 하도 만흐니 어느분을 차저 어떤 말을 드는단 말가? 그나 그뿐더러 내가 병자생이라 개목아지에 때찻듯이패를 차고 다니는 이가업스니반쪽의 병자생인들 어대가서 차저 내가

바로 서툴른 탐정이 크변인이나 잡으려는것가티 용긔를 내어 종로 거리로썩나섯스나 이러타할 묘책이 업서 이골목한바퀴로 오르락 나리락 가슴만이 답답하다。도라오편 하지니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이요 긔어코 차저보더니 운심부지처(雲深不知處)다。그러케 거룸은 유유(悠悠)하나 마음만은 갈팡질팡하는중 언뜻 내 눈에 스치어지내는 것은 이롬은 호번저도 차뤄차림은 아조 초라한복덕방의 간판이다。올커니되얏거니한번 두손뼉을 탁 치면서 복덕방으로 뛰어들어간다。이제는 나온다。참말로 나온다。그러타고 초립이의 수염이 아니요 병자생의 넉두리다。차즈러들때는 불로초가티 귀하더니 오려 드니 비뒤의 죽순가티쏘다저 나온다。

## 술한상바다노코 자ー들모이서요

엇구수이 인사를 부치고 까닷이 존대를 개올리고 피존 한갑을 터 내노코 상술을 한상떡벌어지게 바다 오는 바람에 복덕방 로인들은 입이 함박만치 벌어젓다。본래 안젓든 로인도 자그마치 넷이나 되는데 어데서 어떠케 술냄새를 맛고들 대드는지 하나 둘 모여들어 갓득이나 좁은 방안에 벽이 문허지고 고래가 빠질 지경다。술상이 끗이난뒤에 내가 썩 일어서며

『여러로인중에서 혹 병자생의 로인네를 아십니까? 아시거든 주소와 성명을 좀 아리켜 주십시요』

내말이 끗나자 마자 이런긔회에 술ㅅ갑 담배ㅅ갑을 가떠보겟다고 이로인 저로인우떠들고 나서는 것을

유치원 애기네들에게 게나가르치듯이 겨오 정돈하야 한분한분 이약이를시키엇다。나는 다시

『이왕이면 아시는대로 그분의 래력이며 소경녀사까지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십시요』

좀더 어려운 청을 내노핫건만은 그만것이야 쉽다는 눈치로 모도들 고개를 끄덕이엇다

## 수다로알지말고 좀듯기나하구려

『참판도 아마 병자생이지』

제일 수염긴 로인이 좌중을 돌아보며 뭇는듯이 말을 끄내노코

『그분의 일생도 긔구하거든』

자긔스스로 대답하야 버린다

『참판은 당시 지방국장으로내부협판(內部協辦)으로 쩡쩡울리든 사람이지요。지체가 조켓다 신수가 끼끗하겟다 거긔다가 눈치빠르고 남에게점도 잘하겟다 무엇이 빠지나요? 소시쩍에 벼슬을 하야고생이라곤 모르지요。혹 세상에서는 진령군(鎭靈君)이 세도잘때에진령군을 수양어머니라고 쪼차다니고 엄귀비(嚴貴妃)가 세도할때에는 또엄귀비를 수양어머니라고 쪼차다니어 뎌텁다고 욕들을 하지만은 아모리 지체가 조키로니 그러치 안햇드면 지방국장이나 내부협판이 어대서 나오나요? 아첨만 해서 그러케 될줄 안답에야 누가 청을 안할께요? 그러나 지금 와선 초가삼간도 업시 세ㅅ집으로 떠돌아 다니는구려。그봉춘형님이 바로 그××이 아니요만은 재산만 아는 이세상에서 친형제도 아니요 륙촌쯤 모른체하기로니 말할것도 업지요 하기야 첨을 일넌에 두세식 갈아 드리고 노름을 안하나 친길을 안하나 말년에 그 고생을 해서 찻넌다。그저 불천지위(不遷之位)라고 그 칠대조인지 그팔대조인지 꺼들려다니는 신수가 가엽고 어린 아히들이 가엽슬뿐이지。』

×

『×목천이도 읍이 환갑 아닌가?』

이때껏 입 하든 로인의 마즌짝으로 얼골이 하야코 양전한다른 로인이 말할 긔회를 기다리다가 호긔를 뭄실이라고 급히 나선다。

『그사람 참 약지。갑오 이후로 벌써 시세가 틀린뜻하니까벼슬을 내던지고 집에 들어안젓더니 무슨 협회다 무슨 자강회다 떠들석하니까 돈을 내놋는다 일을 보려다니다 입시는 그리로도 쪼차다니어섯다。그역시 별수 업슬뜻하니까 정미년부터인가 무신년부터인가 집안이 치패하서 안되겟다고

손소물도 때고 장작도 때고 아조 궁상을 떨더니 그래도 지금까지 사오십칸 기와집에 아들형제는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버젓하게 살아가거든。남북촌을 통하야 그만큼 살림 잘 살아가는이가 업슬껄 남은 무어라고하든지 제것채가 먹고 살고 남에게 군색한 소리를 안하겟다 아들들이 출세해서사회로나다니겟다 말년의 그만한복인들 어디잇는가베。

그생일이 이월인가 삼월이대 아들들이 환갑잔치를 하게다니까 실타고그러고 그돈을가지고 명산대천으로 유람을떠나겟단다나。하여튼 브러운팔자지。』

×

또한분이 말을 잇댄다

『여보게 저 ××부인이라고 자네들 모르나? 왜누구하고 어떠니 누구하고 어떠니 일시소문이 놉든 그녀편네 말이야。그부인도 이제는 엇지 지난날 당시는 꽤 이쁘다고 떠들더니 요전자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얼골이 아조 말못 되데그려』

『그런데 지내기는 엇지 지내나?』

『작대이니까 타는것이 잇지그려』

『아들이 죽은 뒤 혈손이나 잇는지?』

『혈손이 업고 양자를 햇는데 두번인가 세번인가 파양을 하고 새로다려왓다데。지금도 또 파양을할던지모르는데 작대이되고보면 그것도 어렵다며』

다른 로인이 뭇는 말을 대답하고서 다시 그로인은 말을 계속한다。

『엇다 심하게도 못구러나 이인을 조하하더니。한참 체통지의 칫을 먹어야한다고 아단을 칠때도 남들은 왜떠한개를 무치어다 먹기가 어려운데 그부인은 신 다섯개를 무치어다 먹엇다네 그려。그나 그뿐이가。일년대사인지 월파대사인지 전신에서 향내가 난다고 장안이 떠들석할때도 남들은 헌버선한짝을 정해오기가 어려운데 그부인은 긔어코 그의 허오원을 어더다가 다락속에 위하야 두엇더라니까。지금은 그버릇을못고첫는지 매월 일백오십원이가입백칠십원이가 타는데 그상분지이로 무당 창님 상쟁이들이 가저 간다지。』

## 병자생여페두고 딴청들은왜하우

이러케 하다가는 병자생넉두리대회가 안 되고 병자생렬전(列傳)이 되지 안할까 슬그먼이 걱정이 되는중에 이때것아모ㅅ소리도 안코 담배만 빨든 한로인이 좌중을 둘러보며 시비ㅅ조로 말을 끄낸다。

『여보소들。사근취원이라고 넷말도 잇다지만은 왜 가까운데 병자생을 노화두고 먼데ㅅ사람들을 하필 칠것잇소?』

여러로인들이 서로 처다들본때 한 로인 손ㅅ사례를 뒤흔들며

『올커니 참 자네도 병자생이엇다 자네가 자신의 소경력을 한번 이약이 해보게』

주제넘은 그로인은 끄들로 명령하듯 지휘까지 시킨다。이제야말로 소원이 성취되야 봇겨의 넉두리로 들어가는 판이다 더구나 그로인은 얼굴에도 멋이 들고 말에도 멋이 들어 무당을 볼 쥐어지르게 넉두리를 잘할뜻 미리부터 바갑기 끄자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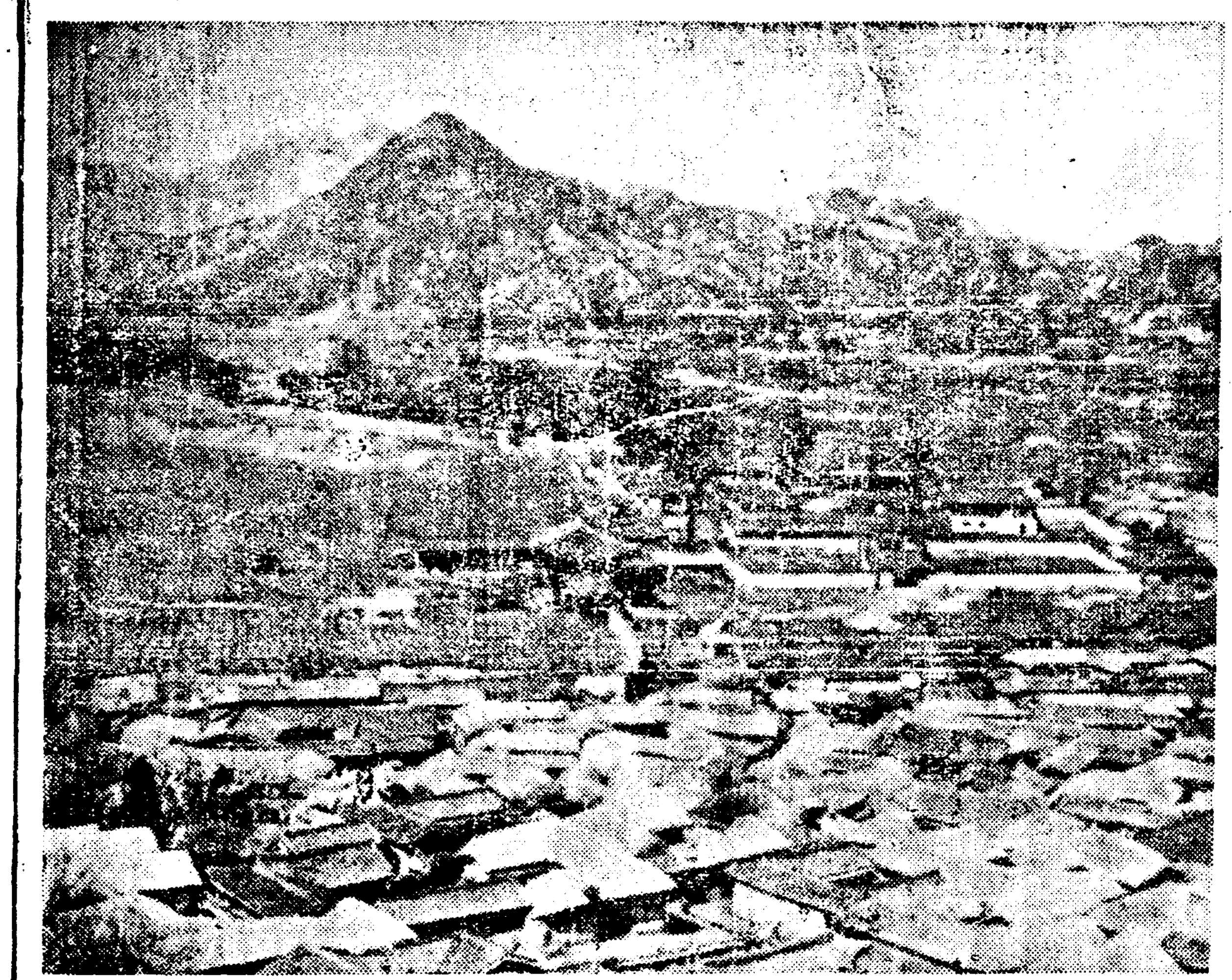
『내지금 이꼴되야 가패놀할지언정 지체는 삼한갑족 어드내놔 밋칠것가。성은×가 본은××명조상엔 누구누구 문묘배향 묘정배향 조상이야참 조흘세。내시골 충남××병자년 큰흉년도 로석가리 문전그득 형세조차 부자엿다。선친께서 시골게서 토호집은 햇술망정 덕행이 노팟겟다 문픽이 유여컷다 양반으론 그만이나 갑오년 동학난리 상놈들이 나서설랑 우리 선친 붓잡아다 가진창피 다 보이니 할수업시 피란하야 서울로 이사왓네。알뜰살뜰 모흔 재산 동학통에 업서저도 토지천석 와가한채 그쯤만도 부자연만 가튼갑세 원님이라 난하는것 부러워서 돈드리고 버슬빌다 참봉조차 하나하고 가산을 탕패했네。그래도 녯날이면 량반이란 두자로만 이러저럭 살겟지만 지금세상 소용잇나。친구집의 마름어더 구명도생 하렷더니 자식조차 난봉이라 한해도지 떼먹으니 친구에겐 면목업고 생계조차 떨어젓네。협수할수 다 업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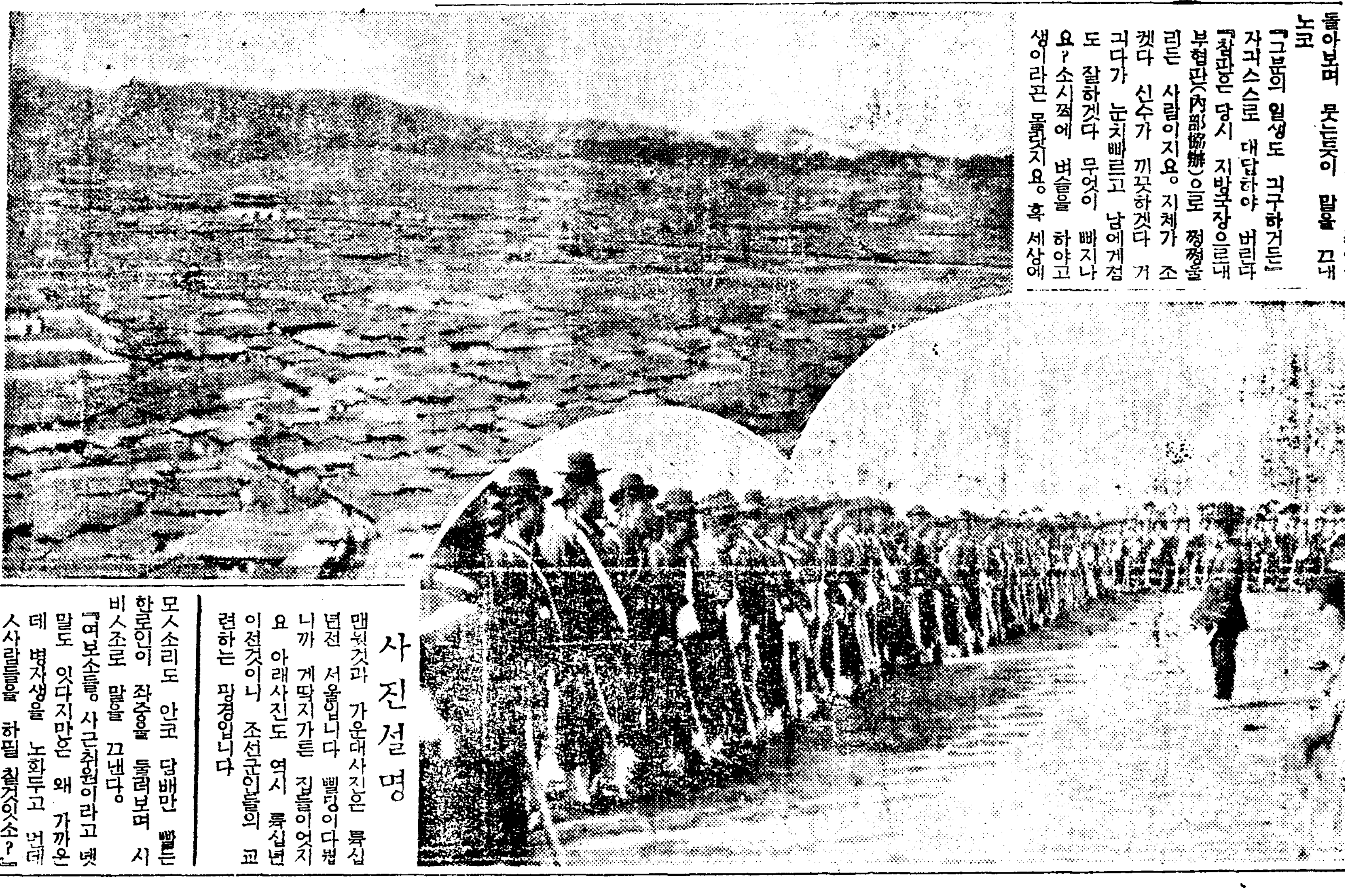
『마루가 곱간에 부억이 간반이요』『안방이 한간방에 건느방 두간이요』외우며 다닐망정 부끄럼도 업거니와 마음 더욱 편안하이。조상의 뼈를팔어 새세상에 드날리고 뚝뚝한체 하는놈 돈눈이나 가진더에 넷량반을 버티면서 거드름 빼는놈들、글줄이나 배화다가 못되게 쓰는놈들 그런놈에 비긴다면 내아니 깨끗할까?』

『세월이 빠르고나 예순하나。넷일을 회고컨댄 모도가 어제로다。병자년 큰홍년에 나기부터 낫븐해요 다사다단 갑신년은 아홉살에 지내고나 그러나 나어린 그때일야 어이해 긔억하리? 갑오년은 열아홉살 여긔저긔 동학놈이 양반을 잡아간다 술렁술렁 하든것과 새벽녁에 쪼차들어 우리선친 끌고가며 욕질과 발길진에 망유지극하든일은 또바 또바 긔억하네。그후로도 을미 올사 정미 경술 이런닐 저런닐은 내눈으로 본것이요 내귀로 들은게니 긔억하다 뿐이잇나? 상전이 벽해라니 내어이 어리석게 그이되나 막걸리 두어사발 두부찌개 끄려노코 여긔 안즌 이친구들 모아안저 먹은뒤에 한번 실컨울고 시퍼。목을노하 울고시퍼』

## 넉두리하다가 날이저무럿소

넉두리를 듯다보니 날이벌써 저물엇다。이만하면 되얏다고작별인사 엿줍고서 복덕방을 나오니까 도수주에 취한 행인 길거리로 오고간다。





사진설명

맨위것과 가운대사진은 륙십년전 서울입니다 뻘딩이다뭡니까 게딱지가튼 집들이엇지요 아래사진도 역시 륙십년이전것이니 조선군인들의 교련하는 광경입니다


# 謹賀新年

星州

星州郡修倫面 鳳鳴金山 小路鳴一

星州郡各官公署 職員一同

星州月恒 穀物貿易 星山商店 主 金七得 閔水生

星州邑鍾路通 朝鮮興農株式會社 社長 李基承 支配人 李完錫

000057

星州郡伽泉面花竹洞 一心金山事務所 鑛主 李心熙

星州郡修倫面 金德金山 鑛主 鄭九鉉

星州郡星州面京山洞 星州釀造社 都 文煥

星州郡星州面京山洞 綢緞布木 日用雜貨 權重輝商店

星州邑郡廳前 星州印刷所 主 徐廷麒

星州邑內郡廳側 穀物貿易 米麥精白 肥料賣買 酒造原料米 海田精米所 主 裵有祖

星州郡伽泉面倉泉洞 共榮 慶尙 自動車停留所 材木郡散賣 姜義錫

星州邑鍾路通 株式會社 星州儉蓄商會

星州郡伽泉面倉泉洞 綢緞布木 日用雜貨 金泉商店 主 金順甲

慶尙北道會議員 呂相源

星州鍾路 洋品布木 日星堂 主 朴士用

星州邑鍾路通 洋品雜貨 油紙物食料品 郡散賣 大成商會 主 金基南

星州邑大邱通 三共印刷所 主 金璇澤

星州郡修倫面松溪洞 多樂金山 鑛主 鄭在玉

星州郡碧珍面海平洞 碧珍釀造社 主 呂相載

星州郡伽泉面倉泉洞 伽泉釀造社 主 成璂植

星州邑市場通 日用雜貨海陸産物商 徐丙武商店

星州邑大邱通 和洋料理 初月館 主 李一分

星州邑大邱通 和洋料理 明月館支店

星州邑內 和洋料理 賞春園 主 白南奎

星州邑鍾路通 綢緞布木 日用雜貨 泰昌商店 主 申泰澈

星州邑鍾路通 和漢洋藥 星州藥院 主 金出輝

星州邑郡廳通 流行洋服 現迎洋服店 主 李聖出

星州邑郡廳通 司法代書 金鎭夏

伽泉面市場通 綢緞布木 穀物貿易商 地金賣買 李相喆商店

碧珍面海平洞 綢緞布木 日用雜貨 和洋藥 安興商店 主 安煥奎

碧珍面新市場 都在旭 盧九百

倉泉郵便所長 德山至誠

修倫面南陽洞 南陽釀造社 主 崔永哲

星州郡月恒面龍角洞 都文熙

星州郡月恒面龍角洞 朴在夏

星州邑內 黃泰守

星州郡船南面 李奎錫

星州郡修倫面新亭洞 靑坡釀造所 主 金鉢應

修倫面事務所 職員一同

月恒面事務所 職員一同

伽泉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岩面事務所 職員一同

草田面事務所 職員一同

船南面事務所 職員一同

碧珍面事務所 職員一同

利原

利原鐵山株式會社

利原官公民一同

前參事 姜賢秀

前道評議 姜彰秀

鹽盆知新普通學校

前道評議 崔錫五

前學校評議 崔錫馬

龍浦里 元主事 現郡有司 金溪煥

當選謝禮 利原郡文廟掌議 姜秀龍 梁洙憲 李德培

藥種商 元春堂藥房 利原自動車部 李憲洙

日本コロムビア 日本ポリドール 日本オーケー 蓄音器會社特約店 寶明堂時計店 主 韓承七

道評議 鄭熙昌

利原釀造所

利原金融組合評議 李興發

壽春里 前區長 姜顯奇

大成印刷所 主 金享宗

兄弟藥房 主 徐仁

# 胃腸榮養

# 錠劑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 コドモを丈夫に

아해들을 튼튼케

### 胃腸을傷하기쉬운兒孩

**胃** 腸을 傷하기쉬운 幼兒처럼、그어머니에對하야서 苦悶을끼치는일이업다 一歲未滿의幼兒의死亡數가만흔것은、日本은正히世界文明國中의 第一位를나타내고잇다、그大半은消化不良、即胃腸을 傷한데로부터 起因되는것이만타

幼兒의消化不良은、그大便을보아區別할수잇다、黃色이황한軟便、人工營養兒이면 좀黑色을띄고굿은便、그빗이變하여진다。甚한것은靑綠色으로된다、顆粒이석겨진든지한液體와거품이석기면、消化不良의證據이다。

**消化不良은 全身의障碍**

이것은單히胃腸의弱한것뿐아니라全身에關係되는榮養障碍로서、療法을그릇치면可憐하게도生命을 빼앗기게되는것은今日에는 一般的으로 누구든지 알고잇다。그와同時에療法에 두말업시『錠劑와가모도』를服用식히는것이第一조타고하는것은 거이常識이되야잇다

**人** 工榮養兒이면、아모리注意를거듭하더라도 消化不良을免할수업는것이다、平素부터『錠劑와가모도』를服用식혀、不幸을未然에 防止하지안흐면안된다。

**消化不良의原因은 榮養의不足**

消化不良에對하야서는、아직까지도疑問되는點이만타。或은 삐타민B의不足이라고하는說도有力하며 日本人에게特히만타고하는理由로서도肯定되지만 假定삐타민B가아니라고하더라도 그어떠한必要한榮養成分의 不足이原因이되다고하는것은 想像할수잇다

**삐** 타민B의 含有量에 잇서서 目下『錠劑와가모도』以上의 것은업다고하지만、單只삐타민에뿐만아니라 거이幼兒에게不足되기쉬운 榮養分은大槪로本劑中에 包含되어잇슴으로써이것을 給與하야 消化不良이防止되는것은 當然한일이며、全國小兒科專門醫와愛兒를가진家庭으로부터推讚을博得하는所以이다。

### 感氣에걸니기쉬운兒孩

**幼** 兒가感氣에 걸니기 쉽다고하는것은 病菌에 對하야 低抗力이 弱하다고하는 데잇다。누구든지 아는바와가치 人體의 要所要所에 淋巴腺이라는것이잇서서 그것이黴菌을먹어버리는活動을한다。感氣의黴菌은最初에、코나咽喉의粘膜、扁桃腺等에비롯하여가지고內臟에侵入된다。그럴때에淋巴腺의힘이强하면그것을먹어버리지만그힘이弱하면 內臟을侵犯식히게되는다。그러케되면 어느덧感氣가아니라 氣管枝炎、혹은 腎臟炎、脊髓炎等으로 變하게되는것이다。

**體內의産業을 振興식힐必要**

거기에서 感氣를 防止하는것은、黴菌의 最初의길목치는 場所인 粘膜、扁桃腺、또는 防禦의 關門인淋巴腺을 强壯케하지안어서는안되는것이지만、一國의 敵防으로서도 第一線에서서 外敵의 侵入을防禦하는 兵士에充分한 活動을식히는데는、國內의 産業을 盛하게 하야糧食이나 彈藥을 豊富하게供給하여야되는거와마찬가지로身體에黴菌의侵入을防備함에는、體內의産業이라고할수잇는榮養吸收와新陳代謝를盛하게하지안어서는안된다。

**食** 慾이 病의經過에重大한 意味를가저오는것은 食慾의 有無가體內의産業의 盛衰를 나타내는 標準이됨으로써이다。即食慾이업다고하는것은 體內의 産業이衰하야糧食彈藥이缺乏을告白하는證據이다。

**食慾을 盛케하며 血液을增進**

『錠劑와가모도』를幼兒에게給與하면、어떠한幼兒라도食慾이盛하게되는것은 놀낼일이지만。萬一이럴때에幼兒의血液을檢査하야보면、赤血球나白血球도 顯著하게增加됨을볼수잇다。

**赤** 血球는말할것도업시新陳代謝를活潑케하야淋巴腺이나粘膜에糧食彈藥을 運搬하는役割을가게하는것이며白血球은直接黴菌을討伐하는 힘이잇다。『錠劑와가모도』를 連用하야、漸次로 感氣에 걸니지안는것은이러한理由로써이다。

## 愛用者大懸賞特賣！

### 世界三十個國販路進出을記念하야

### 只今全國藥店에서

사실때에반드시抽籤券付라指定하십시오

●只今全國藥店에서『錠劑와가모도』三百錠入一個買上時에左記의大懸賞抽籤券一枚。千錠入一個買上時에三枚式빠짐업시添付하여드림、사실때에懸賞抽籤券付라고말하십시오。

### 이福運은누구의손에？

| | | | |
|---|---|---|---|
| 一等 | 三千圓割增付 拾圓勸業債券 | 二枚式 | 二名 |
| 二等 | 三千圓割增付 拾圓勸業債券 | 一枚式 | 四名 |
| 三等 | 千五百圓割增付 五圓貯蓄債券 | 一枚式 | 二十名 |
| 四等 | 四六版二百頁 家庭에御重寶書籍 | 一部式 | 二千名 |

（十萬枚一組에對하야以上의割付）

### 兒童들의大歡喜의 彩色漫畫繪本

現品에빠짐업시添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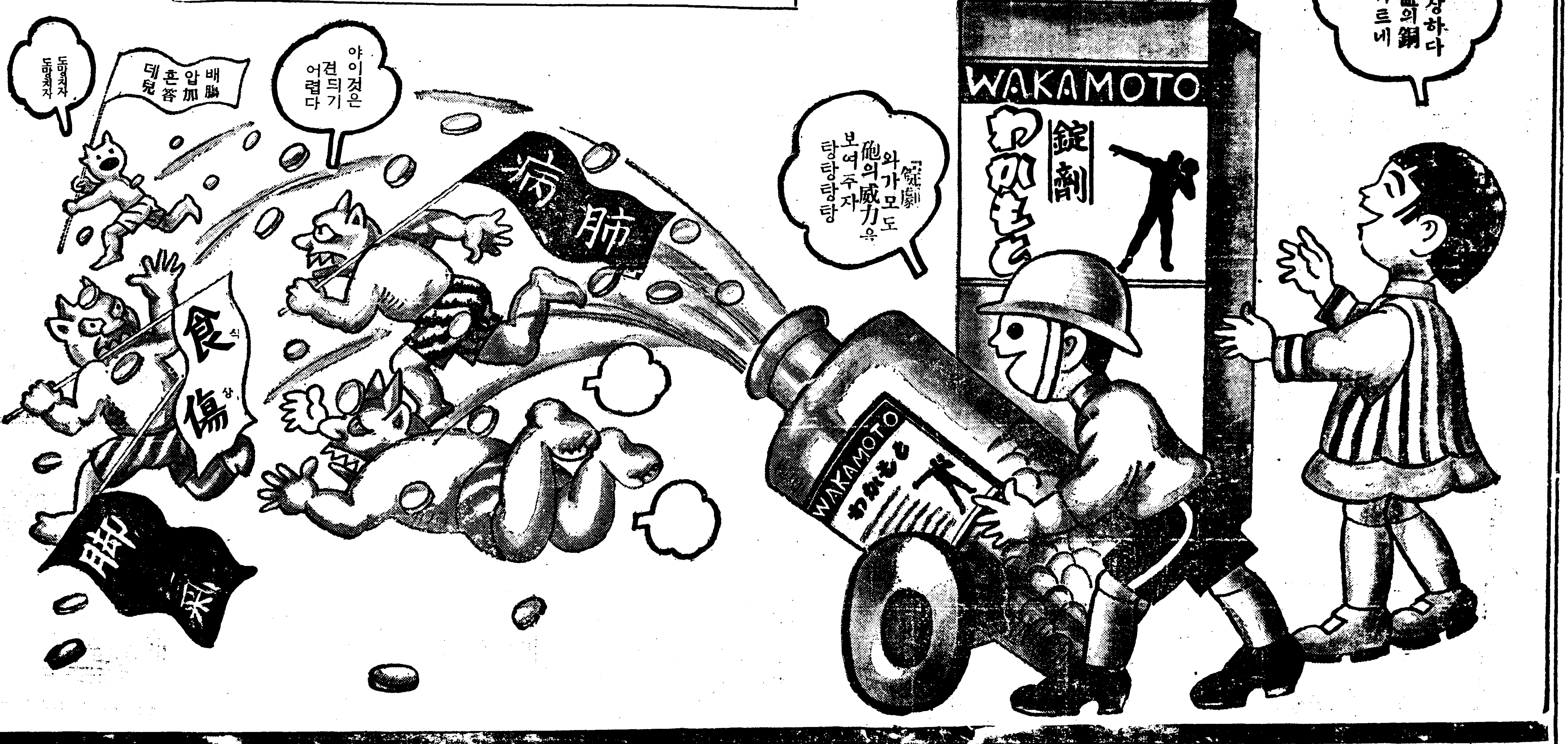
**藥價低廉**

（三百錠入） 一圓六十錢

三百錠은 大人에는 廿五日量・十歲前後의兒童에는 約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 五十日量 三歲前後에는 六十日量에 適當함。

發賣元・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 榮養と育兒の會

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外六本 振替口座東京一一七〇〇番



# 平北女高設置基金 旬日內에 五萬圓集合
## 蔚興하는平北有志의敎育熱

【新義州】평북 녀자고보 설치 긔금모집을 위하야 평북의유지들이 번망다망한 시긔임에도불구하고 열심활동한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지난 이십륙일까지 열사흘동안에 모집된총액은 사만륙천여원에 달하얏다 이와가티 단시일에 오만원에 갓가운 거액의 긔부금이 모집됨은 일반이 자녀교육에대하야 얼마나 열렬한것을 증명하는동시에 모집위원들의 노력도 크다할것이라는바 거액의 긔부금을 거출한 인사들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五千圓式 朴龍鑾 金基鴻 ▲二千五百圓 金我明 ▲二千圓式 鴨江上地改良株式會社 安東縣 ▲一千圓、李熙迪 村尙鉉 韓文煥 盧炳熙 金會 獨孤烈 李熙澔 李亨徹 李明和 朴正堯 白基 崔允鼎 全基欽 崔訓謙 ▲七百圓式 卓昌河 鄭允楨 ▲六百圓式 金承鎬 公得星 金宗源 ▲五百圓式 李鍾子 全國鉉 白學煥 朴哲熙 崔昌朝 新光百貨店 金基道 全永杰 白志煥 李泱俊 白世彥 趙聖浩 新義州國大旭 李合 張淳鵬 金鳳文 劉漢祚 李熥 外十餘人

# 新上金津橋의燒失
## 原因은汽車煤煙의發火? 永、定交通上의大支障

【新上】정평(定平)과영흥(永興)을통한 삼등도로의중추인 신상금진강(金津江)인도교에서 지난 삼십일오전한시에 발화하야 때마츰불려오는강풍에 긔세를더하야 륙십미돌가량이나태워버리고 발화원인과 손해액은 방금조사중인데 긔차에서뛰여나온불똥에서 발화한것이나아닌가한다 이번소실된금진교는 대정팔년남만철도(滿鐵)에서삼십만원의공비를 드려 준공한것으로 현재사용하고잇는철교가 소화이년에 준공되자 이를함남도당국에 양여한것으로 인도교로사용하게된것도 이때부터인데 작년삼월에도 원인불명의발화로 이십여미돌이나 소실되여 한동안교통이두절되일이잇섯다한다

### 北栗面下에火災

【北栗】지난삼일 오전두시경재령군 북률면 상교리 리약실(載寧郡北栗面上橋里李約實)의 집에서 불이나서 동가옥과 곡초를전소시켯는데 손해는 사백원가량 된다하며 발화원인은 아즉미상

# 貧寒兒에活佛들
## 貧兒敎養院에도 同情金品遝至

【元山】걸인아이와 빈아들을수용교육하는 원산빈아교양원(元山貧兒敎養院)에 요지음 다음과가티 동정금품이 들어왓다는데 그중 물품은 지난이십구일 즉시원산 칠십팔호에게 일일이 논아주엇다고한다

金八圓也 元山春山幼稚園園兒 金十三圓六錢也 救世病院職員一同 金三十圓也 光明普通學校兒童一同 金三圓也 中淸里敎會 金十二圓六十九錢也 元山府內公私立初等學校長會 金五圓也 無名氏 金十五圓也 遊誠女子普校兒童一同 金十圓也 마르다윌손女子神學院生徒 金五圓也 馬範九氏 金三圓也 慶北慶山邑敎會 金二圓也 李世模氏 金十圓也 廣石洞敎會 物品 衣服一三○點 京城梨花女子高普學生會 衣服九點 救世病院職員 白米一斗 救世病院職員 林檎一箱 金顯鈺氏 林檎一箱 田豐均氏 林檎一箱 佛敎奉仕冊八五冊 新藤和治氏 菓子一箱 昭和堂文具店 林檎三箱 朴惠善氏

하다고한다

# 事業不振을悲觀 青年鐵道自殺

【開城】신년벽두 개성에서 처음으로 철도자살을 한 한청년이잇다 자살한 주인공은 부내서본정사백이십이번지에서 서부전긔상회(西部電氣商會)를 경영하는 리승문(李承文)(二○)으로 가정의 불화와 상업이 자긔의 뜻대로 되지못함을 비관한끄테 자살을 도모한것이라한다

# 元山孤兒院에 同情金이還至

【元山】사고무친한 어린고아를 수용교육하는 원산고아원(元山孤兒院)은 사회유지의 렬렬한동정으로 근근히 경영되어가는터인데 아직도 수지못한지라 경제적토대가 엄한어도 겨우겨우리금과가튼 면합정도로 양육하고 잇서서 일반유지의 뜨거운 동정을 갈구하고 잇던바 요지음다음과가티 당국의 보조금과 학교단체급 개인으로부터 뜨거운 동정금이 들어왓다고한다

金一百圓 元山府廳 金一百圓 咸南道廳 金一百圓 總督府 金五十圓 金良範氏 金二十五圓三十七錢 元山府內公私立初等學校國旗販賣利益金 金三圓 救世病院職員一同 金三圓 光明普通學校兒童一同

# 酒席에서作戲타가 親友를亂打致死
## 井邑郡下의新年慘劇

【井邑】전북 정읍군 정주읍상리(井邑郡井州邑上里)에서는 지난 십이월삼십일오후네시경에 엇던사람이 주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긔친우를 란타치사햇다는 사실이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피해자 박득룡(朴得龍)(三)과 가해자김사용(金四用)은상리 주점에서 술을마시다가 사소한통으로말다툼이되여 가해자는 피해자를 장작가버로 지난 입일오후세시경에 절명하엿다한다 가해자는 정읍경찰서 즉시 체포되여 취조를받는중이라한다

# 泰川郵便所集配人 同盟罷業을斷行
## 待遇改善等要求條件提出코 新年郵便集配에混亂

【泰川】평북 태천우편소(泰川郵便所) 집배인(集配人)오명은 지난 삼십일일저녁에 대긔(大期)소장에게 대우개선과 숙박료 실비지급등수항을 진정하고 일일부터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드르면 동우편소장은 자긔의 영리만 도모하야 집배인으로 일금사십전 또는 오십전에 채용되지 사오년이되여도 일전도 승급하여주지안흘뿐안이라 태천에는 거리가머러 이틀에 도라오는데가 세곳이나 잇는데 나가서 숙박하면 한달에 숙박료가 칠원오십전이나 들어 급료의 반분이상이 숙박료로 소비되여 도저히 할수업슴으로 숙박료실비를 달라고하여도 듯지안코 숙박소를 지정하야 달라고하여도 전혀 거절함으로 부득이 파업을 단행한것이라하며 그간수개월도 서로협의하고 이를배달을 하로에 도라오고 신문갓지나 보통우편물은 여긔저긔 던지는등 태업(怠業)을 계속하여왓다는데 우편소측에서는 림시로인부를 채용하야 배달식이는한편 집배인을 모집하는등 태도가매우 강경하다는바 일반사회에서는 그취이를크게 주목하는중이라한다

### 大期所長談

참으로미안합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용서하야 묵인하야주시기를바랍니다 본래 경비관계로 요구를 다들어줄수는업습니다 이삼인에 한하야 한오전식을 승급식여줄 의향이 잇습니다 그러나 숙박료실비나 일인당 배인이십전식의요구는 들을수업습니다 오십전이나 오십오전에도 할사람이 만으니까 새로채용할작정입니다 운운

### 某集配人談

참으로 어굴합니다 자긔의영리만 도모하고 우리의립장은 도라보지안습니다 하로에 사십전 오십전씩주고 가서자고 오면한달에 밥갑이 급료의반분이상이 소모됩니다 거긔서 무엇무엇 제하고보면 집에는 쌀한말도 못사게됩니다 우리는 절대 무리한요구가 아니요 요구를 드려주지안흐면 그만를 작정이요 술것도 주지안코 무리한일을 강제로 시키면 백번새사람을 써도 또 그럴것이요 운운』

# 洪城支局主催 擲柶大會盛況

【洪城】지난삼일 본보홍성지국 주최로 홍성호월루(洪城湖月樓)로정에서 개최된 독자위안척사회는 예정과가티 오후삼시부터 시작되여 오후십이시경에 결승전을 보게되엇는데 최후의우승은 북군이 이회승을하고 수상자는 다음과갓다한다

受賞者氏名 一等朴錦洙 二等申景浩 三等李相勳 三等洪商奎

# 梁山産業組合 兩個支所設置

【梁山】량산 산업조합(梁山産業組合)에서는 창립된동시에 량산협동조합(梁山協同組合)의사무소를차용하야 업무를개시하고잇든바 금번에 군내상북면석계(上北面石溪)와 하북면신평(下北面新坪)두곳에 지소를설치키로하얏다는데 신년초에는 인가(認可)가잇스리라하며 동시에 일반사무를취급하리라한다

# 四十歲老總角이 自動車에轢死

【瑞山】지난삼십일일오후삼시경 충남 운수주식회사(忠南運輸株式會社)운전수리성세(李成世)가충남륙백이십삼호 승합자동차로오후한시 십분경 충남서산을출발하야·삽교(揷橋)로 향하야오든도중 삽교를약오정가량 남겨노흔 평탄한길에서 동삽교면역리에사는 김갑천(揷橋面驛里金甲天)이가 자동차를 피하야 길옆으로 거러가든중 본운전수는 황급히 스톱에힘썻스나 원체단거리가 되야 전긔김갑천은 두부(頭部)를 부다처 파쇄되여죽어넘어지자 자동차는 죽어넘어진 김갑천을 깔고넘어와서 이삼간밧갓헤서게 되야 이삼조동안에 사람은 즉사케되얏다 현장은선혈이 림리하야 목불인견이엇는데 전긔김갑천은 사십이넘도록 장가도못든 로총각으로 그는 원래귀가 먹어시며 불구자인데 일반은 그가긍한 정상을 측은히 여이다하며 급보를접한 홍성경찰서에서는 현장에 급행하야 실지검증을하는 동시에 운전수는 취조를 밧는중이라고한다

# 한地方 한問題 (社會施設篇)

# 災地咸安의急務 洛東江改修工事
## 萬餘住民이進退維谷의慘狀
## 當局者!猛省하라

【咸安】咸安이라면 『水害地』라는 반갑지안흔名稱으로 널리 世間에 알려젓스며 同地住民들은 年年水災의苦難을 바더왓기때문에 一年間血汗으로지은農作物이 一朝洪水에 烏有가될지라도 그를 오히려 恒茶飯事로 알게되여 이제는 神經까지 痲痺된모양이다

全郡十個面에서 咸安、郡北、漆原三面을 除外한 七個面이 水害地이며 其中伽倻、法守、代山、漆西四面이 酷甚한곳이다 그러나 伽倻面은 水利組合工事가 完備되여 堤防만 決潰되지안흐면水害를 免할수잇거니와 他面은何等堤防施設이 업기때문에 여름우는 代山面民들은 이苦境을自力으로 救出할方策이 업슴을알고 距今四年前부터 洛東江河川改修工事問題를 부르짓게되여 當地有志 李顯榮 安敎秀 安士烈 外諸氏가 全面民을 代表하야不眠不休의 誠으로 이問題를實現시기라고 機會잇슬때마다 各關係當局에 呼訴하엿스니 陳情만이 凡八回이엿다 그들의 苦衷은 이로써도 推察하기에 넉넉하지안흔가

**洪水期** 暑當하면 어느瞬間에 家屋、農作物과 或은 人命까지도 沿消한狂濤에 삼켜버릴지 알지못한다 그얼마나 悲慘한現象이랴!! 他面보다 加一層悲運에 빠저우는 代山面은 人口八千三百餘名을가진面으로서 全面積二、七五方里에 九割이

**水害地** 에이다 住民中에 잇는 極少數人은 水害업는地方으로 移住하고잇스며 남어지絶對多數인 貧農民은 移住할 能力조차 업서서 老弱은 버리고 單身으로 日本內地이나 或은 滿洲方面에 糊口의路를 차즈려고 애를쓰고잇스나 前者는 까다로운渡航手續이 잇스며 後者는 先住者의 斡旋이 업고는 安住處를 엇기가 如干困難하지 안허서 此所謂進退維谷의 狀態에서 自己의 悲運을들어『悠悠蒼天』만 부르짓고잇다 今後이런 狀態로서 數三年만더 繼續한다 까닭에 面民의公課金負擔力이 업서 하지못하고 一個獨立面으로서 維持하지못하고 面廢合問題가 다시 擡頭하리라한다.

當局者는 이런慘狀을 조금도 理解못함인지 陳情員들이 갈때마다 問題의緊要함은 認識하나 豫算이許하지안흐니 얼마동안만 기다리라고하야 그동안이 벌서 四個星霜이엿다 該工事費가 約二十萬圓程度이라니 當局으로서

**緊要한** 問題임을 果然認識하엿다면 四年동안에이만한豫算이不許하엿슬까? 餓死線에서 彷徨하는八千餘住民을두고 豫算不許라는 不當한 拒絕로서 四年동안 不問에 붓치운 當局者의 어떠한辨明이 잇슬지라도 民情沒理解라는 評을免치못할것이다 當局者여! 新年度에는 이緊急한 河川改修工事問題를 꼭實現함이 잇기를바란다 咸安에 緊急한問題가 一、二에 끗치지안치마는 가장緊急한 이問題만을 年頭에들어서 다시 한번 當局者의猛省을促하는바이다。

咸安支局 一記者

# 未墾地를開拓하야 火田民移住의急務
## 山峽平山郡의新年要求

【南川】黃海道平山郡은 地理的으로 山峽地帶이다 農業을爲主하는 朝鮮에잇서서의 山峽地帶라면 火田을聯想케되는바 本郡의西北部 安城面과 寶山面一部는 郡內에서도 가장尤甚한山峽地로서 居住民全部가 火田에서 生活의資를求하고잇다 밭도부치기어려운 磽确地를 괭이와호미로 起耕하야 大豆와粟等의 穀類를심어 運이조코 年豊한해를맛나면 몃말、몃되의收穫을어더 근근히生活하야가지만 비가만히오는해에는 심은種子도 찻지못하고 밧테는 흙한점업는바위돌만이 露出하얏슬뿐이다

**收穫期** 만바라고기다리며 힘써갈고김매든이들은 오직하늘마치여다보고 한탄할뿐이다 그러면 이慘酷한被害는 火田을耕作한 이들에게만 그치고마느냐하면 이보다도 더큰被害를 입게되는것을 생각지안으면안되다 火田이문어저내려 흙과돌이 河川에로몰니게됨으로 河川이놉하짐과함께 河川이汎濫하야 沿岸에잇는 土地의農作物은 水害로因하야 火田보다못지안는 被害를 當하게되다 또한 이뿐이 아니라 往者乙丑年水災時南川市의 全滅은 世人의머리속에 아직사라지지 안는바이다 이큰 水害를 當케된 直接原因이야勿論비가 만이온데잇겟고 堤防工事가 업섯든까닭이겟스나 이를 더깁히 推究하야본다면 火田때문이라고 斷言할수잇다 깁허야 할 河川이 놉핫기때문에 물이 미처빠지지못하고 市中에로 侵入하야 萬無無後의

**大慘狀** 을演出케하얏든바 河川이 웨! 놉핫느냐하면 前記와가티 火田에서 흙과돌이 문어저 내려서 河川에 놉히 싸엿든까닭이다 그러면 堤防工事를 完全히 해논 今日에는 水害의 憂慮가 업느냐하면 絶對保護하기어렵다 堤防工事以外도 安城面에서 寶山面에로 흐르는 河川은 해마다 해마다 또다시놉하진다 河川이 작고놉하지니 不遠한 압날에또 다시 잇슬것은 定한理致가아니냐?

이와가티 火田民의生活苦와 火田으로因한被害가 眼前에 目睹해잇슴을不拘하고 等閑히 放置해둠은 治山治水의標語를 내세우는 爲政當局者로서는 넘우나 無責任한感이업지안타

그래서 吾人이 이제『未墾地를開拓 火田民移住』의案을提出하는바이다 그리하야 첫재는慘酷한火田民의 生活을安定시킬것이요 둘재는 水災의弊를防禦하라는것인바 未墾地는荒蕪地를云謂함이아니요 現在의밧을 河川水를引用하야 논을만들것인바

**本郡內** 에도 適地가얼마든지잇다 文武面에서 上月面에로흘으는河川水를利用하야 沿岸에잇는 밧이 全部논될수잇고 麟山面에서 新岩面、細谷面을貫通하는河水를 利用하면 沿岸에散在한밧이 훌륭한沃畓이 되기에可能하고 其外에도 西峰面等地에도만히잇다

밧이논만되다면 生産物이七倍以上은 增收될터이니 在來居住民外에 火田民全部를移住시긴대드 問題가업슬가한다 具體方法에잇서서는 水利組合이 더욱조치만이는만흔經費를 要케됨으로 問題外로하라고도 道當局에서 多少의補助를加하야 地主에게 洑를막어引水도록 勸告하면 容易한일이라思하는바 洑의實例를들면 本郡內에 數處가잇스니 漏川앞어둔이洑는 數萬石의 收穫을어더 平山郡穀倉이란 일홈까지내고잇고 西峰面三山洑도 數千石의收穫을내고잇는것을 事實이 證明하는바이니 洑에對한

**實現性** 고도 充分히잇다 보는바이다 거칠고 收穫이적은밧을 길지고 收穫이만흔논을맨드러 火田民을 移住시긴後에는 山田을嚴禁하고 造林을 함께 人工造林에힘이 못미친다 自然그대로 두어도 現在의 안일흘것이라고 思하는바이다

本問題는 本郡에잇서서 가장 重大한일로 筆者는 曾前부터의 腹案이엿스나 發表를 躊躇하엿든바 今番新年을 機하야 一言을提하는바이니 當局者는 用意하기를바라 마지안코擱筆한다

南川支局 一記者

# 우리襄陽의 懸案二題

【大浦】歲末과 歲首의 差가 하루밤사이지만 사람의心理動態는 遼隔한 新舊의感興을 가지게되나니 人生 生活에 必需的問題도 亦然하다 各樣各態로 벌려진 懸案宿題를 별다른振作이 업시 보내는 乙亥의 마지막 總決算을 마치고 丙子의 첫 아침을 마지하야 筆者 敢히特別한 感興에서 公私共히 事業當爲上 空前의 大成果가 잇기를 鼓吹하며 强化向上을 自願하는 바이어니와 共地方의 福利的發展을 企圖하는 心算에서 다시 積年 鈍着不振하는 懸案幾題를 들어 走馬加鞭格이나마 우리襄陽各界人士에게 絶叫하노니 爲先道路問題에 잇서서 洪襄線(九龍嶺) 開鑿은 筆頭로 鰕矢嶺、開嶺等 西路開通問題이며 幼稚園創設、各津漁港修築工事促進 鰯油肥檢査所設置等等이다。 이도 彼岸火視할수 업는 事實의 現狀이나 오즉足上之火로 目睫된 二大難題가잇스니 一 曾校校舍增築及學級增設 二 東草避難大漁港 第二期工事繼續着手等이니

一、曾校問題로말하면 一面一校完成이나 六年制完備된學校는 겨우 二三個所에 지나지못하고 其餘는 大部分이二敎室或은 四敎室에 複式制이나마四年授業(或六年制도有함)이니 入學難에서 겨우 死線突破한것이 中途廢工으로 갈곳이 업서 彷徨하는 兒童이 每年 幾百名에 達하며

二、東草築港問題로 말하면 本報에 累報한바잇서 詳細는略하거니와 連續的 第二期工作이 아니고는 前功可惜의嘆을 免치못할 現狀임은 自他가共認하는바이다 紙面關係로 더 成案하여 말하지못함은 筆者 먼저 遺憾이나 以上 二大問題를 丙子의 첫아침 立案으로 完成無缺의 目的達成을 官民一致協力의 更生的企圖下에 囑望하고 邁進하는 陣營에서서 豁援하기로 提唱하며 來日의 進展만을 期待하는바이다。

大浦支局 一記者

# 小作人救濟에는 먼저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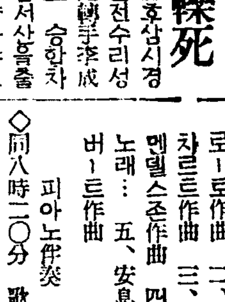
【通川】江原 … 方과 달라 … 잇다 … 하며 … 력

… 오늘날 까지 하로도 滿足의 時間을 보내지 못하고 실낫가튼 生命을 艱辛이 支持하여 왓슴으로 落望에서 헤매이다못하야 새로운 긔운을여러 最後的으로 反抗의氣勢를 올리려고하고잇다 이證據로는 農地令發表後 各地에서 小作爭議가 續出하는것을 보아 넉넉히알수가잇다 通川人士여! 奮起하라 覺醒하라! 이 多大數의 小作人을 우리가 救出하지안하면 어느누가 救出할것이냐 通川의小作人을 救出함은 貧民窟인 通川을救濟하는것이며 한거름 더나어가 말하면 全朝鮮의 貧弱을 救出하는것이니 우리는 엇지 이重大한 小作人救出問題를 度外視하리요 여긔에는 무엇보다도 小作人各自가 覺醒團結할것은 勿論이지만 有志一般도 奮起하야 全部的으로 小作人保護機關을 設置하야 無理히搾取하는 貧鬼輩와 不良舍音輩의 橫暴를直接間接으로 制裁하는一方 小作人에게 農事改良方針과 生活改善의 必要를宣傳指導하야 窮境에빠진 그들을 救出하는것이 우리의 義務이요 責任일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義務와 責任을 다하지못한다면 쓰러저가는 朝鮮農村을 救出하기는 한울에 별따기보다도 더-힘들것이다 이에 痛感한 筆者도 만흔希望과 새로운 마음으로 新年를 마지하야 여러분에게 두어마듸의 말을 사리우는바이다

通川支局 一記者

◇時日 正月七日正午부터
◇處所 咸興城川江銀盤上
…上競技大會




### 一月五日 (日曜)

◇午後六時 管絃樂 DK管絃團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三) 總督府視學官
◇七時 氣象뉴-쓰
◇同七時三○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 張齊憲 李東伯 鼓手 韓成俊
◇同八時 獨唱 一、마르라、플로-토作曲 二、도주안…모-차르트作曲 三、노래의날개…멘델스존作曲 四、끈도라의뱃노래… 五、安息의그대…슈-버-트作曲 피아노伴奏 金元福 權泰浩
◇同八時二○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錦桃 金美花 金永根
◇同八時二○分 라듸오、드라마 昏線 (配役) 吳君…金海雲 朴君…李星 文子…金英 貞淑…韓英 金吉九…崔水 七順이…庚華 其他 放送劇新人會
◇九時三十分 氣象뉴-쓰 演出 李如水 效果 效果班
◇同一○時 (滿洲로부터)

### 一月六日 (月曜)

◇午後○時五分 라듸오小說 晩秋 金昌基作 金昌益
◇同三時一五分 婦人講座 家庭改良 金活蘭
◇同六時 이야기 一月난偉人이야기 幸鳳祚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新年노리와習慣 黃義敦
◇同七時三○分 講演 新年의展望(四) 崔南善
◇同八時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小春香歌 四、노래가락 趙牧丹 李竹香
◇同八時三○分 映畵이야기 徐相弼
◇同八時五五分 管絃樂(레코-드演奏) 交響曲 第五『運命』C短調 作品 六七番…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콘브리오 第二樂章 안단테·콘모-트 第三樂章 알레그로(스켈르쏘) 第四樂章 알레그로(論敦퀸-ㄴ스호-ㄹ管絃樂團 指揮 헨리·J·우드卿)

### 曆

一月六日 (月) 十二月建己丑(小)初十二日 丁亥·土·張 開
●祭祀에宜함
●小寒六日(舊十二日)
●大寒二十一日(舊二十七日)

近代人에보내는純性整髮料·爽感을내는生粹한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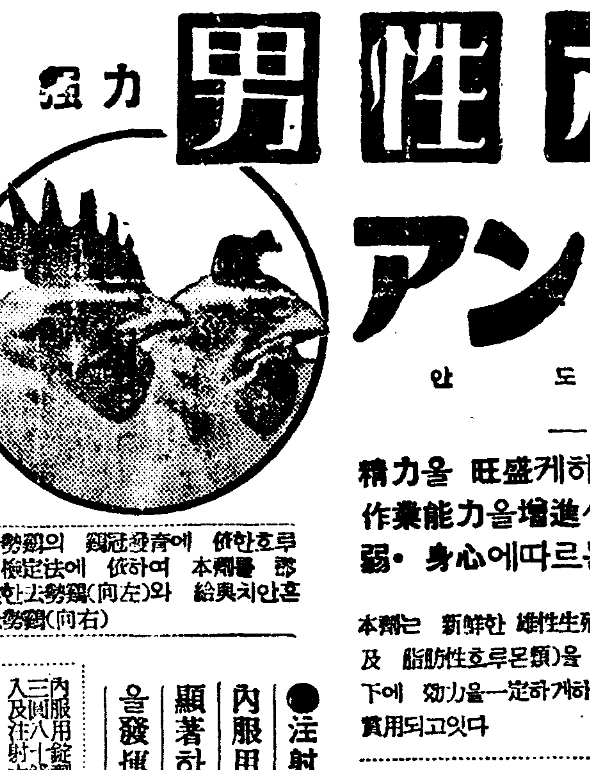
金鶴ポマード (금학포마-도)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登錄商標 登錄商標 京城 대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本局(2)三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一八一番
專務取締役 李圭元
總販賣部 京城鐘路(舊裁判所前) 電話光化門長七六五 振替口座京城七三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電話本局(2)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二七七五番

好職業
男女適齡不問自宅執事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强力 男性ホルモン (호르몬)
アンドロスチン (안드로스진)
—潑剌한生氣—



去勢鷄의 鷄冠發育에 依한호르몬檢定法에 依하여 本劑를 給與한去勢鷄(向左)와 給與치안흔 去勢鷄(向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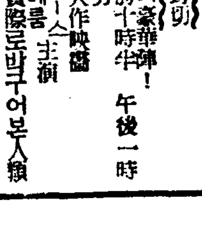
精力을 旺盛케하며 精神力을도음고 疲憊를除去하며 作業能力을增進식히며 老衰를막고 또는 神經衰弱·身心에따르는 諸障碍에 適當된다

本劑는 新鮮한 雄性生殖腺의 全有效成分(水溶性及 脂肪性호르몬類)을 包含하여 生物學的 檢定下에 效力을一定하게하며 世界各國의 醫學界의 賞用되고잇다

●注射液·錠劑●
內服用 錠劑에도 顯著하게 그效力을 發揮함
內服用錠劑三十錠入(定價三圓八十錢)外二百五十錠入及注射六管入五十管入等
有名藥店百貨藥店에 잇슴

文獻은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 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 日本學術部에서 贈呈
日本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東京小西新·島田·三共

新春一月四日(土)부터三日間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上映一時半七時十五分始映
MGM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天然色스타-總出演:美女群大亂舞
萬有能超爆笑劇 하리웃드파레이드 全八卷
二人의征服的人氣競爭大冒險喜活劇 重疊大冒險!獅子吼讚
롤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版!! 西部大活劇 無賴漢집 全七卷 監督…루이스킹氏 主演…파크존스氏
PCL社超特作全發聲版 現代喜劇 惡戲小僧 全八卷 出演…山本嘉次郎氏
麻浦桃花洞 電話龍山三三番 桃花劇場

事業家의 포켓트에


頭腦榮養劑 ¥0.30 ¥0.50 ¥1.00

新春第二週의豪華版! 一月五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獨逸우파超大作映畵 한스·알버-스 主演 푸리끼데헤름 實際로바구어본人類千年의꿈 코스모·포리스(GOLD)
破滅이올때까지 우리들의心臟을서늘하게하는科學
◆獨逸이나은代表作品! ◆佛國파데超特作映畵 文豪모팟산原作集을映畵化 沐浴 (遺書改題) 말셀·샤달 주연
◆日活超特作(외스타-錄音)映畵 春映畵界의話題篇 日像月像
日活最近의傑作映畵 全鮮第一映畵殿堂 電光 團成社

一月五日より九日まで晝夜三回上映 上映時間表
蒲田特作爆笑篇 爆彈花嫁
阪本武 飯田蝶子の掛合漫才
大船 諸出スタヂオの春 オールトーキー 新春のスタヂオ廻り先づ春は松竹映畫から
蒲田さよなら記念映畫 永久の愛 大松竹が天下に誇る豪華版 戀人よ!お前は私に永久の愛を誓ふが再び逢へぬ日を想ふ どうして外の者に永久と云ふ言葉があるであらうか! フランソアコツペ
洋畫專門 浪花館

# 謹賀新年

## 新義州

新義州府榮町
株式會社新延商會

新義州府眞砂町
國境通運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肯夏
專務取締役 李載奎
電話 長 六六一八番 七六一番

新義州府榮町
李熙廸
電話三〇七番

新義州老松町
鴨綠江土地改良株式會社
電話一六番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貿易商 信一商會
朴正堯
電話 九〇八番 九一九番 七五五番

新義州府本町四番地
國境商事株式會社
社長 金義明

新義州府老松町六一
金基鴻

國産品パイン、帝國、ロトース、裁縫機械特約店
大阪佐川、東京キンク、大橋青木金屬特約店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
獨逸裁縫機械會社

新義州榮町
高秉哲

新義州府外
光城面長 張德成

新義州府眞砂町
同益商會
電話七三五番

新義州常盤町
世…

平北道高等…
食堂員一同

新義州榮町
日光寫眞館
金昌濂

新義州府外古津面榴洞
金興世

新義州府義州通路
活版石版 和洋帳簿 各種紙物 文房具
大成印刷所
李善燦

新義州府外光城面
姜利璜

新義州府老松町
新鮮堂印刷所
張龍浩
電話九一四番

新義州彌勒洞
金麗泰

新義州老松町
崔商會

新義州府
府會議員 鄭元燮

新義州老松町
朝鮮料理 新香園
電話九五九番

新義州府榮町
辯護士 卓昌河

新義州老松町六二
高級既成服商 七龍洋服店

新義州府榮町
崔昌朝

高輪商會本店
高有崙
新義州老松町 電話長九九六、四六八番
支店 安東縣、新京

新安鴨江號 總發賣元
自轉車部分品直輸入商
新安商會
主 朱鳳成
本店 新義州義州通 電話一一五九番
支店 新義州府外中文島

新義州…
朴…一

…會…組合…館
電話 六五〇番 六一九番

新義州府

新義州高普校
校友會

新義州初音町
忠和醫院
鄭宗成

新義州府老松町
崔允鼎

新義州府彌勒洞
德山醫院
金承鎭

新義州府柳市通路
新光百貨店

新義州府榮町
趙尙鈺

新義州警察署

新義州府眞砂町
メリヤス、帽子、雜貨卸商
新安堂
電話三五番

新義州梅枝町 山實費醫院
新義州眞砂町 鷄林齒科醫院
新義州梅枝町 順興齒科醫院

新義州府眞砂町
利和時計店
白志燁

新義州府榮町
中央醫院
醫學博士 金夏植

新義州府眞砂町
平北道評議員 白基肇

新義州府眞砂町
既成服商 金井商會
主 盧炳熙
電話七一四番

新義州府彌勒洞
國境物產株式會社

新義州府若竹町
新古時計賣買修繕
玉屋時計店

新義州府老松町五番地
保民醫院
院長 李泰環
產婆 張炳模
電話七三六番

…服店
…敬爽

金物店
金魯秀
電話九六二番

新義州眞砂町四丁目
檢定染料、鋼鐵、總督府化粧品類、衛生材料、醫療器具、工業藥品、有効賣藥、各種藥品賣藥製造、處方調劑
三和堂藥局
電話長二四七番

新義州府老松町
辯護士 朴榮徽

新義州府老松町
洋品雜貨 印章彫刻 及時計部
順興商店
權興福
電話一一六二番

新義州老松町四
共成洋行
主 車亨默
電話長六〇四番

平安北道各金融組合
朝鮮金融組合聯合會平安北道支部

新義州府外中六島
第一洋服店支店
黃雲益

新義州府榮町七丁目
歐米洋行 時計部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私書函新義州局四二番

新義州土曜會

新義州初音町
海陸物產委託販賣
金星商會
金恒英 白鎭燮
電話九六一番

新義州府義州通
三共百貨店
電話長一一八番
振替京城二二七六三番

新義州老松町
圖書文具 綢緞布木
文化堂
電話七一三番

新義州眞砂町
義昌號
全基欽

新義州府老松町一四
日滿運輸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安用善

新義州眞砂町
高級洋服 元一洋服店
金成根

新義州義州通
歐米各國時計販賣
太陽時計店
처음一圓내시고每日拾錢式내시면各種時計를살수잇슴니다

新義州常盤町
新義州金融組合

新義州第二公普校
職員一同

新義州第一公普校
職員一同

新義州公立職業學校

新義州榮町五丁目
平安印刷所
電話七一二番

新義州榮町五丁目
鮮一印刷所
電話六〇八番

新義州府內
宋寬哲

新義州常盤町
鴨江輪船公司

新義州眞砂町五丁目
精美洋服店
電話一〇四五番

新義州老松町
光成紙物商會
林公範

新義州府老松町四番地
各種洋襪 諸織物類
三和織造工廠

新義州洋服商同業組合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
和洋百貨 各種毛織 婚具一式
國境婦人商會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
綢緞布木 人絹毛織
北成商務組合
電話一〇二二番
振替京城一九七八九番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
金利賢

新義州府外北下洞
吳景泰

新義州府外
北下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義州府外中之島
高麗醫院
金明哉

新義州府外古津面塔下洞
安靖淳

新義州府眞砂町七丁目
東華醫院
金英哉

新義州梅枝町
春日齒科醫院
張泰洛

新義州義州通路
泰山醫院
電話三二〇番

新義州府榮町五丁目
平北穀物協會

新義州府老松町
諸雜貨卸賣
新興支店
電話長四六四番

新義州楊市通
大洋商會
洪尙敏

新義州府眞砂町五丁目
東亞金物店
林鳳元
電話八六五番

新義州府外北下洞
金龍煥

新義州老松町十一番地
各種雜貨、穀物、海產物委託販賣業
高務商會
田德善

新義州府老松町六ノ三
靴類、帽類、衣類、トランク、原子、旅行具、其他嫁具一式
金亨根商店

## 英陽

英陽二火會
會員
池田仁作、猪俣勝太郎、朴濟輪、邊圭奭、豐田官一、李秉祚、谷川仙十郎、中澤八十雄、村上茂彌、津田碩、福井格、黃宙奭、鄭鳳鉉、出口茂志、北村衛

英陽郡石保面院里
李聖浩

英陽郡日月面道溪洞
李圭學

英陽郡日月邑注谷洞
權相牧

英陽郡英陽面化川洞
金魯興

英陽郡英陽邑
金基德

英陽郡石保面院里
李秉章

英陽郡石保面院里
李鉉柱

英陽郡石保公立普通學校
中島正男

英陽郡石保面院里
李鉉敏

英陽郡立岩面山海洞
李元燦

英陽郡英陽邑
琴昌基

英陽郡邑
權永成

英陽郡英陽邑
金尙學

英陽郡英陽邑
金進培

英陽郡英陽邑
金基亨

英陽郡英陽邑
申惠均

英陽郡邑
崔鶴先

英陽郡日月面道溪洞
李河一

英陽郡日月公立普通學校
太田金

英陽郡立岩面蓮塘洞
鄭暉鳳

英陽郡靑杞面上靑洞
趙基元

英陽郡靑杞面靑杞洞
具洪植

英陽郡靑杞面靑杞洞
具然夏

英陽郡靑杞公立普通學校
李裕錫

英陽郡日月面注谷洞
趙文錫

英陽郡立岩公立普通學校
新兒茂

## 平壤

平壤府西門通
建築材料 各種木材 衣類各種 椅子箪笥 金物一切 松丸太 セメント 石灰
三成商工社
金成淳
電話二〇〇七八番 二〇〇九番
振替京城九六四四番

平壤府鷹峴里一番地
平壤協同殖產組合

## 咸興

咸興稅務署

咸興稅務監督局
食堂員一同

咸州郡農會